

- 마태복음에 따른 복음:

- 1 1 이 책은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책이다.
2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은 야곱을 낳았습니다.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습니다.
3 유다는 다말의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페레스는 헤즈론을 낳았다. 헤즈론은 람을 낳았습니다.
4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다. 암미나답은 나헤손의 아버지였다. 나헤손은 살마를 낳았다.
5 살마는 라합의 보아스를 낳았다. 보아스는 룻의 오벳을 낳았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았습니다.
6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로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7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았습니다. 르호보암은 아비아를 낳았습니다. 아비아는 아사를 낳았습니다.
8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았다.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았습니다. 여호람은 웃시야를 낳았습니다.
9 웃시야는 요담을 낳았다. 요담은 아하스를 낳았습니다.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았습니다.
10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았습니다. 므낫세는 아몬을 낳았습니다. 아몬은 요시야를 낳았습니다.
11 요시야는 바빌로니아가 포로로 잡혀 있을 무렵에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습니다.
12 바빌로니아의 포로 생활 후에 여고냐는 실디엘을 낳았습니다. 실디엘은 스룹바벨을 낳았습니다.
13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았습니다. 아비웃은 엘리아קים을 낳았습니다. 엘리아קים은 아조르를 낳았다.
14 아조르는 사독을 낳았다. 사독은 아킴을 낳았습니다. 아킴은 엘리우드를 낳았다.
15 엘리우드는 엘르아살을 낳았다. 엘르아살은 맛단을 낳았습니다. 마태는 야곱을 낳았습니다.
16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가 태어났습니다.
17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모두 열네 명입니다. 다윗으로부터 포로가 된 자까지 열네 명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그리스도까지 14명의 지체가 있습니다.
18 그러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을 때, 요셉이 그녀를 집으로 데려오기 전에 그녀가 성신에 의해 임신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19 그러나 그의 남편 요셉은 경건하여 그녀를 욕되게 하고 싶지 않았으나 그녀를 몰래 떠날 생각을 하였다.
20 또 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다윗의 아들 요셉아 네 남편 마리아를 취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지니, 이는 그녀 속에 난 것이 성령으로 난 것임이니라."
21 또 그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예수라 할지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것임이니라.
22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으므로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곧
23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르리라."
24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주의 천사가 명한 대로 행하고 남편을 데리고 갔더라.
25 그가 첫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를 알아보지 못하니, 그의 이름은 예수였더라.

- 2 1 헤롯 왕 시대에 예수가 유대 땅 베들레헬에서 태어나셨을 때에 동방 박사들이 동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가로되
2 새로 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았고 그분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3 헤롯 왕이 이 말을 듣고 두려워하니, 온 예루살렘이 그와 함께 있더라.
4 또 그가 백성 가운데 있는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를 물었다.

5 그들이 예수께 이르되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선지자가 기록한 것이 이 러하니라
6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결단코 유다 방백들 중에 가장 작은 자가 아니니라. 너희 중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가 될 공작 내게로 올 것임이니라."
7 이에 헤롯이 은밀히 동방 박사들을 불러 별이 언제 나타날지 부지런히 그들에게서 배우고,
8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여 이르되, "가서 아기 예수를 열심히 찾아라. 너희가 그를 찾으거든 나도 와서 경배하리라고 다시 내게 말하라."
9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가버렸다. 또 보라, 그들이 동쪽에서 보았던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 가다가 마침내 떠오르고, 그 위에 섰더니, 그곳에는 아기가 계셨더라.
10 저희가 별을 보고 기뻐하며
11 집에 들어가 아기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경배하고 보물을 열어 금과 유향과 몰약을 주었더라
12 이에 하나님이 꿈으로 그들에게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명하시고, 그들은 다른 길로 그들의 땅으로 돌아갔더라.
13 또 그들이 떠난 후에,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 땅으로 도망하여 내가 네게 말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 이는 헤로도가 그 아기를 죽이려 하는 것이 사실임이니라."
14 그가 일어나 밤에 아이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 땅으로 도망하니라
15 또 그는 헤롯이 죽은 후까지 그곳에 머물렀는데,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함이니, "내가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노라."
16 헤롯이 자기가 동방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보고 몹시 화가 나서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아이들과 그 모든 국경 지대에 있는 두 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였으니 이는 그가 지혜 박사들에게 부지런히 배운 때를 좇아 죽였더라.
17 그때에 예언자 예레미야가 한 말이 성취되었나니,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18 "산에서 그들이 부르짖음, 심히 애곡하며 울며 통곡하는 소리를 들었더라. 라헬은 자기 자녀들 때문에 울었으나 위로를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자녀들과 함께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이었다."
19 그러나 헤롯이 죽었을 때, 보라, 주의 천사가 애굽 땅에서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20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이는 아이의 생명을 얻던 자들이 죽었음이니라.
21 이에 그가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더라.
22 그러나 그는 아켈라우스가 그의 아버지 헤롯 대신에 유대 땅의 왕이라는 말을 듣고, 그곳에 가기를 두려워했다. 그리고 꿈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갈릴리 땅의 장소로 갔다.
23 또 그가 나사렛이라 불리는 성에 와서 거하시니, 이는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는 선지자들의 말을 이루려 함이니라.

3

1 그때에 침례 요한이 와서 유대 땅 광야에서 전파하며
2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말하였다.
3 그는 선지자 이사야가 말하길 "광야에서 전도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주여를 위하여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바르게 하라 하더라"고 말한 그 사람이니라.
4 요한은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 띠를 두르고 있었으며,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더라.
5 예루살렘 성과 유대 온 땅과 요단 주변 모든 땅이 그에게 나아가

6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고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니라
 7 예수께서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침례받으러 오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독사들이 누가 너희에게 장차 올 진노를 피할 것을 보여 주었느냐?
 8 주의를 기울이고 회개의 의로운 열매를 맺으십시오.
 9 너희는 속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시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 아브라함을 위하여 자녀를 일으키실 수 있느니라.
 10 도끼는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무엇이든지 찍어 불에 던져 버립니다.
 11 나는 회개를 위하여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는 이는 나보다 강하고 신발을 신기에 부족하니 그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니라.
 12 그는 손에 삽을 들고 타작마당을 닦고 밀을 곳간에 거두되 쭉정이는 영원불로 태워 없애리라
 13 그때에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러 갈릴리에서 요단으로 요한에게 오셨다.
 14 요한이 그를 꾸짖어 가로되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거늘 네가 내게로 오느냐
 15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그대로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시니라 그런 다음 그분은 그가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16 이에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즉시 물에서 올라오시니, 보라, 하늘이 그 위에 열렸더라.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 같이 내려와 그에게 임하는 것을 보았다.
 17 또 보라,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4

1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더라.
 2 그가 사십 일 동안 밤낮을 금식하였을 때에 배가 고팠더라.
 3 유혹자가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이 될 것이라고 말하라 하니라
 4 대답하여 이르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 느니라 하니라 하니라
 5 마귀가 그를 데리고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들어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6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가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그 사자들을 명하여 너를 다스리라 그들이 너를 손에 업으리니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7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네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지니라 하였느니라
 8 다시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에 이르러 세상의 모든 왕국과 그 영광을 보여 주고
 9 그에게 이르되 네가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하니
 10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서 떠나가라 기록되었으되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 예배하고 다만 그를 섬길지라 하였느니라
 11 이에 악마가 그를 떠났고, 보라, 천사들이 그에게 와서 그를 보살폈더라.
 12 예수께서는 요한이 넘겨졌다는 소식을 듣고 갈릴리 땅으로 가셨습니다.
 13 예수께서 나사렛 성을 떠나 바닷가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있는 가버나움에 와서 거 하시니라
 14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15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곧 바다 길로 요단강 건너편과 이방 갈릴리에 있느니라.
 16 어두움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 곳에 앉은 자들과 사망의 그늘에 빛이 비출 수 있었더라."
 17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시며 전파하기 시작하셨다.
 18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이름은 베드로라 시몬과 그 형 안드레가 그물을

바다에 던지고 있더라 그들이 어부였음이라

19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20 그들은 즉시 그물을 버리고 그분을 따랐다.

21 예수께서 거기서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 요한이 그들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수선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시니라.

22 그들은 즉시 배와 아버지를 떠나 그분을 따랐다.

23 예수께서 온 갈릴리 땅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학교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온갖 전염병을 고치시니라.

24 그의 소문이 시리아 땅에 두루 퍼졌다. 그들은 온갖 병든 사람들, 여러 가지 역병과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 귀신들린 사람들, 달이 뜨거진 사람들, 통풍에 걸린 사람들을 그분에게 데려왔다. 그리고 그분은 그들 모두를 잘 만드셨습니다.

25 그들이 갈릴리에서, 열 도시에서,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에서, 요단 건너편에서로부터 많은 백성을 뒤쫓아 예수를 따랐더라.

5

1 예수께서 백성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오더니

2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시며

3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 라 하시니라

4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5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임이요.

6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7 자비로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자비를 받을 것임이요.

8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9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10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11 사람들이 나를 인하여 너희를 모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거슬러 온갖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 이 있도다.

12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가 상을 받을 것임이니라. 이것이 그들이 너희보다 앞서 있던 예언자들을 박해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4

13 당신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이제 소금이 바보가 되었으니 무엇으로 소금을 뿌려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그것을 쏟아 붓고 밭에 짓밟히는 것 외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

14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도시는 숨길 수 없습니다.

15 촛불을 켜서 뿔 아래에 두지 말고 등잔대 위에 두어서는 안 되며, 이는 그것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취게 할 것이다.

16 그러므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라, 그리하면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 게 하라.

17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노라.

18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까지 율법의 작은 글자나 조금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19 이 지극히 작은 계명 중 하나를 어기고 백성을 이와 같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이를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큰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느니라.

20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것보다 낮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21 너희는 옛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살인하지 말라. 그러나 살인하는 자는 심판의 죄를 지을 것이다."

22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죄를 범한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라하'라고 말하는 자는 충고의 죄를 범한 것이요, '이 어리석은 자여' 하는 자는 지옥 불의 죄를 범한 것이니라.

23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면서 네 형제가 너에게 원한을 품고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24 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네 형제와 화해한 다음 와서 네 예물을 바치 거라.

25 언젠가 대적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이 너를 종에게 넘겨주어 감옥에 갇히게 하지 않도록 네가 아직 그와 함께 가는 동안에 속히 네 원수에게 순종하라.

26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는 마지막 한 톨을 낼 때까지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27 너희는 옛적들에게 "간음하지 말라"고 말한 것을 들었느니라.

28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와 간음한 것이다.

29 그러나 네 오른 눈이 너를 화나게 하거든, 뽑아 버리십시오. 차라리 네 지체 중 하나가 죽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너에게 더 낫다.

30 당신의 오른손이 당신을 화나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내버려 주십시오. 차라리 네 지체 중 하나가 죽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너에게 더 낫다.

31 또한 "누구든지 자기 아내와 이혼하는 자는 이혼 증서를 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32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자기 아내와 이혼하는 자는 (간음하지 않고) 그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고, 죽은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33 너희는 또한 옛 사람들에게 "너는 거짓 맹세하지 말며 하나님께 한 네 맹세를 지킬 것이라"고 말한 것을 들었느니라.

34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결코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니, 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이니,

35 땅도 그의 발등상이니, 예루살렘을 가리켜도 맹세하지 말지니, 이는 그곳이 위대하신 왕의 도시임이니라.

36 너는 네 머리로 맹세하지 말지니, 너는 머리카락 하나도 검거나 희게 만들지 못할 것임이니라.

37 그러나 너희의 말은 '예, 예', '아니오', '아니오'로 하십시오. 그 위에 있는 것은 악입니다.

38 너희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다"는 말을 들었을 것이다.

39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악을 대적하지 말고, 도리어 누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다른 뺨도 내어주어라.

40 누구든지 너와 말다툼을 하고 너의 겹옷을 빼앗으려고 하면, 그의 겹옷도 가지게 하여라.

41 누가 너를 억지로 1마일을 가라고 하면, 그와 함께 두 마일을 가 거라.

42 청하는 사람에게 주고, 너에게 빌리려는 사람을 외면하지 마라.

43 너희는 "너는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들었느니라.

44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며, 너희를 모욕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45 이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그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내리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심이니라.

46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금 징수원들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47 그대가 형제들에게만 친절하다면, 그대는 무슨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냐? 세관원들도 마찬가지

아닌가?

48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해야 한다.

6 1 너희의 자선에 주의를 기울여 그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 주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리라.

2 너희가 자선을 베풀 때에, 위선자들이 학교와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그들이 백성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그들 앞에서 나팔을 불게 하지 말지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은 상을 잃었다.

3 그러나 구제를 베풀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알게 하지 마십시오.

4 이는 당신의 사랑을 감추게 하려 함이니, 은밀한 중에 보시는 당신의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공개적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5 그리고 기도할 때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학교와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위선자들과 같이 되지 마십시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은 상을 잃었다.

6 그러나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히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공개적으로 네게 갚아 주시리라.

7 그리고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방인들처럼 많이 중얼거리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많이 말하면 들으심을 얻으리라고 생각함이니라.

8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동등하지 말지니라. 당신의 아버지는 당신이 아버지에게 물어보기 전에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9 그러므로 너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기도할지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10 당신의 왕국이 오게 하십시오.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11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12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자를 용서하심 같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소서.

13 우리를 유혹에 빠지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14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요,

15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16 너희가 금식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시큰둥하게 보이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금식하면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려고 얼굴을 가장함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은 상을 잃었다.

17 단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 으라

18 그리하면 금식하면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말고 감추인 네 아버지와 은밀한 중에 보는 네 아버지 앞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19 너희는 좀과 동록이 삼키며 도둑이 파고 도둑질하는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지니라.

20 그러나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이는 그들이 좀이나 동록을 먹지 아니하며 도둑이 땅을 파거나 도둑질하지 아니함이니라

21 당신의 보물 있는 곳에는 당신의 마음도 있습니다.

22 눈은 몸의 빛입니다. 너의 눈이 단순하면 네 온 몸이 가벼워질 것이다.

23 그러나 너의 눈이 도적이라면, 너의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너희 안에 있는 빛이 어두움이라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크겠느냐!

24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한 주인을 고집하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기겠나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다.

25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네 생명이냐 먹고 마실 것이냐 네 몸과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 생명은 음식 그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옷보다 몸이 더 중요한가?

26 공중의 새들을 보라 그들은 심지어 앉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지도 않을지라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시느니라. 당신은 그들보다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27 그러나 너희 중에 누가 자기의 길이를 한 큐빗 더할 사람이 있느냐?

28 그러면 당신이 옷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그들이 어떻게 자라나는가: 그들은 일하지도 않고 회전하지도 않는다.

29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그와 같은 옷을 입지 않았다.

30 만일 하나님께서 오늘 서 있고 내일 풀무불에 던져질 들의 풀에게 이와 같은 옷을 입히신다면, 믿음이 적은 너희여, 그분이 너희에게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31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으로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32 이방인들은 이 모든 것을 구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다.

33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4 그러므로 이튿날 아침을 염려하지 말라 아침이 저절로 해결될 것이이니라 매일 자신의 전염병이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7

1 비판을 받지 않도록 판단하지 마십시오.

2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는 심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에게 평가될 것이기 때문이다.

3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4 또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에게 '멈추시오, 내가 네 눈에서 티를 제하리라' 하고 말하겠는데, 보라, 네 눈에 광선이 있느니라.

5 위선자야,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고, 그 다음에 네가 어떻게 네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는지 보아라.

6 너는 성소를 개에게 내주지 말며 네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지니, 그들이 그들을 발로 짓밟고 돌이켜 너를 찢어 죽일까 하노라.

7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7

8 구하는 이는 받는 이가 받고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이에 열리리라.

9 너희 중에 누가 있느냐 그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할 때에 누가 그에게 돌을 바치느냐?

10 아니면, 그분이 뱀을 바치는 물고기를 달라고 한다면?

11 악한 너희가 여전히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다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시겠느냐!

12 사람들이 당신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말씀이니라.

13 좁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 문은 넓고, 길은 넓어 저주에 이르게 하느니라. 그리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 위를 걷고 있습니다.

14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은 좁아서 그것을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15 거짓 예언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오는 것을 조심하여라. 그러나 그들의 속에는 굶주린 이리들이 있다.

16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거나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습니까?

17 이와 같이 모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만, 썩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18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썩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19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모두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20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니라.

21 나에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니라

22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라

23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고백하노니,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였노니, 너희 모든 행악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24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를 자기 집을 바위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에 비유하노라.

25 이에 폭우가 내리고, 물이 흐르고, 바람이 불어 집에 부딪혔을 때, 집이 무너지지 않았으니, 이는 집이 바위 위에 세워졌음이라.

26 또 나의 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라.

27 이에 폭우가 내리고 물이 솟아올라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자, 집이 무너져 크게 무너졌다.

28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백성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29 그는 큰 권세를 가지고 전파하였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였느니라.

8

1 그러나 그분이 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많은 사람이 그분을 따랐다.

2 또 보라, 한 나병 환자가 와서 그를 경배하며 가로되, "주여,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느니라."

3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시며 이르시되 내가 이를 행하리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리고 그는 즉시 나병에서 깨끗해졌다.

4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보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오직 가서 너 자신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증언하게 하려고 명한 예물을 바치라.

5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실 때에 백부장이 나와와 간청 하여

6 가로되 주여 내 종이 집에 있어 통풍으로 병들어 몹시 괴로워하고 있사 오니 하니

7 예수께서는 그에게 "내가 와서 그를 고쳐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8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나는 주께서 내 지붕 아래로 들어가시고 오직 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으리이다 하심을 받을 자격이 없나 이다

9 나는 권위에 복종하는 사람이고, 내 휘하에 군인들이 있으니, 내가 한 사람에게 '가라'고 말하면 그는 가고, 다른 사람에게 '이리로 오라' 하면 그는 오고, 내 종에게는 '이것을 하라'고 하면 그는 행한다.

10 예수께서 이 말을 듣고 놀라시며 따르던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못하였노라

11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사람이 아침저녁으로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다.

12 그러나 왕국의 자녀들은 어둠 속으로 쫓겨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갚이 있으리라.

13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서 네 믿음대로 네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하시니라 그리고 그의 종은 그 시간에 고침을 받았다.

14 예수가 베드로의 집에 가서 보니 그의 장모가 누워 있어 열이 나고
 15 그런 다음 그가 그 여자의 손을 치자, 그 여자는 열병이 떠났다. 그리고 그녀는 일어서서 그들을 보살폈습니다.
 16 저녁에 그들이 귀신들린 많은 백성을 예수께 데리고 오매 그가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며 모든 병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17 선지자 이사야가 "그가 우리의 약점을 짊어지고 우리의 재앙을 담당하셨도다" 한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니라
 18 예수께서는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는 것을 보시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19 한 서기관이 예수께 나아와 가로되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라가겠나이다
 20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를 뉘일 필요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21 또 다른 제자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 서 하니
 22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나를 따르라 죽은 자가 그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23 그리고 그분은 배에 오르셨고, 그분의 제자들은 그분을 따랐다.
 24 또 보라, 바다에 큰 충동이 일어났으므로, 배도 파도로 뒤덮였으므로, 그는 잠들었더라.
 25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멸망하고 있사오니
 26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너희, 어찌하여 이토록 두려워하느냐? 그는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위협하였다. 그러더니 아주 조용해졌다.
 27 백성이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그에게 복종하느냐?
 28 그리고 그는 바다 건너편으로 게르게센 지방에 이르렀다. 그때 두 명의 귀신들린 남자가 무덤 파는 사람에서 나온 그에게 달려왔고, 몹시 화가 나서 아무도 이 거리를 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29 또 보라, 그들이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가 주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까?
 30 그리고 그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초원에 큰 돼지 떼가 있었다.
 31 그러자 마귀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쫓아내려 하시거든 우리를 돼지 떼 속으로 가게 하소 서
 32 이에 그가 이르되 가라! 그리고 나서 그들은 나가서 돼지 떼 속으로 들어갔다. 또 보라, 모든 돼지 떼가 비탈에서 바다로 몸을 던져 물에 빠져 죽었더라. ⁹
 33 이에 목자들이 도망하여 도시로 들어가 이 모든 일과 악귀들에게 일어난 일을 고하니라.
 34 또 보라, 온 도시가 예수를 영접하러 나갔더라. 그들은 그를 보자, 자기들의 지역을 떠나 달라고 간청하였다.

9

1 그가 배에 들어가 다시 배를 타고 건너가 자기 성에 이르렀더라.
 2 또 보라, 그들이 통풍으로 병들어 침대에 누워 있는 한 남자를 그에게로 데리고 왔더라.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통풍으로 고생하는 사람에게 "내 아들이 담대하라.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3 또 보라, 서기관들 중 어떤 사람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하는도다."
 4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보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이같이 악하게 생각하느냐
 5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6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는 통풍으로 고생하는 사람에게 말하노라) 일어나 네 침대를 들고 집으로 가라.

7 그리고 그는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다.

8 백성은 이것을 보고 놀라며 사람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다.

9 예수께서 가실 때에 세관에 앉아 있는 한 사람을 보시고 그의 이름은 마태라 하시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리고 그분은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10 또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집 식탁에 앉아 계실 때에 보라,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았더라.

11 바리새인들이 이를 보고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주인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12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강한 자가 내전을 쓸 것이 아니요 오직 병든 자가 쓸데 있느니라.

13 그러나 "나는 자비를 기뻐하고 희생 제물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는 것이 무엇인지 가서 배우십시오. 나는 죄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러 온 것이지,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14 그 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가로되 어찌하여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고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나이까

15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는데 어찌 혼인 부부가 슬퍼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신랑을 데려갈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금식할 것입니다.

16 아무도 새 형겔으로 낡은 옷을 수선하지 않는데, 그 형겔이 다시 옷을 찢어 찢어지게 하기 때문이다.

17 너희는 낡은 가죽에 사과주를 넣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가죽이 찢어지고 필요한 것이 쏟아지고 가죽이 멀하리라. 대신, 그들은 함께 보존될 수 있도록 새로운 가죽을 넣어야 합니다.

18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보라, 관원 중 하나가 와서 그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딸이 이제 죽었사오니 와서 손을 얹으시옵소서 그리하면 살리라.

19 예수께서 일어나 그분과 그의 제자들을 따르 시니라

20 또 보라, 십이 년 동안 피를 흘리던 한 여인이 뒤에서 그에게 와서 그의 옷자락을 만졌더라.

21 그 여자가 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그의 옷을 만져보기만 하면 나을 것이라."

22 예수께서 돌이켜 그 여자를 보시고 가라사대 내 딸아 담대하라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그 여자는 같은 시간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23 그가 우두머리 집에 들어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백성의 소동을 보고

24 그들에게 이르되 가라 처녀는 죽은 것이 아니요 잠들었느니라 하니 그리고 그들은 그를 비웃었다.

25 그러나 사람들이 쫓겨난 후에 그가 들어가서 그 소녀의 손을 잡자, 그 소녀가 일어섰다.

26 이에 이 소문이 같은 땅에 퍼졌더라. 10

27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실 때에 두 소경이 그분을 따라오며 부르짖어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28 예수께서 집에 돌아오시매 소경들이 그에게 왔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이 일을 너희에게 할 수 있는 줄을 믿느냐 그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예하시이다

29 그리고 그분은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너희 믿음대로 너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하고 말씀하셨다.

30 이에 그들의 눈이 열렸더라. 예수께서는 그들을 꾸짖으시며 "아무도 알지 못하게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1 그러나 그들은 나가서 그분을 같은 온 땅에 알렸다.

32 또 그들이 나왔을 때, 보라, 그들이 병어리 있고 귀신들린 한 사람을 그에게로 데리고 왔더라.

33 그리고 마귀가 쫓겨났을 때, 그 병어리 남자가 말하였더라. 그러자 백성이 놀라며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본 적이 없다"고 말하였다.

34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분은 귀신들의 통치자들로 말미암아 귀신들을 쫓아내신다"고 말하였다.

35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시장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학교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온갖 전염병을 고치시니라.

36 또 그가 백성을 보고 불쌍히 여겼나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가짜로 흠여졌음이라.

37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도다 하시니

38 추수하는 주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시기를 청하십시오.

10 1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더러운 귀신들을 물리칠 권세를 주시어 저희가 쫓아내고 온갖 전염병과 모든 질병을 고치게 하셨더라.

2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일컫는 첫째 시몬과 그의 형 안드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 요한;

3 빌립과 바돌로매; 도마와 마태, 세금 징수원; 야고보, 알패오의 아들, 레바에우스, 타데우스라는 성을 가진;

4 가나의 시몬과 가롯 유다가 그분을 배반하였다.

5 예수께서 이 열두 제자를 보내어 명령하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이방인의 길로 걷지 말며 사마리아 성읍에 들어가지 말며

6 오직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7 그러나 가서 전파하여 '천국이 가까웠다' 하십시오.

8 병든 자를 고치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다. 당신은 그것을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십시오.

9 네 허리띠에는 금이나 은이나 낚시를 가지지 말며,

10 짚을 자루나 두 벌의 겹옷이나 신발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지니라. 일꾼은 자기 먹을 것을 받기에 합당하다.

11 그러나 너희가 도시나 시장에 들어가거든, 그 안에 합당한 사람이 있느냐고 묻고, 너희가 떠날 때까지 그와 함께 있으라.

12 그러나 집에 들어가는 곳마다 인사하십시오.

13 그리고 그 집이 합당하다면, 당신의 평화가 그들에게 임하리라. 그러나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면, 여러분의 평안은 여러분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14 누구든지 너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네 말을 듣지 않으거든 같은 집이나 도시에서 나가 네 발의 먼지를 떨쳐 버려라.

15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최후의 심판 때에 소돔과 고모로우의 땅이 이 도시에서보다 더 견딜 수 있을 것이다.

16 보라,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있는 양같이 보내노니, 그러므로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간사함이 없으라.

17 사람들을 조심하라, 이는 그들이 너희를 그들의 회의에 넘겨줄 것임이요, 그들이 그들의 학교에서 너희를 채찍질할 것임이니라.

18 또 너는 나를 위하여 방백들과 왕들 앞에 끌려갈 것이니, 그들과 이방인들에 대한 증언이 되리라.

19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를 넘겨 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슨 말을 할지 걱정하지 말라.

20 말하는 이는 당신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말하는 것은 당신 아버지의 영입니다.

21 그러나 형제는 형제를 죽음에, 아버지를 아들에게 넘겨줄 것이니, 자녀들은 부모를 거역하고 그들을 도와 죽게 할 것이다.

22 너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23 그러나 그들이 한 도시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다른 도시로 도망하여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사람의 아들이 올 때까지 너희가 이스라엘의 도시들을 끝내지 못할 것이다.

24 제자가 주인보다 높지 않고, 종이 주님 위에 있지 않습니다.

25 제자는 주인과 같고 종은 주인과 같이 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들이 그 집의 아버지를 바알세불이라고 불렀다면, 얼마나 더 그의 집이라고 불릴 수 있겠는가!

26 그러므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알려지지 않을 비밀이 없다.

27 내가 어둠 속에서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빛 가운데서 말하고, 너희가 귀에 들은 것을 지붕 위에서 전파하라.

28 육신을 죽이고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29 너는 참새 두 마리를 한 푼에 사지 않느냐? 그러나 그 중 어느 것도 너희의 아버지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30 그러나 이제 너의 머리털은 모두 세어져 있다.

31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많은 참새보다 나으니라.

32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사람은 나도 그를 나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리라.

33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34 내가 땅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35 나는 남자를 충동하여 그 아버지를 대적하게 하고, 딸이 그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자기 장모를 대적하게 하려고 왔노라.

36 그리고 인간의 원수들은 자기 집안 식구들이 될 것입니다.

37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38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못하니라.

39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찾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¹²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40 너희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영접하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느니라.

41 누구든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게 됩니다.

42 그리고 이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잔을 마시는 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것이 그에게는 상을 받지 못할 일이 없으리라.

11

1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에게 이 명령을 완수하시고, 그는 그들의 도시들에서 가르치시고 설교하시려고 거기를 떠나셨더라.

2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옥에서 행하신 일을 듣고 두 사람을 제자에게 보내어

3 이르되 당신이 오실 사람이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겠나이까 하니

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다시 고 하라

5 소경이 보고 저는 자가 걷는 것과 나병인이 깨끗함을 받고 귀먹은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느니라

6 나로 말미암아 노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7 그들이 가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는 요한의 백성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보러 광야로 나갔느냐?" 하고 말씀하기 시작하였다. 바람이 앞뒤로 움직이는 파이프를 보고 싶었습니까?

8 너는 무엇을 보러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남자를 보고 싶었습니까? 보라, 부드러운 옷을 입는 자들은 왕들의 집에 있느니라.

9 너는 무엇을 보러 나갔느냐? 선지자를 만나고 싶었는가?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는 또한 예언자 이상이시다.

10 이는 "보라, 내가 나의 천사를 너희 앞에 보내리니, 그가 너희 앞에서 너희 길을 예비할 것이라"고 기록된 자가 바로 이임이니라.

11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에게서 난 모든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나지 아니하였으니,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크니라.

12 그러나 침례자 요한의 시대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하늘 왕국은 폭력을 당해 왔으며, 폭력을 행하는 자들은 그것을 장악합니다.

13 요한 외에는 모든 예언자와 율법이 예언되었느니라.

14 또 그는 장차 올 엘리야이니라.

15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16 그러나 내가 이 세대를 누구와 비교하리요?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동료들에게 부르짖는 것과 같습니다.

17 "우리가 너희에게 휘파람을 불었으나 너희는 춤추지 않으려 하였도다; 우리가 너희를 애도하였으나 너희는 울지 아니하리라."

18 요한이 와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으므로 그들은 "그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말합니다.

19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니 그들이 말하길 보라 사람이 어찌하여 탐식하고 포도주를 마시는 자이며 세리와 죄인의 나그네인지요 하더라 그리고 지혜는 그 자녀들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한다.

20 그리고 나서 그는 자기의 대부분의 행위가 행해졌으나 아직 개혁되지 않은 도시들을 꾸짖기 시작하였다:

21 코라진이여, 너에게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화가 있을진저! 만일 그러한 행위가 두로와 시돈에서 일어났다면, 너희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그들은 굶은 벼와 옛날의 재 가운데서 회개했을 것이다.

22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최후의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23 가버나움아, 하늘로 들리움 받은 너는 지옥으로 던져질 것이다. 너에게 행해진 행위가 소돔에서 일어났다면, 그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할 것이기 때문이다.

24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최후의 심판 때에 소돔 땅은 너희에게 있는 것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25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여 내가 주를 찬양하오니 주께서 이 일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셨나이다

26 그렇습니다, 아버지여, 그것이 당신 앞에서 기뻐셨기 때문입니다.

27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한다. 아들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며, 아들이 그를 계시하고자 하는 대상에게 아무도 없다.

28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는 내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함이니, 너희는 너희 영혼의 안식을

얻으리라.

30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습니다.

12

1 그때에 예수께서는 안식일에 씨를 살피보고 계셨는데, 제자들은 배가 고파서 옥수수 이삭을 따서 먹기 시작하였다.

2 바리새인들이 이를 보고 예수께 이르되 보라 주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합당하지 않은 일을 행하고 있나이다

3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윗이 그와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이 굶주렸을 때에 어떻게 하였는지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4 그가 어떻게 성전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먹었느냐? 그것은 자기나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합당하지 않고 오직 제사장들에게만 합당한 것이었다.

5 너희는 율법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전에서 안식일을 범하고도 죄가 없는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6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시다.

7 그러나 "나는 자비를 기뻐하고 희생 제물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8 인자는 안식일을 다스리는 주인이시다.

9 그리고 그는 거기서 가서 그녀의 학교에 이르렀다.

10 또 보라, 손이 오그라든 한 남자가 있었더라. 그들이 예수께 묻기를,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리하여 그들이 그분을 대적할 무엇인가를 가지게 하려 하였다.

11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안식일에 그를 위하여 구덩이에 빠지는 양이 있거든 그것을 잡아 주려 하지 아니하겠느냐

12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나은가!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

13 그리고 나서 그분은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펴었다. 그리고 그녀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다시 치유되었습니다.

14 그때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그분을 어떻게 죽일지 그분에 관하여 상의하였다.

15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말을 듣고 떠나셨다. 이에 많은 백성이 그를 따랐고, 그가 그들 모두를 고치셨으며,

16 그들에게 그를 신고하지 말라고 위협하였고, 14

17 그리하여 선지자 이사야가 말하기를,

18 "보라, 이는 내가 택한 나의 종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그를 기뻐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두리니, 그는 이방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리라.

19 그는 다투거나 부르짖지 않을 것이며, 그의 부르짖음이 거리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20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심판을 집행하여 승리에 이르게 하실 때까지 연기 나는 심지를 끄지 않으실 것이다.

21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으로 소망을 가질 것이니라."

22 그때에 귀신들린 사람이 그에게로 끌려오니 그가 눈멀고 병어리가 되어 고쳐 주니, 눈먼 병어리가 말하고 보게 되었다.

23 이에 모든 백성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 이는 다윗의 아들이 아니냐 하더라

24 바리새인들이 듣고 가로되 그는 귀신의 우두머리 바알세불을 통하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아니하시느니라

25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스스로 분열하는 나라마다 황폐될 것이요 스스로

분열된 성읍이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26 한 사탄이 다른 사탄을 쫓아낸다면, 그는 틀림없이 자기 자신과 불화하고 있을 것입니다.

27 그러나 내가 바알세불로 말미암아 귀신들을 쫓아냈다면, 그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너희 자녀들을 쫓아내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28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르렀느니라.

29 또는 먼저 강한 사람을 결박하고 그 다음에 그의 집을 빼앗지 않고, 어찌 힘센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집안 물건을 빼앗을 수 있겠는가?

30 나와 함께 있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느니라.

31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든 죄와 신성 모독은 사람이 사하심을 받을지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리라.

32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자는 사함을 받을 것이요,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나 다음 세상에서나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33 좋은 나무를 심으면 열매가 좋아지고, 썩은 나무를 심으면 열매가 썩을 것이다. 열매로 나무를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34 독사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을 말할 수 있겠느냐? 마음이 가득 차면 입안이 넘쳐 흐릅니다.

35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보물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악한 보화에서 악을 낳습니다.

36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들은 최후의 심판 때에 그들이 한 모든 헛된 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37 너는 네 말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네 말로 정죄를 받을 것이다.

38 그러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중 몇몇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당신의 표적을 보고 싶습니다 하더라

39 이에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악인과 간음하는 자가 표적을 구하되 선지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표적이 주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40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사흘 낮과 사흘 밤을 지낸 것처럼, '인자'도 땅 가운데서 사흘 낮과 사흘 밤을 지낼 것이다.

41 니느웨 백성이 이 세대와 함께 최후의 심판에 나타나 그들을 정죄할 것이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설교 후에 회개하였음이라. 그리고 보라, 여기에 요나 이상의 것이 있느니라.

42 정오의 여왕이 최후의 심판 때에 이 세대와 함께 나타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녀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하여 땅 끝에서 왔기 때문이라. 그리고 보라, 여기에 솔로몬 이상의 것이 있느니라.

43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서 나간 후에는 메마른 곳을 두루 다니며 쉼을 구하지만 찾지 못하느니라.

44 그러고 나서 그는 "나는 내가 왔던 내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가 왔을 때, 그는 그것이 비어 있고 쓸려 있고 장식되어 있음을 발견합니다.

45 그래서 그는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일곱 영을 취하고, 그들이 들어올 때에 그들이 거기에 거하며, 그 후에 같은 사람이 전보다 더 악해진다. 이 악한 세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46 그가 여전히 백성에게 말하고 있을 때에, 보라, 그의 어머니와 그의 형제들이 그에게 말하고자 밖에 서 있었더라.

47 이에 한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너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서서 너에게 말하고자 하노라.

48 그러나 그는 자기에게 말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니

49 이에 예수께서 손을 제자들에게 내밀어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니라.

50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13

- 1 바로 그날 예수께서는 집에서 나와 바닷가에 앉으셨다.
- 2 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에게 모여들었고, 그가 배에 들어가 앉자, 모든 백성이 바닷가에 섰다.
- 3 이에 그는 비유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더라.
- 4 또 그가 씨를 뿌리는 동안에 더러는 길가에 쓰러지매 새들이 와서 그것들을 먹어버렸다.
- 5 어떤 것들은 흙이 많지 않은 돌 땅에 떨어졌다가 곧 싹이 났는데, 이는 그것들이 깊은 흙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 6 그러나 해가 떠오르면 시들어 뿌리가 없어 말라 버렸다.
- 7 어떤 것들은 가시덤불 사이에 떨어졌고,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들을 숨막히게 했다.
- 8 어떤 사람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었고, 어떤 사람은 백 배, 어떤 사람은 육십 배, 어떤 사람은 서른 배의 열매를 맺었다.
- 9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 10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가로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 11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깨달음이 너희에게 주어졌으나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 하였느니라
- 12 가진 자에게는 풍족하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주셨거늘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느니라.
- 13 그러므로 나는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노라. 이는 보는 눈으로 못하고, 듣는 귀로는 듣지 못함이니라.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 14 그리고 그들 위에서는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될 것이요, 이르기를, "너희가 귀로 들을 것이요, 깨닫지 못하리라. 너희는 보는 눈으로 볼 것이요, 깨닫지 못하리라.
- 15 이는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며, 그들의 귀는 나쁘게 듣고, 그들의 눈은 졸음이니, 언젠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그들의 귀로 듣고 그들의 마음으로 깨달음을 얻고, 내가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돌이키지 않을까 함이니라."
- 16 그러나 보는 데 너희 눈이 복되고 듣기에 너희 귀가 복되도다.
- 17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로운 백성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였으나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들었으나 듣지 못하였느니라.
- 18 그러므로 너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듣는다:
- 19 누구든지 왕국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아 가거니, 이 사람이 바로 그 길로 심어진 자니라.
- 20 그러나 돌 위에 뿌려진 것은 사람이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이니라.
- 21 그러나 그는 자기 속에 뿌리가 없고 번덕스러우며, 말씀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면 즉시 분노한다.
- 22 그러나 가시덤불 가운데 뿌려진 것은 누구든지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가 말씀을 막고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 23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깨달아 열매를 맺으며 어떤 사람은 백 배, 어떤 사람은 육십 배, 어떤 사람은 삼십 배를 맺을 때입니다.
- 24 또 다른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으니라
- 25 그러나 백성이 잠든 동안에 그의 원수가 와서 밀 사이에 가라지를 뿌리고 가버렸다.
- 26 그런데 그 채소가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에, 잡초도 발견되었다.
- 27 종들이 그 집의 아버지에게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는 어디에서 잡초를 얻었습니까?

28 그분은 그들에게 "이것이 원수가 한 일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종들이 말하길, "우리가 가서 잡초를 뽑아 주기를 원하십니까?"

29 그가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 네가 가라지를 뽑는 동시에 밀을 뽑 아 버리지 아니하리라

30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게 하고, 추수 때에 내가 추수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묶어 다발로 묶어 불사르게 하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 들이라 할지니라

31 또 다른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와 같으니라.

32 이는 모든 씨 중에서 가장 작고, 자라서 양배추 중에서 가장 크고,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들 사이로 와서 거하느니라.

33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으니 한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밀가루 세 부셀과 섞어 완전히 누룩이 되게 하였느니라.

34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비유 없이 말씀하지 아니 하셨으니 이는 35 선지자가 말한 바를 이루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비유로 내 입을 열고 창세로부터 비밀을 말하리라 하시니

36 그래서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떠나 집으로 돌아오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밀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37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인자는 선의 씨를 뿌리는 자니라.

38 밭은 세상입니다. 좋은 씨앗은 왕국의 자녀들이다. 가라지는 악함의 자녀입니다.

39 그들에게 씨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입니다. 추수는 세상의 종말입니다. 추수하는 자들은 천사들입니다.

40 가라지가 뽑혀 불에 타는 것 같이 이 세상 끝 에는

41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어 그들이 그의 왕국에서 모든 걸림돌과 악한 자들을 모을 것이며

42 그들이 그들을 불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갚이 있으리라

43 그때에 의로운 자들이 그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태양과 같이 빛날 것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44 또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 감추었다가 기뻐하여 그것을 넘나들며,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45 또다시 하늘 왕국은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습니다.

46 그가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가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것을 샀더라.

47 또, 천국은 바다에 던져진 그물과 같아서 사람이 모든 것을 잡는다.

48 그러나 배가 가득 차면 그들은 그것을 해안으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모으고 썩은 것들은 내쫓는다.

49 세상 끝날에도 그러하리니 천사들이 나가서 악인을 의인과 분리하고

50 그들을 풀무불에 던져 놓으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갚이 있으리라

51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들이 말하길, "예, 주님.

52 이에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이르러 가르침을 받는 서기관들은 다 자기 보물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내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53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마치신 후에 떠나시고,

54 그의 고향 도시로 오셔서 그들의 학교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며 이르되, "이 지혜와 행위는 어디에서 오는가?"

55 그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리아가 아닌가? 그의 형제들 야곱과 호세와 시몬과 유다?

56 그의 누이들도 모두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이 모든 것이 그에게 어디서 오는 것일까?

57 그들이 그로 인하여 노여워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는 자기 나라와 자기

집에서보다 덜 존경받는 곳이 없느니라.

58 그리고 그분은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거기서 많은 표적을 행하지 않으셨더라.

14

1 그때에 예수에 대한 소문이 네 왕자 헤롯 앞에 이르렀다.

2 이에 그가 그의 종들에게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니,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므로 이 일을 행하느니라."

3 헤롯이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던 것은 그의 형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이었다.

4 요한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그것들을 갖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하였더라

5 그는 그를 죽이고 싶었으나 백성이 무서워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를 선지자로 생각하였음이라.

6 그러나 헤로데가 그의 기념일을 축하하고 있을 때, 헤로디아의 딸이 그들 앞에서 춤을 추었다. 헤롯은 이것을 매우 기뻐하였다.

7 그래서 그는 그 여자가 요구하는 것을 주겠다고 맹세로 약속했다.

8 그 여자가 어머니의 부추김을 받아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접시에 담아 내게 주시오.

9 이에 왕은 슬퍼하였으나 그와 함께 식탁에 앉은 자들의 맹세를 위하여 그에게 그것을 바치라고 명하였더라.

10 또 그가 감옥에 갇힌 요한을 보내어 목을 베었더라.

11 그 머리를 접시에 담아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왔더라

12 제자들이 와서 그분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지내고 예수께 이 사실을 고하니라

13 예수께서는 이 말을 들으시고 거기서 배를 타고 홀로 사막으로 가셨습니다. 백성은 이 말을 듣고 걸어서 도시를 떠나 예수를 따랐다.

14 예수께서 나아가사 큰 백성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병자를 고치시니라.

15 저녁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가로되 여기는 사막이니 밤이 되고 있네. 사람들을 너희에게서 떠나라, 그러면 그들은 시장에 가서 음식을 살 것이다.

16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갈 필요가 없으니 음식을 주시라 하시니라

17 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18 이에 그가 이르되 "그들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니라

19 또 백성에게 명하여 풀밭에 눕게 하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러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고 떼어 제자들에게 떡을 주매 제자들이 그것울 백성에게 주었더라.

20 그들이 다 먹고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주웠으니 열두 광주리가 가득 찼더라.

21 그러나 먹은 자들은 아내도 자식도 없는 남자가 오천 명쯤 되었다.

22 그러자 예수께서는 즉시 제자들에게 배에 들어가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가라고 강력히 권하시다가 그분이 사람들을 떠나셨다.

23 그리고 그는 백성을 그에게서 떠나고 기도하러 홀로 산에 올라갔더라. 그리고 저녁에는 그가 혼자 그곳에 있었다.

24 또 그 배는 이미 바다 한가운데에 있었으므로 파도가 필요하였으니, 이는 바람이 그들에게 험오스러웠음이라.

25 그러나 밤 사경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바다 위를 걸으셨다.

26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여 가로되 귀신이다 하며 무서워 부르짖었더라

27 그러나 예수께서는 즉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하시니라

28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께서 주하시거든 나를 물 위로 주께 오게 하소서

29 그가 가로되 이리로 오너라! 베드로가 예수께 나아오려고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었더라.
 30 그러나 그는 강한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며 가라앉기 시작하며 부르짖어 가로되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 소서
 31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32 그들이 배에 들어가자 바람이 잦아들었다.
 33 그러나 배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그분 앞에 엎드려 가로되 당신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
 더라
 34 그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 갈릴리 땅에 이르렀더라.
 35 그곳 사람들이 그를 알게 되자, 그들은 온 땅을 보내어 온갖 불건전한 사람들을 그에게 데려오
 고, 36 그에게 그의 옷자락만 만져 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그를 만진 모든 사람이 나았다.

15

1 예루살렘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나아와 가로되 2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말을 범합니까? 그들은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다.
 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의 글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4 하느님께서 "너는 네 부모를 공경할지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누구든지 죽으리라."
 5 그러나 너희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내게서 너희에게 유익이 될 것을 하나님께 드렸느니라' 하는
 사람은 잘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6 이제부터 아무도 자기 부모나 어머니를 공경하지 아니하니, 너는 네 글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였느니라.
 7 이사야가 너희에 대하여 예언하고 말한 외식하는 자들아,
 8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입술로는 나를 존중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리 있도다.
 9 그러나 그들이 나를 섬기는 것은 헛되나니, 이는 그들이 사람의 계명에 불과한 그러한 교리를 가르치기
 때문이니라."
 10 또 그분은 백성을 불러 "듣고 잡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11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12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듣고 실족한 줄을 아느냐
 13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식물은 다 거두어질 것이다.
 14 그들을 놓아 주십시오. 그들은 눈먼 사람들을 위한 눈먼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나 한 소경이 다른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15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를 위하여 해석해 주십시오
 16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직도 어리석으냐?
 17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두 배로 들어가 자연의 통로에 의해 밖으로 내던져진다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18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그것은 사람을 더럽힌다.
 19 악한 생각은 마음에서 나니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신성 모독이니라.
 20 이것들은 사람을 더럽히는 조각들입니다. 그러나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사람이
 오염되는 것은 아닙니다.
 21 예수께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도망하시니라
 22 또 보라, 한 가나안 여인이 같은 지역에서 나와서 그를 따라 부르짖으며 이르되,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 딸은 마귀에게 심하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23 그리고 그분은 그에게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간청하여 가로되 우리를 쫓아 울고 있으니 내버려 두라 하니

24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25 그 여자가 와서 그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니

26 그러나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이들의 빵을 취하여 개들 앞에 던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27 그녀가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니 개들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28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당신의 믿음이 크도다! 네 뜻대로 너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라. 그리고 그녀의 딸도 같은 시간에 치유되었습니다.

29 예수께서 거기서 가서 갈릴리 바다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시니라

30 많은 사람이 앉은뱅이와 눈먼 자와 병어리와 불구자와 그 밖의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아와 예수의 발 앞에 던지매 그가 그들을 고치시매

31 백성이 병어리가 말하는 것을 보고 절름발이가 고침을 받고 절름발이가 행하며 소경이 보고 놀라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32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백성을 불쌍히 여기노니 저희가 사흘 동안 나와 함께 있으되 먹을 것이 없고 내가 그들을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길에서 실어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33 제자들이 예수께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광야에서 그토록 많은 사람을 만족시킬 만큼 많은 빵을 얻을 수 있겠느냐

34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냐 하시니라 그들은 "일곱 마리와 작은 물고기"라고 말했습니다.

35 예수께서 백성에게 땅에 엎드리라고 명하시고,

36 떡 일곱 개와 물고기를 가지사 감사 드리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그것을 백성에게 주었더라.

37 그들이 다 먹고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주웠으니 일곱 광주리가 가득 찼더라.

38 거기서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한 남자가 사천 명이었더라.

39 또 그가 백성을 떠나 배를 타고 막달라 영토로 들어갔더라.

20

16

1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나아와 유혹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니라

2 그가 대답하여 가로되 저녁에 네가 말하기를 '하늘이 붉으니 아름다운 날이 될 것이다.

3 아침에 너는 "하늘이 빨갛고 흐리니 오늘 폭풍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이 위선자들아! 너희는 천국의 형상을 판단할 수 있다. 너희도 이 시대의 징조를 판단할 수 없겠느냐?

4 이 악하고 음란한 무리는 표적을 구하노니, 예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주어지지 못하리라. 그리고 그는 그녀를 떠나 가버렸다.

5 이에 그분의 제자들이 건너갔을 때에, 그들은 빵을 가지고 가는 것을 잊어버렸다.

6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주의하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 하라 하시니라

7 이에 그들이 속으로 생각하여 가로되 우리가 빵을 가지고 가지 아니하였으니 이러하리 라 하더라

8 예수께서 이를 보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너희여 어찌하여 빵을 가지지 아니한 것을 염려하느냐

9 아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까? 너희는 오천 명 중에 떡 다섯 덩이가 있었으며 얼마나 많은

광주리를 주웠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10 너는 사천 개의 빵 중에 일곱 개의 떡을 기억하지 못하며, 네가 몇 광주리를 주웠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11 내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할 때 내가 빵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12 그러자 그들은 그분이 빵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고 말씀 하신 것임을 이해하였다.

13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여쭙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시니

14 그들이 말하길 어떤 사람들은 너희를 세례 요한이라 하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말하며,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의 한 사람이라고 말하 더라 하더라

15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16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7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는 복이 있도다 이는 혈육이 네게 알게 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알게 한 것이니라

18 또 내가 또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요, 지옥문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19 또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리니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20 그런 다음 그분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금하셨습니다.

21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인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시작 하셨다.

22 베드로가 그를 붙잡아 쏘아 붙이며 가로되 주여 살려 두시옵소서 이런 일이 주께 일어나지 않게 하소서

23 예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내게 화가 났도다 이는 네가 신성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인간적인 것을 의미함이니라

24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5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입니다.

26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 자기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또는 인간이 자신의 영혼을 다시 구속하기 위해 무엇을 줄 수 있겠는가?

27 이는 이렇게 될 것임이니, 인자가 그의 아버지의 영광 중에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요, 그 후에는 그가 각자 그의 행위에 따라 갚을 것임이니라.

28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인자가 자기 왕국에 오는 것을 보기 전에는 죽음을 맛보지 않을 사람들이 있다.

17

1 열새 일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가니라

2 또 그는 그들 앞에서 변형되었고,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났으며, 그의 옷은 빛과 같이 희어졌다.

3 또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 그에게 말하더라.

4 베드로가 대답하여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하나이다 하니 당신이 원하신다면 우리는 여기에 세 개의 성막을 만들 것입니다: 하나는 당신을 위한, 하나는 모세를 위한, 다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한 것입니다.

5 그가 여전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 때에, 보라, 밝은 구름이 그들을 덮었더라. 또 보라,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크게 기뻐하는 자라, 너희가 그의 말을 들을 것이라."

6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몹시 두려워했다.

7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만지시며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 그러나 그들이 눈을 들어 보니, 예수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9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이 환상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지니라 하시니라

10 제자들이 여쭙어 가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느냐

11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바로잡게 하라 하시니라

12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엘리야가 이미 왔으나 그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그에게 행하였더라.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도 그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13 그제야 제자들은 그분이 침례 요한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이해했습니다.

14 그들이 백성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그에게 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

15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미치광이로 큰 괴로움을 겪으매 자주 불에 빠지며 자주 물에 빠지나이다.

16 내가 그를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그들이 그를 도울 수 없었나이다.

17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지 아니하고 패역한 너희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이까 그를 이리로 데려오세요!

18 예수께서 그를 꾸짖으시매 마귀가 그에게서 나오매 그 때에 그 아이가 나왔더라

19 이에 그분의 제자들이 특별한 방법으로 그분에게 나아와 가로되 우리가 어찌하여 그를 쫓아내지 못하였느냐 하더라

20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의 믿지 않음 때문이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에게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다면, 이 산에게 '여기서 그곳으로 가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그는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당신에게 불가능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21 그러나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는 사라지지 않는다.

22 그들이 갈릴리에서 그 본질을 가졌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되었나마 인자가 사람의 손에 넘겨지리라.

23 그들이 그를 죽이고, 사흘째 되는 날에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몹시 슬퍼하였다.

24 그들이 가버나움에 이르러 베드로에게 가하니, 베드로가 이자를 받고 가로되 "당신의 주인은 그 동전을 주는 습관이 없나이까?"

25 그는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에 예수께서 그 앞에 오셔서 "시몬아, 어떻게 생각하느냐? 땅의 왕들은 누구로부터 통행료나 이자를 받는가? 당신의 자녀로부터입니까, 아니면 낯선 사람들로부터입니까?"

26 베드로가 그에게 이르되 나그네들 중이라 하더라 예수께서 그에게 "그러므로 아이들은 자유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7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하여 바다로 가서 낚싯대를 던지고 먼저 올라오는 물고기를

잡으라 그리하면 그 입을 벌리면 스테이터가 나올 것이니 너는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그들에게 주어라.

18

1 그 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가로되 천국에서 누가 크냐 하니

2 예수께서 한 아기를 불러 그들 가운데 두시고

3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4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제일 큰 자니라.

5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6 그러나 나를 믿는 이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고 바다가 가장 깊을 때에 물에 빠뜨리는 것이 나을 것이라.

7 걸려 넘어지는 세상에 화가 있을 것이다! 귀찮은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걸려 넘어지게 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8 그러나 당신의 손이나 발이 당신을 화나게 한다면, 그것을 잘라 버리고 내던져 버리십시오. 네가 절름발이가 되거나 불구가 되어 생명을 얻는 것이 두 손이나 두 발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9 네 눈이 너를 불쾌하게 하거든, 그것을 뽑아 내던져 버려라. 차라리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10 이 작은 자들을 아무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늘에 있는 그들의 천사들은 항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본다.

11 인자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왔도다.

12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이 백 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면, 그는 아흔아홉 마리를 산에 남겨 두고 길을 잃은 한 마리를 찾아보지 않겠는가?

13 또 이렇게 되어서, 만일 그가 그것을 찾을진대,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는 길을 잃지 않은 아흔아홉 명보다 더 기뻐하느니라.

14 그러므로 이 작은 자들 중 누구든지 멸망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15 그러나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너와 그 사이에서만 그를 벌하여라. 그가 당신의 말을 듣는다면, 당신은 형제를 얻은 것입니다.

23

16 그가 네 말을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모든 것이 두세 증인의 입이 되게 하여라.

17 그가 듣지 못한다면, 회중에게 말하십시오. 만일 그가 교회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를 세금 징수원이나 이교도로 간주하라.

18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19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둘이 하나가 되어 그들이 왜 묻고자 하는지를 구하고자 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신 것이 되리라.

20 이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음이니라.

21 베드로가 예수께 나아와 가로되 주여 내게 범죄한 형제를 내가 얼마나 자주 용서하여야 합니까 일곱 번이면 충분합니까?

22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곱 때가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씩 하라 하시니라

23 그러므로 하늘 왕국은 자기 종들을 배려하고자 하는 왕과 같습니다.

24 그가 계산하기 시작하니, 그에게 일만 파운드를 빚진 자가 있는 것 같았다.

25 그가 갚아야 할 돈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와 그의 아내와 자녀들과 그가 내야 할 모든 것을 말씀하셨다.

26 그러자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주여 내게 참으소서 내가 모든 것을 주께 갚으리이다

27 그러자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그를 놓아 주었고, 그의 빚도 용서해 주었다.

28 그때에 그 종이 나가서 자기 동료 종들 중 한 사람을 찾아서, 자기에게 백 페니를 빚진 것을 찾아서, 그를 공격하여 목을 졸라 죽이며 "당신이 내게 진 것을 내게 갚으라" 하고 말하였다.

29 그러자 그의 동료 종이 엎드려 간청하며 "내게 참으시오 내가 모든 것을 당신에게 갚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30 그러나 그는 거절하지 않고 가서 그가 빚진 것을 갚을 때까지 그를 감옥에 던져 넣었다.

31 그러나 그의 동료 종들이 이것을 보고 크게 슬퍼하며, 일어난 모든 일을 주인에게 와서 가져왔더라.

32 그러자 주인이 그를 불러 가로되 이 악한 놈아, 네가 내게 청한 동안에 나는 이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다.

33 내가 당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처럼 당신도 당신의 동료 종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겠습니까?

34 그의 주인이 몹시 화가 나서 그를 고문자들에게 넘겨주니, 그가 그에게 진 빚을 다 갚기까지 말하더라.

35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는 너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말이니라.

19 1 또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일어나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유대 땅의 영토로 들어가셨더라. 2 이에 많은 백성이 그를 따랐고, 그는 거기서 그들을 고쳐 주었다. 3 이에 바리새인들이 나아와 예수를 유혹하여 이르되 율요냐? 남자가 어떤 이유로든 아내와 이혼해야 한다는 것? 4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태초에 사람을 만드신 이가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5 가라사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에게 붙어 둘이 한 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6 그러므로 이제 그들은 둘이 아니라 한 몸이 되었다. 이제 하느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아무도 갈라놓지 못하게 하십시오. 7 그들이 가로되 어찌하여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하라고 명령하였나이까 8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너희가 아내와 별거하는 것을 허락하였느니라. 그러나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9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음행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니라. 죽은 자와 결혼하는 자는 또한 간음하는 것이다. 10 제자들이 예수께 이르되 남자와 아내 사이에 이런 일이 있거든 결혼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11 이르시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요 준 자에게 주어지느니라 12 끊어진 사람들 곧 이런 식으로 어머니의 태에서 난 사람들이 있느니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의해 끊어진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천국을 위하여 자신을 끊은 사람들도 있다. 누구든지 그것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을 움켜쥐게 하십시오! 13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그분에게 데리고 오셨고, 그분은 그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14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금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니라 하시니라 15 이에 그는 그들에게 손을 얹고 떠나갔더라. 16 또 보라, 그들 중 한 사람이 그에게 와서 이르되, "선하신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17 이에 그가 그에게 이르되, 왜 나를 인정하느냐?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에 들어가기 원한다면 계명을 지키십시오. 18 그러고 나서 그분은 그에게 "어떤 것들이요?" 하고 물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지니라. 19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20 이에 그 젊은이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

모든 것을 내 어려서부터 간직하였노라. 내가 아직도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21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해지려거든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와서 나를 따르라. 22 그 젊은이가 그 말씀을 듣고 슬픔에 잠긴 마음으로 그에게서 떠났으니, 이는 그에게 재산이 많았음이라. 23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곤란하니라 24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25 그분의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며 "그래,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하고 말하였다. 26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능치 못하리라.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27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라,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28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따른 너희가 거듭남에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또 열두 의자에 앉으사 이스라엘의 열두 족속을 심판하리라. 29 그리고 누구든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밭을 버리는 자는 그것을 백 배로 취하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30 그러나 먼저 된 많은 사람이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이 먼저 될 것입니다.

20

1 천국은 마치 자기 포도원에서 품꾼을 고용하러 아침에 나가는 집주인과 같다.

2 그는 하루 품삯 한 페니를 받고 일꾼들과 하나가 되자,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다.

3 제십시쯤 나가시되 다른 사람들이 장터에서 한가롭게 서 있는 것을 보고

4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옳은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5 그리고 그들은 갔다. 그는 다시 여섯째와 아홉시에 나가서 같은 일을 하였다.

6 제십시 때쯤에 나가 다른 사람들이 빈둥거리고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하루 종일 빈둥거리며 서 있느냐?

7 그들이 예수께 이르되 우리를 고용한 자가 없도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리하면 옳은 것이 너희의 것이 되리라."

8 저녁이 되자 포도원의 주인이 차장에게 이르되 일꾼들을 불러 품삯을 주고 나중 사람부터 먼저 시작하라 하니라

9 그리고 나서 십시쯤에 고용된 사람들이 와서 각자 자기 동전을 받았더라.

10 그러나 첫 번째 사람이 왔을 때, 그들은 더 받을 줄 알고 각자 자기 동전을 받았더라.

11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집주인을 원망 하며

12 가로되 이들은 한 시간만 일하였으니 너는 그들을 낮의 짐과 더위를 진 우리와 같이 만드셨나이다

13 그러나 그가 대답하여 그들 중 한 사람에게 이르되 친구여, 나는 당신에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돈 한 푼 받고 나와 하나가 되지 않았느냐?

14 네 것을 가지고 가거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하듯이 이 마지막에게도 줄 것이다.

15 아니면 내 것으로 내 뜻대로 할 능력이 없느냐? 그래서 나를 장난스럽게 보는 건지 내가 그렇게 친절한가?

16 이와 같이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것입니다. 부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음이니라.

17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사 열두 제자를 데리고 특히 길에서 가라 사대

18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요 19 그들이 그를 사형 선고하리니

19 또 이방인들에게 넘겨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리라 하시고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리라

20 그때에 세베대의 자녀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그분에게 와서 그분 앞에 엎드려 무엇인가 물었다.

21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당신의 왕국에 앉게 하옵소서 하나는 당신의 오른편에, 하나는 당신의 왼편에 앉게 하소서.

22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마실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리고 내가 세례를 받는 것과 같은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은 그분에게 "예, 주여" 하고 대답하였다.

23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내 잔을 마시고, 나와 같은 침례와 함께 침례를 받을 것이나, 이는 내가 내 오른편과 왼편에 앉을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께서 예비한 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니라."

24 열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두 형제에게 분개하였다.

25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 방백들이 다스리고 통치자들이 권세를 가지고 있느니라.

26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능하기를 원하거든 너희의 종이 되십시오.

27 누구든지 지극히 고귀한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니,

28 인자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구속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려 한 것과 같으니라.

29 그들이 예리고를 떠날 때에 많은 백성이 그를 따랐다.

30 또 보라, 두 소경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듣고 부르짖어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31 그러나 백성은 그들에게 잠잠하라고 위협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더욱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32 그러나 예수께서는 가만히 서서 그들을 부르시며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33 그들이 예수께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하옵소서

34 예수께서 애곡하시고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그들의 눈이 시력을 되찾고 그들이 예수를 따랐더라.

21

1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올리브 산 벳바게로 향할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고

2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앞에 있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 곧 너희는 나귀 한 마리와 그 나귀 새끼를 볼 것이다. 그를 풀어 내게로 데려오라."

3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그것들을 필요로 하시니, 가능한 한 속히 너희에게 그것들을 남겨 주실 것이다.'라고 말하라.

4 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으므로 선지자가 말한 것이 이루어지려 하사

5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너의 왕이 나귀를 타고 무거운 나귀 새끼를 타고 온유하게 네게 오고 있도다."

6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행 하고

7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져와서 그 위에 옷을 입히고 그 위에 세웠더라

8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길에 옷을 널어 놓았고, 다른 사람들은 나무에서 가지를 잘라 길에 흩어 놓았다.

9 그러나 앞서가는 백성과 뒤따르는 백성은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여!" 하고 외쳤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찬송하리로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10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매 온 도시가 동요하여 가로되 그가 누구냐 하더라

11 백성이 가로되 이이는 예수시요 갈릴리 나사렛 선지자시로다 하더라

12 예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모든 팔아넘기와 사는 자를 쫓아내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두드리시며

13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그 자체로 살인자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14 이에 눈먼 자와 저는 자가 성전에서 그분께 가니, 그가 그들을 고치셨더라.

15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성전에서 외쳐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라고 외치는 자녀들을 보고 16 그들이 분개

하여 그분께 여짜오되 너희도 그들의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네가 찬양을 준비하였도다"를 읽어 본 적이 없습니까?

17 그가 그들을 그곳에 남겨 두고 성을 떠나 베다니로 가서 거기에 머물렀더라.

18 그러나 그가 아침에 도시로 돌아갔을 때, 그는 배가 고팠다.

19 예수께서 길가에 있는 무화과나무를 보고 가보시고 거기서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시고

이르시되 이제 다시는 너에게 열매가 자라지 못하게 하라 하시니라 그러자 무화과나무는 곧 말라 죽었습니다.

20 이에 제자들이 이를 보고 놀라 가로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그렇게 빨리 말라 죽었나이까?

21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무화과나무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산에게 일어나 바다에 던져라 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시니

22 그리고 무엇이든지 기도로 청하는 것을 믿으면 받을 것입니다.

23 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오시고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께 나아와 가로되

네가 무슨 권능으로 이것을 하느냐?

2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한 마디 묻겠는데 너희가 이것을 내게 말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것을 하는지도 너희에게 고하리 라

25 요한의 세례는 어디에서 왔느냐? 그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가?

그들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만일 우리가 그 여자가³⁷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면, 그는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가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 하리라 하리라 하더라

26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것이 사람에게서 났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백성을 두려워해야 할 것인데, 그들 모두가 요한을 예언자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27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리고 그분은 그들에게 "내가 무슨 능력으로 이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

28 그러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두 아들이 있는 한 남자가 있었는데 첫째 아들을 찾아가 가로되 내 아들이아 오늘 가서 내 포도원에서 일하라 하니라

29 그러나 그는 대답하여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후에 그는 회개하고 갔다.

30 그리고 그분은 다른 사람에게 가서 즉시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는 대답하여 "주님, 그렇습니다! - 그리고 가지 않았다.

31 두 사람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습니까?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첫 번째"라고 하였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도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32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바른 길을 가르쳤을 때, 너희는 믿지 않았고, 세리와 창녀들은 그를 믿었다. 그리고 비록 너희가 그것을 잘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중에 그를 믿었을 것이라고 회개하지 않았다.

33 또 다른 비유를 들어보자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심고 그 둘레에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포도즙틀을 파고 망대를 쌓아 포도원 장수들에게 주고 나라를 두루 다니더라.

34 열매의 때가 이르자, 그분은 종들을 포도나무 재배자들에게 보내어 그 열매를 받으게 하셨다.

35 포도나무 기르는 자들이 그의 종들을 데려다가 한 사람은 기절시키고, 다른 한 사람은 죽이고, 세 번째 사람은 돌로 쳤다.

36 그는 다시 처음보다 더 많은 다른 종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들에게 똑같이 하였다.

37 그리고 그분은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시며 "그들이 내 아들을 무서워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38 포도원 장수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 이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를 죽이고 그의 기업을 우리에게 가져오자.

39 그들이 그를 잡아 포도원에서 쫓아내고 죽였더라.

40 그러므로 포도원의 주인이 올 때에, 그는 이 포도나무 재배자들에게 무슨 일을 할 것입니까?

41 그들이 예수께 이르되 그가 악인을 죽이고 자기 포도원을 다른 포도나무 농사꾼들에게 내어주리니 그들이 때를 따라 열매를 주리라 하더라

42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을 읽어 못하였느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잇돌이 되었도다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니, 우리 눈앞에 기이하다."

43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서 거두어져서 그 열매를 맺을 백성에게 주어지리라.

44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산산이 부서질 것이요,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질 것이다.

45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의 비유를 들었을 때, 그들은 그가 그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줄 이해하였더라.

46 또 그들이 어떻게 그를 붙잡았는지 보려고 하였으나, 그들이 그를 선지자로 생각하였으므로 백성이 두려워하였더라.

22 1 예수께서 대답하여 다시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2 천국은 아들이 결혼한 왕과 같으니라 3 그가 자기 종들을 보내어 혼인 잔치에 손님들을 불러 모으게 하였으나, 그들이 오지

아니하였더라 4 그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손님들에게 이르되 보라. 나는 내 음식을 준비했고, 내 소와 살진 소를 잡았으며,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결혼식에 오세요! 5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업신여기고 그의 발으로 가고, 다른 하나는 그의 일하러 갔다. 6 그들 중 일부는 그분의 종들을 붙잡아 조롱하고 죽였다.

7 왕이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군대를 보내어 이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성에 불을 질렀더라 8 그리고 나서 그는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하객들이 합당하지 못하니라 하고 말하였다.

9 그러니 거리로 나가 네가 만나는 사람을 잔치에 초대하여라. 10 종들이 거리로 나가 함께 모여서 그들이 발견한 사람, 악과 선; 그리고 테이블은 모두 꽉 찼습니다. 11 왕이 하객들을 보러 들어갔는데, 거기서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한 남자를 보았다. 12 그가 그에게 이르되 친구여 너는 어찌하여 혼인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그러나 그는 침묵했다. 13 왕이 신하들에게 이르되 그의 손과 발을 묶어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슬피 울며 이를 갚이 있을 것이다. 14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음이니라. 15 그때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그분의 말을 듣고 의논하였다. 16 그들이 헤롯의 종들과 함께 자기들의 제자들을 그에게 보냈더라. 그들이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당신이 진실하시며 하나님의 도를

바르게 가르치사 아무에게도 구하지 아니하시는 줄을 우리가 압니다. 왜냐하면 그대는 사람들의 명성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다. 17 그러므로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에게 말해 보십시오: 이자를 카이사르에게 주는 것이 옳은가, 그렇지 않은가? 18 예수께서는 그들의 악을 보시고 "너희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유혹하느냐? 19 관심 있는 동전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들은 그에게 동전을 내밀었습니다. 20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형상과 비문이 무엇이냐? 21 그들이 그분에게 "카이사르의 것"이라고 말하였다. "가이사르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22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놀라 예수를 버리고 가니라 23 그 날에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나아와 여쭙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이르되 사람이 죽어 자녀가 없으면, 그 형제가 그 아내와 결혼하여 그 형제의 씨를 일으키리라' 하더라 25 그런데 우리와 함께 일곱 형제가 있었다. 첫 번째 사람은 결혼하고 죽었다. 그는 씨가 없었기 때문에 아내를 동생에게 맡겼다. 26 그리고 다른 하나와 셋째 것부터 일곱째 것까지. 27 결국,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28 이제 부활 때에, 그 여자는 일곱 사람 가운데 어떤 여자가 될 것입니까? 그들은 그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29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잘못 생각하여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도다 30 부활 때에 그들은 장가가도 안 가고 결혼하지도 않을 것이며, 하늘에 있는 하느님의 천사들과 같이 될 것입니다. 31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 곧 32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33 이에 백성이 이 말을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34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분이 어떻게 사두개인들의 입을 막으셨는지를 듣고 함께 모였다. 35 그 중 한 사람인 서기관이 그를 유혹하여 가로되 36 "선생님이여, 율법에서 가장 고귀한 계명이 무엇이니까?" 37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니라 38 이것은 가장 고귀하고 가장 큰 계명입니다. 39 그러나 나머지는 그와 같으니라. 너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 40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예언서에 달려 있느니라. 41 바리새인들이 함께 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고, 42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느낍니까?" 하고 물었다. 그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그들은 "다윗의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43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윗이 어떻게 그를 성령 안에서 주라고 부르며 44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너희 원수들로 하여금 너희의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45 다윗이 그를 주인이라고 부르거든, 어찌 그의 아들이 되겠느냐? 46 그 날 이후로 아무도 그에게 한 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고, 아무도 감히 그에게 묻지 못하였다.

29

23

1 예수께서 백성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2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왕좌에 앉아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3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무엇을 지키라 말하고 또 행하되 그들의 행위대로 행하지 말지니 그들은 잘 말하고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4 그러나 그들은 무겁고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짊어지고 사람의 목에 걸치지만, 그들 자신은 손가락으로 그것들을 움켜쥐려 하지 않는다.

5 그러나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기의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그들은 생각나게 하는 것들을 펼쳐 놓고, 옷자락을 크게 풀어 놓는다.

6 그들은 식탁의 머리말에 앉기를 좋아하고 학교에서 앉기를 좋아하며,

7 장터에서 환영을 받고 사람들이 라비라고 부르는 것을 좋아한다.

8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일컬음을 받지 말지니, 이는 한 분이 너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시요 너희는 다 형제이기 때문이다.

9 땅에서는 아무도 아버지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니, 이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한 분이시니라.

10 그리고 너희는 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 중에 그리스도가 한 분이심이라.

11 너희 중에 가장 큰 자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리라.

12 이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13 위선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야, 천국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 버린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당신은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14 과부의 집을 삼키고 오래 기도하는 위식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야,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라도! 그래서 너희는 더욱 많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15 너희 땅과 바다를 돌아다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식자들아, 너희가 동료 유대인을 만들려고 할 것이라; 그가 그렇게 되었을 때에, 너희는 그를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할 것이니, 곧 너희보다 두 배나 더 많을 것이다!

16 눈먼 지도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러나 누구든지 성전의 금을 가지고 맹세하는 사람은 그것을 빚진 것이다."

17 너희 어리석은 자들과 눈먼 자들아! 금과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 중 어느 것이 더 크냐?

18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 위에 있는 희생을 맹세하는 사람은 그것을 빚진 것입니다."

19 너희 어리석은 자들과 눈먼 자들아! 희생 제물과 희생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 중 어느 것이 더 큰가?

20 그러므로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21 그리고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거하는 자를 두고 맹세 하는 것이니라.

22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두고 맹세 하는 것이니라.

23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라도 그들은 박하와 딜과 커민의 십일조를 바치고 율법에서 가장 무거운 것 곧 심판과 자비와 믿음을 남겨 두었느니라. 이것을 해야 하고 저것을 남겨서는 안 됩니다.

24 너희는 각다귀를 체로 쳐내고 낙타를 삼키는 지도자들을 현혹하였다.

25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이니, 그들은 겉은 깨끗하게 유지되되 속은 강도와 탐식이 가득 하도다!

26 눈먼 바리새인이야, 먼저 잔의 안쪽과 접시를 깨끗^{ᄇᆞ}하여 바깥쪽도 깨끗하게 하십시오.

27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라도. 그들은 회칠한 무덤 같아서 겉으로는 아름답지만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움으로 가득 하도다!

28 너도 그와 같이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너의 품위는 위선과 악으로 가득 차 있도다.

29 예언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의 무덤을 장식하는 위선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야,

30 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날에 있었다면 그들과 함께 선지자의 피에 참여하지 못하였으리라" 하는 너희 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31 그러므로 너희는 예언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언한다.

32 오너라, 너희도 너희 조상들의 분량을 이루 어라.

33 뱀과 독사들이야,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저주를 피할 수 있겠느냐?

34 그러므로 보라, 내가 선지자들과 지혜자들과 서기관들을 너희에게 보내노니, 그들 중 일부는 너희가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며, 일부는 그들의 학교에서 채찍질하며 이 도시에서 저 성읍으로 그들을 박해할 것이니라.

35 그리하여 의로운 아벨의 피로부터 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너희가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인 모든 의로운 피가 너희에게 임하게 하려 함이니라.
 36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모든 일이 이 세대에게 임하리라.
 37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너희에게 보내진 자들을 돌로 치는 자들아,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으듯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너희의 자녀들을 모으고 싶었는지 모르겠다.
 38 보라, 너의 집은 너에게 황폐하게 버려질 것이니라.
 39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제부터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이 있도다' 할 때까지 나를 못하리라.

24

1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시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성전 건축을 보여 주니라.
 2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못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놓일 것이 하나도 없으리라.
 3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아 계실 때에 제자들이 특별히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이 일이 언제 다 일어날지 우리에게 말해 보시오 그리고 당신의 미래와 세상 끝의 징조는 무엇일 것입니까?
 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주의하라
 5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다" 하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임이니라.
 6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외침을 들을 것이니, 깨어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선, 이 모든 것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닙니다.
 7 이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왕국이 왕국을 대적할 것임이니, 역병과 귀중한 시간과 지진이 이따금 있을 것임이니라.
 8 그러면 무엇보다도 먼저 고난이 증가할 것입니다.
 9 그때에 그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고 너희를 죽일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아야 한다.
 10 그때에 많은 사람이 노하고, 서로 배반하며, 서로 미워하리라.
 11 또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12 또 불의가 득실거늘 많은 사람은 사랑이 식어지리라.
 13 그러나 끝까지 건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14 그리고 왕국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요, 그 후에 끝이 오리라.
 15 너희가(예언자 다니엘이 말한)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성소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16 너는 유대 땅에 있는 산으로 도망하여라.
 17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자기 집에서 어떤 것을 가져오려 내려와서는 안 된다.
 18 밭에 있는 자는 자기 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지어다.
 19 그러나 그때에 임신한 여자와 젖먹이 아기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20 그러나 너희의 도망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21 이는 곧 큰 환난이 있을 것임이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임이니라.
 22 그리고 이 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아무도 구원을 얻지 못하리니, 다만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단축되리라.
 23 그때에 누가 너희에게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다' 또는 '저기있다' 말하면, 너희는 그것을 믿지 않을 것이다.
 24 이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할 것임이니, 이는 택함받은 자들조차도 (가능한 경우에는) 오류에 속임을 당할 것임이니라.

25 보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말하였느니라.
 26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되 '보라, 그는 광야에 있느니라' 말하거든, 나가지 말지니, 보라, 그가 방에 있도다, 믿지 말라.
 27 번개가 떠오르는 곳에서 나가 해 질 때까지 빛나듯이, 인자의 오는 일도 그러하리라.
 28 그러나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여 있습니다.
 29 그러나 그 때의 환난 후에 얼마 안 있어,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움직일 것이다.
 30 그 때에 인자의 표징이 하늘에 나타날 것이요.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울며, 인자가 권능과 큰 영광으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31 또 그가 밝은 나팔을 불며 그의 천사들을 보낼 것이요, 그들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의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리라.
 32 무화과나무에서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이 무르익을 때, 너는 여름이 가까웠음을 안다.
 33 그러므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일지라도, 그것이 문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알아라.
 34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35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36 그러나 그 날과 시간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알도다.
 37 그러나 노아 시대에 있었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의 미래도 그러할 것입니다.
 38 홍수 전의 날과 같이 그들이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결혼하여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하였더라.
 39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데려가기까지 그들이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니, 인자의 임도 그러하리라.
 40 그 때에 밭에 돌이 있을 것인데, 하나는 받아들여지고 다른 하나는 버려질 것이다.
 41. 둘은 밭돌에서 밭돌을 갈아 하나는 받아들여지고 다른 하나는 버려질 것이다.
 42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는 너희 주가 어느 시간에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3 그러나 이것을 알아두었으니, 만일 그 집의 아버지가 도둑이 오는 시간을 알았더라면, 그는 깨어 있으면서 자기 집에 침입하지 못하게 하였을 것이다?²
 44 그러므로 너희가 준비되었나니, 이는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올 것임이니라.
 45 그러나 주인이 자기 종들 위에 임명하여 때를 따라 양식을 주게 한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은 누구입니까?
 46 종이 그 주인이 와서 행하는 것을 보면 복 이 있도다.
 47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그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돌보도록 그를 임명하실 것입니다.
 48 그러나 악한 종이 마음속으로 '내 주인이 오실 길이 멀다'고 말하고,
 49 동료 종들을 때리며 술 취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 시작하면,
 50 종의 주인은 자기가 미리 못하는 날에, 자기가 생각하지 않는 시간에 올 것이다.
 51 그가 그를 멸망시키고, 위선자들과 함께 상을 주리니, 슬피 울며 이를 갚이 있으리라.

25

1 그 때에 천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을 것이다.

2 그러나 그들 중 다섯은 어리석었고, 다섯은 지혜로웠다.

3 어리석은 자들은 그들의 등에 기름을 넣었으나 그들은 기름을 가지고 가지 않았다.

4 그러나 지혜로운 자들은 그들의 그릇과 등에 기름을 넣었더라.

5 그래서 신랑이 머무르자, 그들은 모두 잠이 들었다가 잠이 들었다.

6 한밤중에 "보라, 신랑이 오신다니 그를 맞으러 나오라"고 외쳤습니다.

7 그러자 이 처녀들은 모두 일어나 등불을 꾸몄다.

8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지혜로운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지고 있으니 당신의 기름을 우리에게 좀 주십시오

9 지혜 있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가 상할까 하여 그렇지 아니하고 가게 주인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사오 라 하니라

10 그들이 사러 갈 때에 신랑이 오고, 준비된 사람들이 그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니, 문이 닫혔더라.

11 마침내 다른 처녀들도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12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13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는 인자가 올 날과 시간을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14 어떤 사람이 그 나라를 여행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준 것처럼,

15 한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다른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세 번째 사람에게는 각각 그 능력에 따라 주고 곧 떠났더라.

16 그래서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가서 그들과 거래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얻었더라.

17 그와 같이, 두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른 두 달란트도 얻었습니다.

18 그러나 그것을 받은 자는 가서 땅에 구덩이를 만들고 자기 주인의 돈을 감추었더라.

19 오랜 후에 이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에게 보고하였다.

20 이에 다섯 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또 다섯 달란트를 내놓으며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사오니 보라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얻었나이다

21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경건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조금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를 많이 위에 세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22 이에 두 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사오니 보라 내가 그것으로 두 달란트를 더 얻었나이다

23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경건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를 많은 것 위에 세워 주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24 이에 백 웨이트를 받은 자가 와서 가로되 주여 내까³³ 주의 강박한 줄 알았나이다 네가 심지 않은 곳을 자르고 흠어지지 않은 곳을 거두어들이라.

25 내가 무서워서 가서 너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노라 보라, 거기에 너의 것이 있느니라.

26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악랄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씨를 뿌리지 않을 때에 베고 흠지 않을 때에 거두는 줄을 너는 알았느냐?

27 그러니 당신은 내 돈을 돈 바꾸는 사람들에게 주었어야 했고, 내가 왔더라면 내 돈을 이자와 함께 가져갔을 것입니다.

28 그러므로 그에게서 백 무게를 취하여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 어라.

29 이는 가진 자에게는 그것이 주어지고 풍족함을 얻으리요, 가지지 못한 자에게는 그가 가진 것조차 빼앗기리라.

30 무익한 종을 어두운 데로 내쫓으면,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갚이 있으리라.

31 그러나 인자가 자기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는 그가 자기 영광의 자리에 앉을 것이며,

32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모일 것이다. 그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리하듯이 그들을 서로 분리할 것이며,

33 양은 그의 오른편에, 염소는 그의 왼편에 둘 것이다.

34 그때에 왕은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은 자들아 세상 시작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 하라 하리라.

35 나는 배가 고팠는데 주께서 나를 먹이셨습니다. 내가 목말랐는데, 주께서 내게 물을 주셨습니다. 저는 게스트였고, 당신은 저를 호스팅했습니다.

36 나는 벌거벗었으나 당신은 내게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나는 아팠고, 당신은 나를 방문하셨습니다. 나는 감옥에 갇혔고, 당신은 내게 오셨습니다.

37 그때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언제 너희가 굶주린 것을 보고 너희를 먹었느냐?

38 우리가 언제 너희를 손님으로 보고 거처를 주었으며 벌거벗고 너희를 입혔느냐?

39 우리가 언제 너희가 병들거나 감옥에 갇히는 것을 보고 너희에게 왔느냐?

40 이에 왕이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41 그 때에 그는 또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길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42 나는 배가 고팠는데 너는 나를 먹이지 않았다. 내가 목말랐는데 주께서 내게 물을 주지 않으셨나이다.

43 나는 손님이었는데, 당신은 나를 맞이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벌거벗었으나 너는 내게 옷을 입히지 않았다. 나는 병들어 감옥에 갇혔지만, 당신은 나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44 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언제 주께서 주리셨을 때나 목마르셨을 때나 손님으로 보시고 혈벗은 자나 병든 자나 사로잡힌 자로 보시고 주를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이다

45 그러고 나서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46 또 그들은 영원한 고통에 들어가거늘, 의인은 영생에 들어갈 것이니라.

26

1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2 "너희가 알거니와 두 일 후에 부활절이 있으요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지리라.

3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궁전에 함께 모여

4 그들이 어떻게 간계를 써서 예수를 사로잡아 죽였는지 의논했다.

5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참으로 백성 중에 소동이 일어날까 두려워하여 잔치에 참석하지 아니하소서."

6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7 한 여자가 귀한 물 한 잔을 가지고 그분에게 와서 그분이 식탁에 앉아 계실 때에 그분의 머리에 부었다.

8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분개하여 가로되 어찌하여 이런 허무하나

9 이 물은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10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그 여자를 돌보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녀는 나를 위해 좋은 일을 했습니다.

11 가난한 사람들은 늘 곁에 계시지만, 나는 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12 그 여자가 이 물을 내 몸에 부은 것은 나를 무덤에 준비시키기 위함이었다.

13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곳에는 또한 그 여자가 행한 일을 기억하여 말하리라.

14 열두 제자 중 한 사람이 가롯 유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15 "당신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나는 너에게 말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에게

은 삼십 닢을 주었다.

16 그때부터 그는 자기를 배반할 기회를 엿보았다.

17 단 떡을 먹은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가로되 유월절 양을 먹으려고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십니까

18 그가 말하길 성읍에 들어가 말하기를 주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되 나의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너희와 함께 부활절을 지키리라 하였노라

19 제자들이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여 유월절 양을 예비하니라

20 저녁이 되자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으셨다.

21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하리라.

22 이에 그들이 크게 슬퍼하니, 저마다 이르되 주여 내니이까 하더라

23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와 함께 대접에 손을 담근 자는 나를 배반하리라

24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지만, 인자가 배반당한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25 그러자 그분을 배반한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랍비냐 하니 그는 그에게 "당신이 그것을 말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26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감사 드리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라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27 또 잔을 가지사 감사 드리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 모두 이 잔을 마시라.

28 이것은 죄의 용서를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신약의 나의 피니라.

29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내가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너희와 함께 다시 그것을 마시는 날까지 이 포도나무의 식물을 더 이상 마시지 않겠다.

30 또 그녀가 찬양의 노래를 부르고 나서, 그들이 감람산으로 갔더라.

31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 때문에 노여워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 떼의 양들이 흩어지리라"고 기록 되었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2 그러나 내가 일어나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33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모든 사람이 당신을 향하여 노해할지라도 나는 결코 노하지 않을 것입니다.

34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까마귀 앞에서 네가 세 번이나 나를 부인하리라

35 베드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함께 죽어야 할지라도 당신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제자들도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36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겔세마네라는 뜰로 가서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리로 가서 기도할 때까지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니라 하시니

37 예수께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시고 슬퍼하며 떨기 시작하시니라.

38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영혼이 슬퍼하여 죽게 되었나이다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39 이에 예수께서 조금 가서서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오

40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이 잠든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와 함께 한 시간 동안 깨어 있을 수 없겠느냐

41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십시오. 영은 기꺼이 한다. 그러나 육신은 약하다.

42 두 번째로 가서 기도하여 가로되 나의 아버지여 내가 마시지 아니하면 이 잔이 나를 떠날 수 없사오니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시니라

43 그가 와서 보니 그 여자는 다시 잠들어 있었고, 그 눈은 잠으로 가득 찼더라.

44 또 그는 그들을 떠나고 다시 가서 세 번째로 기도하고 같은 말을 하였더라.

45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르시되 오, 너희는 잠만 자고 쉬겠느냐? 보라,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질 시간이 여기에 있느니라.

46 일어나 가자. 보라, 나를 배반하는 자가 여기 있구나!

47 또 그가 아직 말씀하고 있을 때에, 보라, 열두 제일 중 유다가 그와 함께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로부터 칼과 몽둥이를 가진 큰 무리가 왔더라.

48 배반자가 그들에게 표징을 만들어 이르되 내가 입맞추리니 그를 붙잡으라 하더라

49 그리고 그는 즉시 예수에게 와서 "랍비여, 만세를 부르소서" 하고 말하고 입을 맞추었다.

50 그러나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친구여, 당신이 어찌하여 왔느냐? 그러자 그들이 다가와서 예수에게 손을 얹고 붙잡았다.

51 또 보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 하나가 그 손을 내밀어 그의 검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귀 하나를 끊었더라.

52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의 검을 제자리에 놓으십시오! 이는 칼을 취하는 자는 칼로 망할 것임이니라.

53 아니면 내가 아버지께 열두 군단 이상의 천사를 보내 달라고 청할 수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54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성취될 것이었습니까? 그래서 작동해야 합니다.

55 그 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살인자처럼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나갔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앉아서 성전에서 가르쳤는데, 너희가 나를 붙잡지 않았다.

56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나니, 이는 선지자들의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자 제자들은 그분을 떠나 도망하였다.

57 그러나 예수를 사로잡은 자들이 그분을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던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데리고 갔다.

58 베드로가 멀리서 그를 따라 대제사장의 궁전에 이르러 그가 어디로 가는지 보려고 들어가서 하인들과 함께 앉았더라

59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온 회의가 예수를 죽이려고 거짓 증언을 하려고 하였으나

60 하나도 찾지 못하더라 그리고 많은 거짓 증인들이 나타났지만, 그들은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마침내 두 거짓 증인 이 36

나타나 말하기를 "그가 말하되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석 일 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62 대제사장이 일어나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너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 것에 너는 대답하지 못하느냐

63 그러나 예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살아 계신 하나님을 힘입어 너를 명하노니 네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나 우리를 알게 하노라

64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그렇게 말하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이렇게 되리니, 너희는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되리라.

65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말하되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였다 하더라 우리에게 어떤 간증이 더 필요한가? 보라, 이제 너희는 그의 신성 모독을 들었느니라.

66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는 죽어 마땅하니라

67 그런 다음 그들은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렸다. 68 어떤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치며 말하길 그리스도인이여 우리에게 예언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69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아 있을 때에 한 여종이 그에게 나아와 가로되 당신도 갈릴리 예수와 함께 있었

더라

70 그러나 그분은 그들 모두의 앞에서 부인하시며 "나는 당신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71 그분이 문을 나서시는데 다른 사람이 그분을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노라

72 그가 다시 부인하며 맹세하노라 "나는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73 잠시 후에 거기 서 있던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진실로 당신도 이 사람들 중 하나이니 이는 너의 언어가 너를 배반하거 늘

74 그리고 나서 그는 자신을 저주하며 "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맹세하기 시작하였다. 즉시 까마귀가 울부짖었다.

75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그에게 "까마귀 앞에서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나가서 몹시 울었다.

27

1 아침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하였다.

2 저희가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3 예수를 배반한 유다가 자기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을 보고 회개하고 다시 은 삼십 닢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지고 가서

4 "내가 무죄한 피를 배반하여 악을 행하였노라" 하고 말하였다.

5 그들이 말하길,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오?" 보세요! 그리고 그는 그 은들을 성전에 던지고 가서 목을 매어 자살했다.

6 대제사장들이 그 은화를 가지고 가로되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가슴에 넣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는 피의 돈이라 하더라

7 그러나 그들은 의논하여 순례자들의 장사지낼 도공의 자루를 샀다.

8 그러므로 이 밭은 오늘날까지 피의 밭이라고 불립니다.

9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한 바 "그들이 은 삼십 닢을 가져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산 팔 값으로 지불하고

10 그것을 토기장이의 밭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라"고 말한 것이 성취되느니라.

11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시매 총독이 여쭙어 가로되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물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네가 그렇게 말하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발할 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13 빌라도가 예수께 이르되 그들이 너를 얼마나 가대적으로 고발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14 그가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않자, 총독은 깜짝 놀랐다.

15 그러나 잔치에서 총독은 그들이 원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죄수를 풀어 주는 습관이 있었다.

16 그 때에 그에게는 한 죄수가 있었는데 그 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별하니 그의 이름은 바라바니더라.

17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너희를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 또는 예수, 누가 그리스도라고 합니까?

18 그는 그들이 질투심 때문에 자기를 넘겨 준 줄을 잘 알았느니라.

19 그가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당신은 이 의로운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나는 오늘 그 사람 때문에 꿈속에서 많은 고통을 받았나이다

20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백성을 설득하여 바라바를 청하고 예수를 죽이게 하였다.

21 총독이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원하겠느냐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서 놓아 주겠느냐 그들은 "바라바"라고 말했습니다.

22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은 모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했습니다.

23 총독이 "그가 무슨 악을 행하였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나 그들은 더욱 부르짖어 가로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24 그러나 빌라도는 자기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훨씬 더 큰 소동이 있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사람들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나는 이 의인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다.

25 그러자 모든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의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있기를 빕니다.

26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바라바를 주었으나 예수가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다.

27 총독의 군인들이 예수를 재판관으로 데리고 들어가 온 무리를 모아

28 옷을 벗기고 자주색 옷을 입히고

29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들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조롱하며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이시여, 당신을 찬양합니다!

30 그들이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잡아 그것으로 그의 머리를 쳤더라.

31 또 그들이 예수를 조롱한 후에 그의 옷을 입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데리고 왔더라.

32 그들이 길을 떠날 때에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만나니, 그를 위하여 그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더라.

33 그들이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34

그들이 그에게 쓸개즙 섞은 식초를 주어 마시게 하니 그가 맛을 보고 마시지 아니하더라

35 또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들은 선지자가 말한 "그들이 내 옷을 서로 나누었고 내 옷 위에 제비를 뽑았도다"한 것이 성취되게 하기 위하여 그의 옷을 나누어 그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느니라.

36 그들이 거기 앉아서 그분을 지키니라.

37 그들이 그의 머리 위에 그의 죽음의 원인을 정하니,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기록되었더라.

38 살인자 둘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있었더라.

39 그러나 지나가던 사람들은 그분을 모독하고 머리를 흔들 며

40 가로되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삼 일 동안에 건축하는 자들아, 너 자신을 구원하라 하더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십시오. 38

41 이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그분을 조롱하여 가로되

42 그분은 남을 도왔으나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시느니라 그분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면,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도록 합시다.

43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니 그가 그를 기뻐하면 건짐을 얻게 하리니 이는 그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하였음이니라

44 그와 같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살인자들도 그분을 모욕하였습니다.

45 그리고 제육시부터 제구시까지 온 땅에 흑암이 감돌았더라.

46 제구시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시되 엘리, 엘리, 라마 아사브다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47 거기 서 있던 어떤 자들이 이 말을 듣고 가로되 그가 엘리야를 부르시는구나 하더라

48 그러자 그 중 한 사람이 즉시 달려와 스펀지를 가져다가 식초를 채운 다음 갈대에 놓고 물을 주었더라.

49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멈추십시오, 엘리야가 와서 그를 도와줄지 보게하십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50 그러나 예수께서는 다시 부르짖으시고 돌아가셨다.

51 또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더라.
 52 또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산산조각이 나고, 무덤이 열리고, 잠자는 성도들의 많은 시체 위에서 서,
 53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오시고,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셨더라.
 54 백부장과 함께 있으며 예수를 지키던 사람들이 지진과 그 일을 보고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55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많은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를 따라 나와 그를 섬겼더라.
 56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마리아와 세베대의 자녀들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읍니다.
 57 저녁에 아리마대에서 한 부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요셉이요, 그는 역시 예수의 제자였다.
 58 그분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셨다. 그러자 빌라도는 그분을 그에게 넘겨주라고 명령했습니다.
 59 요셉은 그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아마포로 싸서
 60 자기 무덤에 뉘고, 그 무덤은 바위를 깎아 만든 다음, 큰 돌을 무덤 문 앞에서 굴러 놓고 떠났다.
 61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다.
 62 이튿날, 예비일이 끝나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모두 빌라도에게 와서
 가로되 주여 우리는 이 속이는 자가 아직 살아 있을 때에 '내가 삼일 후에 다시 살아나오리이다' 한 줄 알았나이다
 64 그러므로 그의 제자들이 와서 흠쳐 가며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니 나중 속임수가 처음 것보다 더 악하게 할지어다' 하지 않도록 무덤을 사흘째 되는 날까지 지키라고 명하라.
 65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에게는 수호자들이 있으니 가서 당신이 아는 대로 지키라 하시니라
 66 그들이 가서 수호자들과 함께 무덤을 지키고 그 돌을 봉하였다.

28

1 그러나 안식일이 끝나고 주일의 첫날이 밝아오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왔더라.
 2 또 보라, 큰 지진이 있었더라.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문에서 돌을 굴러 그 위에 앉았다.
 3 그의 형체는 번개 같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었더라.
 4 그러나 수호자들은 두려움으로 겁에 질려 마치 죽은 것처럼 되었다.
 5 천사가 대답하여 여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안다.
 6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으며,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와서 주님이 누워 계셨던 곳을 보십시오.
 7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그분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말하여라. 또 보라, 그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리라. 거기서 당신은 그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느니라.
 8 이에 그들이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서둘러 무덤으로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고하려고 달려갔더라. 그들이 제자들에게 전파하러 갔을 때에,
 9 보라,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시고 "만박!"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그분에게 와서 그분의 발을 붙잡고 그분 앞에 엎드렸다.
 10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그들이 갈릴리로 가고 있다고 말하여라. 거기서 그들은 나를 볼 것이다.

11 이에 그들이 갈 때에, 보라, 수호자들 중 몇 사람이 성으로 들어와서 대제사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고하니라.

12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와서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충분한 돈을 주고

13 가로되 가로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자는 동안에 그를 훔쳐 갔다 하라 하니라

14 총독과 함께 해야 한다면, 우리가 그를 간호하고 너를 안전하게 해 주겠다.

15 이에 그들은 그 돈을 가지고 그들이 배운 대로 행하였다. 그러한 말은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사이에서 흔한 말이 되었습니다.

16 그러나 열한 제자는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그들을 보내신 산으로 갔습니다.

17 그들이 예수를 보고 그 앞에 엎드렸으나 어떤 이들은 의심하였더라.

18 예수께서 그들에게 와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신 바 되었느니라 하시니라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마가복음에 따른 복음:

1 1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입니다.

2 선지자 이사야에 기록된 바와 같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너희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너희 길을 예비하리라."

3 "광야에서 설교자의 소리가 있나니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바르게 하라."

4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죄 사함을 위한 회개의 침례를 전파 하고 있었습니다.

5 유대 온 땅과 예루살렘 모든 백성이 예수에게로 나아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았더라.

6 요한은 낙타 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두르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며

7 복음을 전파하여 가로되 나 뒤에 나보다 강한 자가 오시는데 나는 그의 신발 끈을 굽혀 풀기에 부족하도다

8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든,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9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갈릴리로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더라.

10 그가 물에서 나오자마자 보니 하늘이 열리고 영이 비둘기 같이 자기 위에 임하더라.

11 또 하늘로부터 음성이 내려 이르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더라

12 이에 즉시 성령이 그를 광야로 쫓아내셨더라.

13 또 그가 사십 일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고 짐승들과 함께 있었으며, 천사들이 그를 보살폈더라.

14 요한이 감옥에 갇힌 후에 예수께서는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15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16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다니시다가 시몬과 그 형 안드레가 그물을 바다에 던지는 것을 보셨으니 이는 그들이 어부였음이라.

17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18 그들은 즉시 그물을 버리고 그분을 따랐다.

19 조금 더 멀리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 요한이 배의 그물을 수선하는 것을 보시고,

즉시 그들을 부르셨다.

20 그들이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 두고 그를 따랐다.

21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 그가 안식일에 즉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니라.

22 또 그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랐나니, 이는 그가 권세로 가르치셨고, 서기관들과 같이 가르치지 아니하였음이라.

23 그 즉시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24 외쳐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당신은 우리를 파괴하러 오셨습니다. 저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25 예수께서 그를 꾸짖으시며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하시니라

26 더러운 귀신이 그를 이리저리 찢고 크게 부르짖고 그에게서 나왔더라

27 이에 그들이 모두 놀라서 서로 질문하여 가로되 이것이 무엇이나 하고 말하되 이것이 무엇이나 권위 있는 새로운 교리! 그분은 또한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시며, 그들은 그분에게 순종합니다!

28 이에 그에 관한 소식이 즉시 갈릴리 온 땅에 울려 퍼졌다.

29 그들이 즉시 회당에서 나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갔더라.

30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그들이 즉시 시몬에게 그 여자에 대해 알렸다.

31 이에 그가 그에게 와서 그녀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시니, 열병이 그녀에게 떠나갔고, 그녀가 그들을 보살폈더라.

32 저녁에 해가 진 후에 그들이 모든 병든 자와 귀신들린 자를 그에게로 데리고 왔더라.

33 그러자 온 도시가 문 앞에 모여들었다.

34 또 그는 여러 가지 연약함을 진 많은 병자를 돕고, 많은 악한 귀신을 쫓아내며, 영들이 말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를 알았음이라.

35 그리고 동이 트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 나갔다. 그리고 그분은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36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있던 자들과 함께 서둘러 그를 뒤쫓았더라.

37 그들이 그를 발견하고 이르되 모두가 너를 찾고 있도다 하고 말하더라

38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도 거기서 전도할 수 있도록 다른 가장 가까운 도시들로 가자 이는 내가 온 이유가 그것이니라.

39 또 그가 와서 갈릴리 전역의 그들의 회당에서 전파하며 악령을 쫓아내셨더라.

40 한 나병 환자가 그에게 와서 간청하고 무릎을 꿇^ㄷ 가로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사 오니

41 이에 그가 불쌍히 여겨 손을 내밀어 그를 만져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를 행하리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더라

42 그러자 즉시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고 그는 깨끗해졌더라.

43 예수께서 그를 위협하시고 즉시 쫓아내시며

44 이르시되 너는 그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너의 정결을 위하여 모세가 그들에게 증언하라고 명령한 것을 바치라.

45 그러나 그가 나와서 시작하여 그것에 대해 많이 말하고 이야기를 알게 하니, 예수께서 다시는 공개적으로 도시에 들어갈 수 없었고, 외로운 곳에 계시니 그들이 사방에서 그분에게 왔다.

2

1 몇 일 후에 그가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니, 그가 집 안에 있음이 알려지니라.

2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서 방이 없고 문 밖에서도 방이 없었으므로 그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였다.

3 어떤 사람들이 통풍으로 병든 사람을 네 명씩 데리고 그분에게 왔다.

4 그들이 그를 백성 앞에 데려오지 못하자, 그가 있는 지붕을 열고 구멍을 내고, 통풍에 걸린 사람이 누워 있는 침대를 내려 놓았더라.

5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통풍으로 병든 사람에게 "내 아들이, 네 죄가 사해졌다.

6 거기에 앉아서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몇몇 서기관들이 있었더 라

7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말하느냐? 그는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8 예수께서 즉시 그 영으로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9 통풍으로 앓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침대에 누워 걸으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이 더 쉬울까요?

10 그러나 인자는 땅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리기 위하여 통풍으로 고생하는 사람에게 11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일어나 네 침대를 들고 집에 가라."

12 그가 일어나 자기 침대를 들고 즉시 그들 모두 앞에 나가니 그들이 모두 무서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전에 본 적이 없거늘 하니 라

13 예수께서 다시 바다로 가시매 모든 백성이 예수께 나아와 가르치 셧더라

14 그가 지나가다가 알패오의 아들 레위가 요금소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니라 그리고 그분은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15 또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자기 집 식탁에 앉아 계시는 동안에 많은 세금 징수원들과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았는데, 이는 그들이 많이 예수를 따랐 음이라.

16 바리새인 중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드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하니

17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강한 자가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고 병든 자가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18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던 때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나이까

19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는데 어찌 혼인 부부가 금식할 수 있겠느냐?"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는 한, 그들은 금식할 수 없다.⁴²

20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올 것이며, 그 날에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21 아무도 새 형겁으로 만든 형겁을 수선하지 않나니, 새 형겁은 낡은 것을 찢어 찢어 찢어짐이 더욱 심해진다.

22 아무도 젊은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못하니, 그렇지 않으면 젊은 포도주가 가죽 단을 찢고 포도주가 가죽 부대와 함께 망하리니, 그러나 어린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부어야 하느니라.

23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안식일에 그가 옥수수 밭을 거닐고 계셨는데, 그의 제자들이 가면서 옥수수 이삭을 따기 시작하였더라.

24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주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무엇을 하는 것이 옳지 아니한 것인지 보시옵소서

25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윗이 환난 중에 그와 그와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을 굶주리게 할 때에 어떻게 하였는지 너희가 읽어 못하였느냐?

26 대제사장 아비아달의 날에 그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제사장 외에는 아무에게도 먹을 수 없는 진설빵을 먹고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도 주었느냐?

27 이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정한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정한 것이 아니니라."

28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의 주이시다.

3

1 그리고 그분은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손이 오그라든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2 그들이 예수를 고소하려고 안식일에도 예수를 고쳐 주실까 보려고 기다렸더라.

3 또 손이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나오라 하시니라

4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할 것인가 악을 행할 것인가 생명을 보존할 것인가 아니면 죽일 것인가 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나 그들은 침묵을 지켰다.

5 그가 분노하여 그 여자를 둘러보시고, 그 강박한 마음을 보고 슬퍼하시며,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어 보시라 하시니라 그리고 그는 그것을 펴었다. 그리고 그의 손이 나왔다.

6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그를 죽일 것인가 즉시 헤롯의 부하들과 함께 그에 관하여 의논하였다.

7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가시니 많은 사람이 갈릴리와

8 예루살렘과 이두매와 요단 건너편에서 그분을 따랐으며, 두로와 시돈 주변에 사는 사람들과 그의 행사를 들은 큰 무리가 그분에게 왔다.

9 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백성을 위하여 그를 위하여 작은 배를 준비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를 압박하지 않게 하려 함 이니라.

10 이는 그가 그들 중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괴로움을 당하는 모든 자가 그를 공격하여 그를 건드리게 하려 하였음이라.

11 더러운 영들이 예수를 보고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하니

12 또 그가 그들을 가혹하게 위협하니, 그들이 그를 나타내지 못하게 하려 하였더라.

13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그들이 그에게로 갔더라.

14 또 열두 제자에게 명하여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그를 보내어 전파하게 하게 하며,

15 그들에게 악한 영을 쫓아내는 권세를 가지게 하였더라.

16 또 그가 열두 제자를 임명하시고,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더라.

17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 그들에게 보아너게스 이름을 주었으니 곧 우리의 자식이라 하니라.

18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매와 마태와 도마와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닛대오와 시몬 가나내오 와

19 그리고 그를 배반한 가롯 유다.

20 그가 집에 돌아오자, 백성이 다시 모여서 먹을 수 없었더라.

21 또 그의 백성이 이 말을 듣고, 그들이 나가서 그를 붙잡고자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말함이니라.

22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가로되 그는 바알세불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통치자로 말미암아 악령들을 쫓아내시는도다.

23 또 그분은 그들을 불러 모으시고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24 왕국이 스스로 분열되면, 그 왕국은 지탱할 수 없습니다.

25 집이 스스로 분열되면, 그 집은 지탱할 수 없느니라.

26 그러므로 사단이 자기 자신을 대적하여 일어나 자기 자신과 대립한다면, 그는 참을 수 없고 오히려 그와 함께 끝나게 됩니다.

27 먼저 힘센 사람을 결박하고 그 다음에 그의 집을 강탈하지 않고는 아무도 힘센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집안 물건을 빼앗을 수 없다.

28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자녀들은 모든 죄를, 곧 신성 모독하는 것만큼이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29 그러나 누구든지 성령을 훼방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를 범하는 자니라.

30 그들이 말하길 그는 더러운 귀신이 있도다 하더라

31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서 밖에 서서 그에게 보내고, 또 그를 불러오니라.

32 그러자 백성이 그분 주위에 앉았다. 그들이 예수께 이르되 보라 네 어머니와 네 형제들과 자매들이 밖에 있어 너를 찾고 있느니라

33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누구냐

34 이에 예수께서 자기 주위에 앉은 자들을 둘러보시고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니라.

35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내 형제 자매요 어머니입니다.

4 1 이에 그분은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에게 모여들었고, 그래서 그는 배에 올라 물 위에 앉아야 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바닷가의 땅에 섰다.

2 그분은 비유로 많은 것을 가르치셨고, 설교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3 "들으라! 보라,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더라.

4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씨를 뿌리고 있을 때에 어떤 것들이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그것들을 먹어 버렸더라.

5 어떤 것들은 흙이 많지 않은 바위 위에 떨어졌다가 곧 솟아났는데, 이는 그것들이 깊은 흙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6 해가 떠오를 때에 그것이 시들었고, 뿌리가 없었기 때문에 시들었다.

7 또 더러는 가시덤불 가운데 쓰러지매 가시덤불이 자라 그들을 질식시키고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

8 이에 어떤 이들은 좋은 땅에 엎드려 씨를 틔우고 자라서 열매를 맺고 삼십 배, 육십 배, 백 배의 결실을 맺었더라.

9 이에 그가 이르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10 또 그가 혼자 있을 때, 열두 제자를 포함하여 그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그에게 비유에 대해 물었다.

11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너희에게 주어졌으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비유로 이루어지느니라 44

12 이는 그들로 눈으로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는 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회개하고 용서받지 못할까 두려워 하노라

13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면 어찌 다른 모든 비유를 이해하겠느냐

14 씨 뿌리는 사람은 말씀을 심습니다.

15 그러나 이들은 길가에 있는 자들이니 말씀이 뿌려진 곳에, 그들이 그것을 들은 후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 속에 심어진 말씀을 제해 버리느니라.

16 이와 같이 반석에 씨 뿌려진 자들은 말씀을 듣고 곧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17 그러나 그들은 그 속에 뿌리가 없고 변덕스러우며,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면 즉시 화를 냅니다.

18 또 다른 이들은 가시덤불이 뿌려진 자들이니 그들이 말씀을 듣 거늘

19 그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모든 것의 욕망이 말씀을 꿰뚫고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20 그러나 그들은 좋은 땅에 씨를 뿌린 자들이니 그들이 말씀을 듣고 받아 삼십 배, 육십 배, 백 배의

열매를 맺느니라

21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촛불을 켜서 부셀 아래에 두느냐 아니면 벤치 밑에 두느냐 결코 그렇지 않고 촛대 위에 놓아야 합니다.

22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고, 드러나지 않을 비밀이 하나도 없느니라.

23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24 이에 그분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듣는 것을 보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너희가 측정하는 척도로 그들은 다시 너희를 측정할 것이며, 그들은 여전히 너희를 인정할 것이다.

25 이는 가진 자에게는 주어지고, 없는 자에게는 그가 가진 것도 취해질 것임이니라.

26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 고

27 잠자는 것과 같으며 밤낮으로 서 있나니 그 씨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싹이 나 자라 나느니라."

28 땅은 저절로 열매를 맺는데, 처음에는 줄기가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있는 밀이 있느니라.

29 그러나 그것이 열매를 맺자, 그는 즉시 낫을 보내니, 이는 추수가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30 이에 그가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누구와 비교하리요, 우리가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내겠느냐?

31 그것은 겨자씨 같으니 땅에 뿌려지면 땅에 있는 모든 씨 중에서 가장 작으니라

32 그리고 그것이 뿌려지면 싹을 틔우고 모든 떨기나무보다 더 크게 자라며, 큰 가지를 내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 아래 거할 수 있느니라.

33 그리고 그는 그러한 많은 비유를 통하여 그들이 들을 수 있는 대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였더라.

34 그분은 비유 없이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혼자 있을 때에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셨다.

35 그리고 그 날 저녁에 그분은 그들에게 "우리가 건너가자" 말씀하셨다.

36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하고 그가 배에 있는 그대로 데려갔으니 다른 배들도 그와 함께 있었더라.

37 이에 큰 회오리바람이 일어나고, 파도가 배를 치니, 배는 이미 가득 찼더라.

38 그는 배 뒤에서 베개를 베고 자고 있었다. 그들이 예수를 깨워 가로되 주여 우리가 멸망하기를 바라지 아니하시나이까

39 그가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며 바다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하고 잠잠하라 하니라 바람이 잦아들고 큰 침묵이 흘렀다.

45

40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그토록 무서워하느냐? 그런데 어찌 믿음이 없겠느냐?

41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냐 하더라 바람과 바다조차도 그분께 복종합니다!

5 1 그들이 바다 건너편 거라센 지방에 이르렀더라.

2 그가 배에서 나오자, 곧 더러운 귀신을 가진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그를 맞 으러 나왔는데, 3 그는 매장 동굴에 거하였다. 아무도 더 이상 그를 묶을 수 없었으며, 심지어 쇠사슬로도 묶을 수 없었다. 4 이는 그가 자주 족쇄와 쇠사슬에 묶여 쇠사슬을 끊고 족쇄를 갈았으므로 아무도 그를 제지할 수 없었음이라.

5 그는 밤낮으로 무덤 동굴과 산에서 항상 소리치며 돌로 자신을 쳤다.

6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외치 며

7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예수여 내게 무엇을 원하시나이까? 나는 하나님으로 너희에게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명령하노라!

8 그가 그에게 이르되 이 더러운 귀신들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9 그가 그에게 물으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그가 대답하길, "군단은 나의 이름이다. 우리는 많기 때문입니다.

10 그는 예수께 그들을 그 지역에서 쫓아내지 말아 달라고 간청했다.

11 산의 초장에 큰 돼지 떼가 있더라.

12 더러운 귀신들이 청하여 가로되 우리가 돼지에게로 가게 하되 하니

13 그리고 그분은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다.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서 돼지 속으로 들어가고, 소 떼가 비탈을 따라 바다로 던져졌는데, 그 수가 이천 명이나 되어 바다에 빠져 죽었다.

14 이에 그들의 목자들이 도망하여 이 사실을 도시와 시골에 선포하였더라. 그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려고 나가서

15 예수께 와서 보니, 더러운 귀신들 사로잡힌 그분이 옷을 입고 이성적으로 앉아 두려워하며 거기에 앉아 계셨다.

16 그것을 본 자들이 귀신들린 사람과 돼지에게 일어난 일을 그들에게 말하더라.

17 이에 그들이 시작하여 예수에게 자기들의 지역을 떠나게 하라고 청하였다.

18 그가 배에 들어갔을 때, 악귀 들린 사람은 자기와 함께 머물게 해 달라고 간청하였다.

19 예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네 집에 가서 여호와께서 네게 얼마나 선한 일을 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네게 얼마나 긍휼을 베푸셨는지 그들에게 고하라 하시니라

20 그가 가서 열 도시에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얼마나 큰 선을 행하셨는지를 선포하기 시작하니, 모두가 놀라더라.

21 예수께서 배를 타고 다시 건너가시매 많은 사람이 그분에게로 모여들니, 그분은 바닷가에 계셨더라.

22 그때에 회당의 통치자 중 한 사람인 야이로가 왔다. 그는 예수를 보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간절히 간청하며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와서 그녀에게 손을 얹어 그녀가 치유되고 살게 하십시오." 하고 말했다.

24 이에 그가 그와 함께 가니, 많은 백성이 그를 따랐고, 그들이 그를 재촉하였더라.

25 또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는 열두 년 동안 피를 흘렸으며,

26 많은 의사들로부터 많은 고통을 받았고, 그녀의 모든 재산을 그것을 위해 썼는데, 그것은 그녀에게 아무 소용이 없었고, 오히려 그녀에게 더 나빴다.

27 그 여자는 예수에 관해 듣고 뒤에서 사람들 가운데서 와서 그분의 옷을 만졌다.

28 그 여자는 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그의 옷을 만질 수만 있다면 나을 것이라" 하고 말하였다.

29 그러자 즉시 그 피의 샘이 말라 버렸고, 그 여자는 자기의 재앙이 나았음을 몸으로 느꼈더라.

30 예수께서는 즉시 자기에게서 힘이 나갔다는 것을 느끼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아서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31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너는 백성이 너를 다그치는 것을 보고 이르되 누가 나를 만졌느냐 하고 말하 되

32 그리고 그는 이 일을 행한 자를 찾아 둘러보았다.

33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었으므로 그분 앞에 와서 엎드려 모든 진실을 그에게 말하더라.

34 그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리고 너의 재앙에서 회복되리라 하더라

35 그분이 아직 말씀하고 있을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주를 귀찮게 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36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고 통치자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7 또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함께 가게 하지 못하였더라.
 38 그들이 족장의 집에 이르러 그가 그 소동을 보고 그들이 얼마나 울며 크게 울부짖었던가를 보니라.
 39 예수께서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아우성치며 울고 있느냐? 아이는 죽지 않았고 잠들어 있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비웃었다.
 40 그가 그들을 모두 쫓아내고,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아이가 누워 있는 곳으로 들어가,
 41 아이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탈리타 쿠미" 하니,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42 그러자 그 소녀는 즉시 일어나 걸어 다녔는데, 그때 열두 살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곧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공포에 질렸다.
 43 또 그는 그들에게 아무도 알지 못하게 엄하게 명령하고 그들에게 그녀에게 음식을 주라고 말하더라.

6

1 그분은 나가서서 자기 고향 도시로 가셨고, 제자들은 그분을 따랐다.
 2 안식일이 이르매 그분은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더라. 듣고 있던 군중은 놀라며 "이것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주어진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분의 손으로 행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
 3 그는 목수요, 마리아의 아들, 야고보, 요세, 유다,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들은 그분을 화나게 하였다.
 4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는 자기 나라에서나 그의 친척 사이에서나 자기 집에서보다 덜 존경받는 곳이 없느니라.
 5 그분은 거기서 한 가지 일도 하실 수 없었지만,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 고쳐 주셨다.
 6 또 그는 그들의 불신앙을 보고 놀랐다. 그는 마을을 두루 다니며 가르쳤다.
 7 열두 제자를 불러 일으켜 세우시고,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8 그들에게 지팡이와 떡과 자루와 허리띠에 찬 돈과
 9 그들의 발에 신는 신발 외에는 아무 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명하셨더라. 두 벌의 겹옷을 입지 말아야 한다.
 10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집에 들어가는 곳마다 갈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11 만일 너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들리지 않거든, 그곳으로 나가 그들에게 증언하는 것처럼 너희 발의 먼지를 떨쳐 버리라.
 12 그들이 나가서 회개하려 하여 전파하고,
 13 많은 악령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붓고, 그들을 고치니라.
 14 그리고 그것이 헤롯 왕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예수의 이름이 이제 알려졌음이라. 백성들이 말하길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그는 그러한 행위를 한다."
 15 이에 어떤 이들은 "그는 엘리야이다"라고 말했고, 또 어떤 이들은 "그는 선지자 중의 한 사람과 같은 예언자"라고 말하더라.
 16 헤롯은 이 말을 듣고 "내가 참수한 요한이 살아 났다"고 말했다.
 17 헤롯이 그 형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위하여 요한을 보내어 사로잡아 감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가 그를 자기 아내로 삼았음이라.
 18 요한이 헤롯에게 이르되 당신이 형제의 아내를 얻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하였더라

19 헤로디아가 그를 추격하여 죽이려 하였으나 할 수 없었더라
20 헤롯이 요한을 무서워한 것은 그가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인 줄 알고 그를 안전하게 지켰기 때문이라.
그가 그의 말을 듣고 심히 불안하였으나 그의 말을 듣기를 좋아하였더라.
21 그리고 어느 절호의 날이 이르렀는데, 헤롯이 그의 생일에 그의 위인들과 통치자들과 갈릴리에서 가장
고귀한 사람들에게 식사를 대접하였다.
22 그때에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 춤을 추며 헤롯과 식탁에 앉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였다. 그러자 왕은
소녀에게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청하라 내가 그것을 주겠다"고 말했다.
23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맹세하여 "네가 내게 무엇을 구하든지 내 왕국의 절반까지 네게 주겠다."
24 그 여자가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여쭙어 보리이까 하니 그녀는 "침례 요한의
머리"라고 말했습니다.
25 그 여자는 즉시 급히 왕에게 들어가 여쭙어 가로되 이 시간에 침례 요한의 머리를 접시에 담아 내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26 이에 왕은 몹시 슬퍼하였으나, 맹세와 식탁에 앉은 자들을 위하여 그들이 거짓 요청을 하게 하지
않으려 하였더라.
27 왕은 즉시 사형 집행인을 보내어 그의 머리를 이리로 가져오라고 명령했다. 그는 감옥에 가서 그의
목을 베고,
28 그의 머리를 접시에 담아 소녀에게 주었고,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29 이에 그의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와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무덤에 뉘었더라.
30 사도들이 예수와 함께 모여서 자기들이 행하고 가르친 모든 것을 그분께 고하니라.
31 이르시되 혼자 외로운 곳으로 가서 조금 쉬어라.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때때로
갔다. 그리고 그들은 먹을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
32 그들이 배를 타고 자기들끼리 외딴 곳으로 갔더라.
33 이에 백성이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것을 알아차리고, 모든 성읍에서 걸어서
그곳으로 달려와, 그들보다 앞서 갔더라.
34 예수께서 내려서 큰 백성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으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았음이라.
그리고 그는 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35 날이 거의 지나갔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가로되 여기는 황폐하고 날이 곧 지나갔나이다.
36 그들을 너희에게 남겨 두면, 그들이 농장과 마을⁸ 두루 다니며 자기들을 위하여 빵을 사든지
말지니라.
37 그러나 그분은 그들에게 대답하여 "당신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이르되 우리가 가서 은 이백 닢에 빵을 사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겠느냐 하리요
38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냐? 가서 보아라! 그들이 그것을 탐험하고 나서,
그들은 "다섯 마리와 두 마리의 물고기"라고 말하였다.
39 그리고 그는 그들 모두에게 탁자 옆의 푸른 풀밭에 누라고 명하였다.
40 그들이 백오십 명씩 무리를 지어 앉았더라.
41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그들이
그들 앞에 놓게 하시고 그 두 물고기를 모두에게 나누어 주셨더라.
42 이에 그들이 다 먹고 만족하였더라.
43 그들이 열두 광주리를 가득 담은 바위 위로 물고기를 들어 올렸더라.
44 그 떡을 먹은 자는 남자가 오천 명이었더라.
45 그리고 즉시 제자들에게 권하여 배에 타게 하시고, 자기보다 먼저 그들을 데리고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마침내 그는 백성을 떠나게 하셨다.

46 그리고 그분은 그들을 떠나시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더라.

47 저녁이 되었을 때에 배는 바다 한가운데에 있었고, 그는 육지에 혼자 있었더라.

48 또 그가 보니, 그들이 노를 젓는 것이 필요하니, 이는 바람이 그들을 거스르고 있음이라. 밤 사경쯤에 그는 그들에게 이르러 바다 위를 걸으며

49 그들을 지나치고자 하였다. 그가 바다 위를 걷는 것을 보고 귀신인 줄 알고 소리쳤더라.

50 그들이 모두 그를 보고 무서워하였더라. 그러나 그분은 즉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기뻐하라, 나는 있도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51 그가 그들과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잦아들었더라. 그리고 그들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공포에 질렸다.

52 이는 그들이 떡에 대하여 더욱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였으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음이라.

53 그들이 배를 타고 건너간 후에 갈릴리 해변에 이르러 상륙하였더라.

54 그들이 배에서 나오자, 백성은 즉시 그분을 알아보고,

55 온 땅을 두루 다니며 병자들을 침대에 눕히기 시작하니, 그들이 거기서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들었더라.

56 또 그가 마을과 도시와 농장에 들어가는 곳마다 그들이 병든 자를 장터에 눕히고 그의 옷자락까지도 만져 달라고 간청하니, 그를 만지는 자는 모두 나음을 받았더라.

7

1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몇몇 서기관들이 그분과 함께 모였다. 2 또 그들은 그분의 제자들 중 몇몇이 부정한 손으로, 즉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는 것을 보았다. 3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이 한 줌의 물로 손을 씻고 장로들의 율례를 지키지 않고는 먹지 않는다. 4 그들이 시장에서 나올 때에, 몸을 씻지 않는 한 먹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보관해야 한다고 가정한 다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마시는 그릇과 주전자와 주전자를 씻는 것입니다. 5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주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율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자기들의 떡을 먹나이까 6 이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에 대하여 매우 섬세하게 예언하였노라 기록된 바 이 백성이 그 입술로 나를 공경하도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 7 그들이 나를 헛되이 섬기는 것은 사람의 계명에 불과한 그러한 교리를 가르치기 때문이니라." 8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법규를 지키는도다. 9 이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매우 섬세하게 지키니, 이는 너희가 너희 규례를 지킬 수 있도록이라. 10 모세가 말하기를 "너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죽으리라."

11 그러나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너희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이르기를 '코르밥 즉 제물' 하면 내게서 오는 것이 될 것이다 하고 12 너는 이제부터 그로 하여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위하여 아무것도 하게 하지 못하게 할 것이요, 13 그러므로 너희가 세운 규례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할 것이며, 그와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14 이에 그가 백성을 다시 불러 그에게 이르시되, 나에게, 너희 모두에게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그것을 붙잡아라! 15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무 것도 그를 부정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사람을 부정하게 만든다. 16 17 그분이 백성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이 비유에 대해 물었다. 18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나? 외부에서 사람에게 들어오는 모든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19 그것은 그의 마음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의 배 속에 들어가 자연스런 과정을 통하여 나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분은 모든 음식이 순결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20 이에 그가 이르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을 부정하게 하느니라. 21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22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교활과 흥청거림과 시기와 신성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니라. 23 이 모든 악한 것은 안에서 나오고 사람을 부정하게 한다. 24 그가 일어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려 하였으나 숨어 있을 수 없었더라 25 그러나 즉시 한 여자가 그의 어린 딸이 더러운 귀신을 들렸다는 말을 듣고 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다. 26 그런데 시로페니키아에서 온 한 그리스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는 자기 딸에게서 악령을 쫓아내 달라고 그에게 간청하였다. 27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녀에게 "아이들을 먼저 먹이십시오. 아이들의 빵을 가져다가 개에게 던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28 그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 주여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식탁 아래의 개들은 아이들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29 이에 그가 그녀에게 이르되, "이 말을 위하여 가거라. 악령이 당신의 딸에게서 나갔습니다. 30 그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침대에 누워 있고 악령이 빠져 있었다. 31 또 그가 다시 티레 지방을 떠나 시돈을 거쳐 갈릴리 바다에 이르러 열 도시 지역 가운데 이르렀더라. 32 그들이 귀먹고 병어린 한 사람을 그분에게 데려와, 그에게 손을 얹어 달라고 간청하였더라. 33 그리고 그는 백성 가운데서 특별히 그를 택하여 그의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고 침을 그의 혀에 바르고 34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보고 탄식하며 그에게 말했다. 즉, '마음을 열라! 35 이에 즉시 그의 귀가 열리고, 그의 혀줄이 풀리며, 그가 옳게 말하였더라. 36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그가 금지하면 할수록 그들은 그것을 더 많이 퍼뜨렸다. 37 이에 그들이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워하며 이르되, "그는 모든 일을 선하게 행하셨도다. 그분은 귀먹은 자를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십니다.

8

1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2 "사람들이 나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들이 나와 함께 삼 일 동안 함께 있었으므로 먹을 것이 없습니다.

3 내가 그들을 음식 없이 집으로 돌려보내면, 그들은 길에서 기절할 것이니, 이는 어떤 이들은 멀리서 왔기 때문이다.

4 제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기 광야에서 어찌 저희를 떡으로 먹일 수 있겠나이까

5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하시니라 그들은 "일곱"이라고 대답했습니다.

6 그리고 그는 백성에게 땅에 엎드리라고 명령하였다. 또 떡 일곱 개를 가지사 감사 드리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어 그들이 바치게 하시니, 그들이 그것을 백성에게 바치니라.

7 그들에게 작은 물고기 몇 마리가 있었는데, 그는 그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그것들을 내놓으라고 명하였다.

8 그러나 그들이 먹고 만족하여 남은 조각 곧 일곱 광주리를 주웠다.

9 그 수가 사천 명쯤 되자, 그는 그들을 놓아 주었다.

10 그리고 그분은 즉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달마누타 지방에 이르렀다.

11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그분과 논쟁하기 시작하여, 그분을 유혹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표징을 청하였다.

12 이에 그가 그 영으로 탄식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는 아무 징조도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13 그리고 그분은 그들을 남겨 두고 다시 배에 들어가 건너가셨다.

14 그들이 떡을 가져가는 것을 잊어버렸고, 배 안에는 떡 한 덩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하였더라.

15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보고 조심하라.

16 이에 그들이 이리저리 생각하여 서로 말하되 이것이 우리에게 빵이 없는 사실이니라
 17 예수께서 이를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떡이 없는 것을 염려하느냐 너희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겠느냐? 너의 마음은 강퍽해졌느냐?
 18 너희에게 눈이 있어도 못하느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19 내가 오천 명 가운데서 떡 다섯 덩이를 떼었을 때, 너는 얼마나 많은 바구니에 빵 조각을 가득 담았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들은 "열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20 내가 사천 마리 중에 일곱 개를 떼었을 때에, 너는 몇 광주리에 가득 찬 덩어리를 주웠느냐? 그들은 "일곱"이라고 대답했습니다.
 21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22 그들이 벧새다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한 소경을 그분에게 데리고 와서 만져 달라고 간청하니라.
 23 또 그분은 그 소경의 손을 잡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고, 그의 눈에 침을 바르시고, 그 손을 그에게 얹으시고, 그에게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고 물었다.
 24 그가 위를 쳐다보며 말하기를, "나는 사람들이 마치 나무를 보는 것 같이 걸어 다니는 것을 보노라.
 25 그런 다음 그분은 다시 자기 눈에 손을 얹으셨다. 그런 다음 그는 분명히 보았고, 다시 바로잡혔으며,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었다.
 26 그가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며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하였다.
 27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근처 마을로 가시니라 그분은 가시길에 제자들에게 여쭙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28 그들이 대답하되 그들은 당신이 세례 요한이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말하며,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선지자 중의 한 사람이라고 말하더라 하더라
 29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30 또 그가 그들을 위협하니, 그들이 그에 대하여 말하지 못하게 하였더라.
 31 이에 그가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사,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배척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세 일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32 그리고 그는 그것에 대해 거리낌 없이 공개적으로 말하였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를 옆으로 데리고 가서 저항하기 시작하였다.
 33 예수께서 돌이켜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베드로를⁵⁴ 꾸짖으시며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서 떠나가라 너는 신성이 무엇이나 아니요 무엇이냐 하시니라
 34 예수께서 백성과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려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시니라
 35 누구든지 제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고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그것을 지킬 것입니다.
 36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37 사람이 자기 영혼을 구속하기 위하여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38 그러나 누구든지 이 배교하고 죄 많은 세대 가운데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 중에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9

1 이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자들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기까지 사망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2 엿새 일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니라 3 그의 옷이 새하얗게

되고 지구상의 어떤 관람석도 그들을 그렇게 하얗게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4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니,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5 베드로가 시작하여 예수께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음이 유익하니이다 우리가 세 성막을 지을 것이니 하나는 너희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라. 6 그러나 그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다. 그들이 당황하였기 때문이다. 7 그러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더라.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와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당신은 그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8 그런데 갑자기 그들이 주위를 둘러보니, 그들과 함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오직 예수만 보였다. 9 그러나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그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다. 10 그들이 약속을 지키며 서로 묻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이나 11 그들이 여쭈어 가로되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더라 하더라 12 그러나 그분은 그들에게 "예,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다시 바로잡을 것입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에 대하여 어찌하여 기록되었느냐? 그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받으리라? 13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니, 그에 관하여 기록된 바와 같이, 그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그에게 행하였느니라. 14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그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논쟁하더라. 15 이에 모든 백성이 그를 보자 무서워하며 달려가 그를 맞이하더라. 16 그리고 그분은 그들에게 "어찌하여 너희가 그들과 다투고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17 백성 중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이여 제가 제 아들을 주께 데리고 왔사오니 그는 말 없는 심령을 가졌나이다 18 그가 그를 붙잡는 곳에서는 그를 찢어 버리고, 그는 거품을 일으키고 이를 갈며 굳어진다. 내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그분을 쫓아냈지만, 그들은 쫓아낼 수 없었습니다. 19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지 아니하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이까?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20 그들이 그분을 그분에게 데리고 오셨다. 그리고 영은 그를 보자마자 그를 찢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땅에 엎드려 구르고 거품을 일으켰다. 21 예수께서 아버지께 여쭈어 가라사대 그에게 이런 일이 있을 때로부터 어느 때까지 되었느냐 그는 "어렸을 때부터"라고 말했다. 22 또 그가 죽이려고 여러 번 그를 불과 물에 던졌더라. 그러나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도와주십시오! 23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떻게 '네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냐?' 하고 대답하되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능치 못하느니라. 24 즉시 아이의 아버지가 부르짖어 말했다. 나의 불신을 도와주소서! 25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며 "말 못하고 귀먹은 귀신이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리에서 나오라 다시는 그리로 들어가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다. 26 그러자 그는 소리쳐 그를 끌어 죽이고 나갔다. 그러자 그 소년은 마치 죽은 것처럼 되었으므로, 무리는 "그가 죽었다"고 말하였다. 27 그러나 예수께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시니, 그가 일어섰다. 28 예수께서 집에 돌아오시매 제자들이 홀로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우리가 그를 쫓아내지 못하였느냐 29 이에 그가 이르되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아무 것도 나갈 수 없느니라." 30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떠나 갈릴리를 지나갔더라. 그리고 그는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았다. 31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사람의 손에 넘겨지고 그들이 그를 죽이리라. 그가 죽으면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32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두려워하여 그분께 묻지 못하였다. 33 그들이 가버나움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그가 집에 있을 때, 그는 그들에게 "너희는 가는 길에 서로 무엇을 협상했는가?" 하고 물었다. 34 그러나 그들은 잠잠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느 것이 가장 큰 것이 될 것인가를 가는 길에서 서로 협상했기 때문이다. 35 이에 예수께서 앉으사 열두 제자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먼저 되고자 하면 모든 종 중에서 마지막이 되리라 하시니라 36 또 한 아이를 취하여 그들 가운데 두시고 껴안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37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나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38 요한이 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악령을 쫓아내는 이를 보았거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도다. 그가 우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을 금하였노라. 39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그를 금하지 말지니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자는 아무도 곧 나에 대하여 나쁘게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40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41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물 한 잔을 주는 사람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상을 받지 아니하리라. 42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면, 연자 밧돌을 그 목에 달아 바다에 던지는 것이 그에게 나을 것이다. 43 그러나 네 손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 버리십시오. 그대가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영원한 불에 가는 것보다 절름발이가 되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나으니, 44 . 45 당신의 발이 당신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을 잘라 버리십시오. 차라리 두 발이 없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절름발이로 인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습니다. 47 네 눈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던져 버리십시오. 너희가 한 눈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너희가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니, 48 거기서 그 벌레도 죽지 않고 그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49 각 사람은 불로 소금을 짜야 한다. 50 소금은 좋지만 소금이 약해지면 무엇으로 맛을 낼 것인가? 너희와 함께 소금을 먹고 서로 화평하라.

10 1 그리고 그가 떠나 유대 지방과 요단 건너편에 이르렀더라. 그러자 백성이 다시 무리를 지어 그분에게 달려왔고, 그분은 습관대로 그들을 다시 가르치셨다. 2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아와 남자가 자기 아내와 이혼할 수 있는지 묻고 그를 심문하더라 3 그가 대답하여 가로되 모세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였느냐 4 그들이 말하길, "모세가 그에게 이혼 증서를 쓰게 하고 그와 이혼하게 하였더라." 5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 계명을 너희에게 기록하셨느니라. 6 그러나 창조 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7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8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한 몸이 되었습니다. 9 하느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은 아무도 갈라놓지 못하게 하십시오. 10 그러자 그분의 제자들이 집에서 그분에게 다시 그 일에 관해 물었다. 11 이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누구든지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그녀에게 간음하는 것이라. 12 여자가 자기 남편과 이혼하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면, 간음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다 13 그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께 오니 이는 그가 그들을 만지시려 하심이라. 그러나 제자들은 그들을 꾸짖었다. 14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분개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린이들을 내게 오게 하고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왕국이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15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16 이에 그가 그녀를 껴안고 그에게 손을 얹고 축복하였더라. 17 예수께서 길을 가시는데 그 중 하나가 그에게 달려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여쭙어 가로되 좋으신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18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어찌하여 나를 인정하십니까?" 하고 말씀하셨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습니다. 19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말지니라. 너는 아무도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합니다." 20 이에 그가 그에게 이르되, "선생이여, 나는 이 모든 것을 내 어려서부터 간직하였나이다. 21 예수께서 그를 바라보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한 가지 부족함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가서 네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와서 나를 따르라. 22 그러나 그는 그 말씀을 불쾌하게 여기고 슬퍼하며 떠났다. 그는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다. 23 예수께서 주위를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어찌 그리 어찌 그리 24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에 놀랐다. 그러나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랑하는 자녀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25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26 그들이 더욱 놀라서 서로 말하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더라 27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능치 못하되 하나님으로서는 능치 못하리라.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8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라,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29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밭을 버리는 자가 없나, 30 박해 가운데서 집과 형제나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밭을 백 배나 받지 아니하는 자가 없느니라. 31 그러나 많은 사람이 마지막이 될 것이요, 처음 되는 사람과 먼저 된 사람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 32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 앞으로 가시니, 그들이 놀라더라. 그러나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두려워했다. 또 열두 제자를 데리고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들에게 말하기 시작하셨다: 33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라, 인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요, 그들이 그를 사형 선고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라. 34 그들이 그분을 조롱하고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며, 그분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35 세베대의 아들이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선생님, 우리가 우리에게 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36 그분은 그들에게 "너희는 내가 너희를 위해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느냐?" 37 그들이 예수께 이르되 우리에게 하나를 주사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의 왼편에 당신의 영광 중에 앉게 하소서 38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시니라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세례를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39 그들이 예수께 이르되 예,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면 나와 같은 세례를 받으리라. 40 그러나 내 오른편과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주려고 예비한 것인가 하는 것이다. 41 열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하더라. 42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 방백들이 자기 백성을 대적하며 그들의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폭력을 행하느니라. 43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종이 되십시오. 44 그리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45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구속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려 함이니라. 예리코의 소경 46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에, 한 눈먼 사람이 앉아 있었다. 디매오의 아들 바디매오가 길가에 있으면서 구걸하⁶⁴었습니다. 47 그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부르짖어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라 48 많은 사람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니라 그러나 그는 더욱 부르짖었습니다. 49 예수께서 가만히 서서 이르시되 그를 불러라 하시니라 그들이 그 소경을 불러 가로되 기뻐하라 일어나라 하니라 그분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50 그는 겹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께 나아왔다. 51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그 소경은 그에게 "랍부니여, 내가 다시 볼 수 있도록"이라고 말했습니다. 52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가십시오,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낫게 했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즉시 그는 다시 볼 수 있었고, 길을 따라 그를 따라갔다.

11

1 그들이 예루살렘 근처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러 올리브 산에 이르러 두 사람을 보내어 2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앞에 있는 마을로 가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당신이 들어가자마자, 당신은 아무도 전에 앉아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 것을 볼 것입니다. 풀어서 이리로 가져오세요! 3 누가 너에게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고 말하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필요로 하시고 즉시 돌려 보내십니다"라고 말하십시오. 4 그들이 가서 길 바깥쪽 문에 묶여 있는 나귀 새끼를

발견하고 풀어 주었더라 5 거기에서 있던 어떤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6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에게 말했고, 그들은 그것을 허락했다. 7 그들이 나귀 새끼를 예수에게 가져와서 그 위에 옷을 입히니 그가 그 위에 앉으셨더라 8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옷을 길에 펼쳐 놓았고, 또 어떤 이들은 들에서 잘라 낸 푸른 가지를 펼쳐 놓았다. 9 이에 앞서 가고 따르던 자들이 외쳐 가로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찬송하리로다! 10 장차 올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에 복이 있을지로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11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사 성전에 들어가사 주위의 모든 것을 살펴보시고 저녁에 열두 제자와 함께 베다니로 가시니라 12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를 떠날 때에 그는 배가 고팠더라. 13 또 그가 멀리서 잎이 있는 무화과나무를 보았더라. 그런 다음 그는 그 위에서 무언가를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올라갔습니다. 그가 그곳에 이르렀을 때, 그는 나뭇잎 외에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때는 무화과를 먹을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1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영원토록 네 열매를 다시는 아무도 먹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분의 제자들이 이 말을 들었다. 15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예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파는 자와 사는 자를 쫓아내기 시작하셨다. 그는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장사하는 사람들의 의자를 16세에 밀었고, 아무도 성전 안으로 물건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17 이에 그가 가르치며 이르시되, "내 집은 모든 민족을 위한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기록되지 않았느냐? 그러나 당신은 그곳으로 강도의 소굴을 만드셨습니다. 18 이에 그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앞에 나아오니, 그들이 그를 어떻게 죽일까 구하였더라. 그들이 그분을 무서워하였음이라. 모든 백성이 그분의 가르침에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19 저녁이 되어 그들이 도시를 떠났다. 20 그들이 아침에 그 무화과나무 곁을 지나가니, 그 나무는 뿌리까지 말라 죽었더라. 21 베드로가 이를 생각하고 여짜오되 랍비여 보라 주께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시들었나이다 22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 23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산에게 '일어나 바다에 던져라'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말하노라. 그는 마음으로 의심하지 않았고, 그가 말하는 것이 자신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다. 24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기도로 청하면 받을 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25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누구에게 원망할 것이 있거든, 그들을 용서하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범법을 용서하시게 하려 함이니라. 26 27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분이 성전을 거닐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²⁸이 그분에게 와서 가로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십니까 하고 말하더라 아니면 누가 당신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느냐? 29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한 마디 묻겠다. 내게 대답하라, 그러면 내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해 주겠다. 30 요한의 침례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온 것입니까? 대답하세요! 31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 여자가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면 그가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가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하리라 하리라 32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이 사람에게서 났다고 말하겠느냐? - 그런 다음 그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요한이 정말로 선지자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33 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노라 하시니라

12

- 1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심고 그 둘레에 울타리를 치고 포도주 틀을 파고 망대를 세우며 포도나무 농사꾼들에게 임대하여 주고 그 지방을 나갔더라
- 2 또 때가 이르매 그는 포도나무 재배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포도원 열매 중 얼마를 포도나무 재배자들에게서 취하게 하였더라.
- 3 그러나 그들은 그를 붙잡아 때리고 빈 채로 내버려 두었다.

4 그가 다시 다른 종을 그들에게 보내자, 그들이 그의 머리를 치며 그를 모욕했다.

5 그가 다시 다른 사람을 보내자, 그들이 그를 죽였다. 그리고 많은 다른 사람들; 그들은 어떤 사람은 쳄고, 어떤 사람은 죽였다.

6 그리고 그는 사랑하는 아들 하나를 더 두었는데, 마침내 그들을 그들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그들이 내 아들을 두려워할 것이다 하였다.

7 포도원 장사꾼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이 기업이니 와서 우리가 그를 죽이자 그리하면 그 기업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더라

8 그들이 그를 잡아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내쫓았더라.

9 포도원의 주인은 이제 무슨 일을 할 것입니까? 그가 와서 포도나무를 기르는 자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10 성경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잇돌이 되었다"는 글을 읽지 못하였느냐?

11 이 일은 주께로부터 이루어졌으니, 이는 우리 눈 앞에 기적이다."

12 또 그들이 어떻게 그를 붙잡았는지 보려고 애썼으나, 그가 이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들이 이해하였으므로 그들은 백성을 두려워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은 그분을 떠나 가버렸다.

13 그들이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부하들 중 몇 사람을 그에게 보내어 그의 말을 붙잡으려고 하였더라.

14 이에 그들이 나아와 예수께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당신이 진실하시심을 우리가 알고 아무에게도 묻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는 당신이 사람의 명성을 존중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하나님의 도를 바르게 가르치심이니이다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옳은가, 그렇지 않은가? 주어야 할까요, 안 주어야 할까요?

15 그러나 그분은 그들의 위선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를 만나기 위해 동전을 가져 오십시오!

16 그들이 한 마리를 가져왔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그 형상과 비문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분에게 "카이사르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7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가이사라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고 그들은 그분을 보고 놀랐다.

18 이에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이 예수에게 나아와 여쭙어 가로되 19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편지하여 가로되 사람의 형제가 죽어 아내를 버리고 자녀가 없거든 그 형제는 아내를 취하고 그 형제의 자손을 일으키라 하였느니라

20 그런데 일곱 형제가 있었다. 첫 번째는 아내를 취했다. 그는 죽었고 자녀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21 둘째가 그들을 취하고 자식을 남기지 않고 죽었더라.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22 그리고 일곱 사람은 모두 자녀를 남기지 않았다. 결국, 그 여자도 죽고 말았습니다.

23 이제 부활 때에 그들이 부활될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일곱 명 모두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24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냐 하고 대답하였다. 그대는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다.

25 그들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 그들은 장가가거나 결혼하지 않을 것이며, 하늘의 천사들과 같이 될 것이다.

26 그러나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하기 위하여 모세의 책에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시기를 어떻게 하셨는지 읽지 못하였느냐?

27 하느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사람들의 하느님이십니다. 당신은 매우 틀렸습니다.

28 이에 서기관 중 하나가 그에게 왔는데, 그가 그들이 서로 논쟁할 때 그들의 말을 듣고 있었더라. 그가 그들에게 훌륭하게 대답한 것을 보시고, "모든 것 위에 가장 고귀한 계명이 무엇이나?" 하고 물으셨다.

29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홀로 주이시라

30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

31 다른 하나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습니다.

32 이에 서기관이 그에게 이르되, "선생님, 당신이 진실로 옳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단지 한 분이시며, 그분 외에는 다른 누구도 아닙니다.

33 그리고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를 사랑하며,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 제물보다 더하니라.

34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가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너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멀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아무도 감히 그에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35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이르시되 서기관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하시니라 하시니라

36 다윗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다.

37 다윗은 그를 자기 주인이라고 부른다. 그는 어디에서 그의 아들은 왔습니까? 그리고 모든 백성이 그의 말을 듣기 좋아했다.

38 또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며 이르시되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그는 긴 옷을 입고 다니며 장터에서 서로 인사하기를 좋아하며

39 회당의 머리맡과 잔칫집의 식탁에 앉기를 좋아 하시니라.

40 그들은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겉모습으로 긴 기도를 드린다. 그들은 더욱 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41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상자 맞은편에 앉으사 사람들이 어떻게 그 상자에 돈을 넣는지를 보셨더라. 그리고 많은 부자들이 많은 돈을 넣었습니다.

42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두 렵돈을 넣었으니 이것으로 방귀를 만들더라.

43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하나님의 가슴에 모든 사람이 넣은 것보다 더 많이 넣었느니라.

44 그들은 모두 자기의 풍족함을 넣었지만, 이 사람은 가난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 곧 자기의 모든 소유를 넣었습니다.

57

13

1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하나가 예수께 이르되 선생이여 무슨 돌과 무슨 건물들이 있는지 보소서! 2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겨지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3 예수께서 성전 맞은편 감람산에 앉으시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홀로 여쭙어 가로되 4 우리에게 말해 보아라 언제 이 일이 일하리이까?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 무슨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5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다' 하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7 그러나 전쟁과 전쟁에 관한 소문에 대해 듣거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끝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8 이는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날 것임이니라. 그리고 지진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통의 시작이다. 9 그러나 너희는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심판에 넘겨 줄 것이요, 너희가 회당에서 매를 맞을 것이요, 방백들과 왕들 앞에서 너희가 나를 위하여 방백들과 왕들 앞에 끌려갈 것임이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될 것이니라. 10 그리고 복음은 먼저 모든 나라에 전파되어야

합니다. 11 그러니 그들이 너를 데리고 가서 넘겨주거든, 네가 무슨 말을 할 것인지에 대해 먼저 걱정하지 마라. 그러나 그 시간에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 말해 준다. 말씀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12 형제는 형제를 죽음에, 아버지를 아들에게 넘겨줄 것이며, 자녀들은 부모를 거역하고 그들을 죽게 할 것이다. 13 너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14 그러나 황폐의 가증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될 곳에서 있는 것을 보거든, 그것을 읽는 사람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유대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산으로 도망하여라. 15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 집에서 물건을 가져오려고 내려오거나 들어가서는 안 된다. 16 누구든지 밭에 있는 자는 자기 겹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지어다. 17 그러나 그 때에 임신하여 수유하는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18 그러나 그것이 겨울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19 이 날에는 창조 이래 일찍이 없었던 환난이 있을 것이니, 곧 하나님이 창조하신 환난이요, 다시는 없을 것이니라. 20 또 주께서 이 날들을 단축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아무도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나 그분이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분은 이 날들을 단축하셨다. 21 그 때에 누가 너희에게 '보라, 여기 그리스도가 계시다' 말한다면. 보라, 그가 거기 있다!, 그것을 믿지 말라. 22 이는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표적과 기사를 보일 것임이니, 할 수만 있다면 택함 받은 자들까지도 미혹하려 할 것임이니라. 23 그러나 너희는 조심하십시오. 전에도 다 말했잖아! 24 그러나 이 환난 후에는 해와 달이 빛을 잃고 25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릴 것입니다. 26 그러고 나서 그들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권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27 또 그 때에 그는 그의 천사들을 보내시며,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택하신 자들을 함께 모으실 것이니라. 28 그러나 무화과나무에서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싹을 틔우고 잎이 나올 때에는 여름이 가까웠음을 너희가 알거든 알까 하느니라 29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그것들이 문 가까이에 있는 줄을 알아라. 30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31 하늘과 땅이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내 말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32 그러나 그 날과 시간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알도다. 33 조심하고 깨어 있으십시오. 너희는 때가 언제 왔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34 한 사람이 그 지방을 여행하다가 집을 떠나 자기 종들과 각 사람에게 권세를 주고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고 명령한 것 같으니 35 그러니 이제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집의 주인이 언제 오는지, 저녁이나 한밤중이나, 새벽이나 아침에 언제 오는지 알지 못하니, 36 그가 갑자기 올 때에 너희가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37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노니, 깨어 있으라.

58

14 1 그리고 부활절과 무교절의 날들까지 아직 이들이 있었더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간계를 써서 그분을 붙잡아 죽일 방법을 찾았는가? 문자 그대로: "Passa". 루터는 신약성경에서 "유월절"을 "부활절"로 번역했습니다. 2 그들이 말하기를 "백성 중에 반역이 일어날까 두려워 절기에는 지키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베다니에서 기름 부음 3 예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시고 식탁에 앉아 있을 때에 한 여인이 순결하고 귀한 향유 한 잔을 가지고 와서 그 잔을 깨뜨려 그의 머리에 부었다. 4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분개하여 서로 말하기를 "이 기름 부음의 낭비가 무엇이냐?" 하고 말하였다. 5 이 기름은 은 삼백 닢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다. 6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가게 하십시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녀를 괴롭히는 거죠? 그녀는 나를 위해 좋은 일을 했습니다. 7 가난한 사람들이 항상 곁에 있으니, 원한다면 그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저와 함께 있는 것은 아닙니다. 8 그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그녀는 내 장례를 위해 미리 내 몸에 기름을 부었다. 9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곳에는 또한 그 여자가 지금 행한 일을 기억하여 말하리라. 10 열두 제자 중의 하나인 가롯 유다가 자기를 배반하여 그들에게 넘기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갔더라. 11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그분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그는 좋은 기회에 그를 배신할 방법을 찾았다. 12 무교절의 첫날에 유월절 어린양이 바쳐졌을 때에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당신이 먹도록 유월절 어린양을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13 예수께서 제자 둘을 보내어 이르시되 성읍으로 들어가라 너는 물 항아리를 들고 있는 사람을 만나리라. 14 그분을 따라가라, 그리고 그가 어디로 들어가든지 그 집의 주인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당신에게 전갈을 보내셨다.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양을 먹을 수 있는 방이 어디 있느냐?' 하고 말하십시오. 15 그가 너에게 큰 홀을 보여 주리니, 그곳에는 완충물이 있고 준비되어 있다.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16 제자들이 가서 성으로 들어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곳을 발견하고 유월절 양을 예비하였더라 17 저녁에 그분은 열두 제자와 함께 오셨다. 18 그들이 식탁에 앉아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나와 함께 먹는 사람이 나를 버릴 것이라 19 이에 그들이 슬퍼하며 한 사람씩 예수께 이르되 내가 그냐 하니 20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와 함께 대접에 담글 열두 사람 중의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21 인자가 그에 대하여 기록된 바와 같이 떠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인자가 배반당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같은 사람에게는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22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감사드리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23 이에 그가 잔을 가지사 감사하고 그들에게 주었더라. 그리고 그들은 모두 그것을 마셨다. 24 이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신약 성경의 피니라. 25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다시 마시는 날까지 포도나무의 자란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 26 그들이 찬양의 노래를 부르고 나서 감람산으로 갔더라. 27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내게 걸려 넘어지리라.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고 기록되었음이니라. 28 그러나 내가 살아날 때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29 베드로가 가로되 그들이 다 주께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하지 않겠나이다 30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이 밤에 까마귀가 두 번 울리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31 그러나 그는 더 나아가 "내가 당신과 함께 죽을지라도 당신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32 그들이 겻세마네라는 뜰에 이르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때까지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니라 33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고 떨기 시작하시니, 34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영혼이 슬퍼하여 죽었도다. 여기 머물면서 지켜보세요! 35 그리고 그는 조금 더 나아가 땅에 엎드려 할 수만 있다면 그 시간이 지나가게 해 달라고 기도하며 36 이르시되 아바, 나의 아버지여 주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가져가라.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것! 37 예수께서 와서 그 여자가 잠든⁵⁹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시몬아 네가 잠들었느냐 한 시간 동안 볼 수 없습니까? 38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십시오. 영은 기꺼이 한다. 그러나 육신은 약하다. 39 그리고 그분은 다시 가서 기도하고 같은 말씀을 하시고, 40 다시 오셔서 그들이 다시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셨다. 그들의 눈은 잠으로 가득 찼고, 그들은 그분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41 또 세 번째로 오셔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 너희가 이제 자러 쉬겠느냐?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때가 왔다. 보라,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졌도다. 42 일어나 가자. 보라, 나를 배반하는 자가 가까이 있느니라. 43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시자마자 열두 제자 중 한 사람 중 하나인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로 이루어진 큰 무리와 함께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그에게 왔더라. 44 배반자가 그들에게 표징을 보이며 이르되 내가 입맞추리니 그가 그라. 그것을 붙잡아 안전하게 데리고 나갑니다. 45 그분이 오시고 즉시 그분에게 오셔서 이르시되 랍비여! 그리고 그에게 키스했다. 46 그러나 그들은 그분에게 손을 얹고 그분을 붙잡았다. 47 그런데 곁에 서 있던 사람 중 하나가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한쪽 귀를 잘라 버렸다. 48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살인자를 치러 가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나갔도다 49 나는 매일 성전에서 가르치며 여러분과 함께 있었지만, 여러분은 나를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취되어야 합니다! 50

그러자 그들이 모두 그분을 버리고 도망하였다. 51 또 한 젊은이가 맨살에 아마포를 입고 그를 따르고 있었다. 그들은 그분을 붙잡았다. 52 그러나 그는 아마포를 벗어 버리고 벌거벗은 채로 도망하였다. 53 그들이 예수를 대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니라. 그러자 모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함께 모였다. 54 베드로가 멀리서 그를 따라 대제사장의 궁전으로 들어가 종들과 함께 앉아 불로 몸을 데우니라. 55 대제사장들과 온 산헤드린이 그를 죽이려고 예수에게 다시 증거를 구하였으나 아무 것도 얻지 못하였더라. 56 많은 사람이 그분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증언은 일치하지 않았다. 57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그를 거슬러 거짓 증언하여 가로되 58 우리가 그가 말하기를 내가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고 삼일 후에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지으리라 하더라 59 그러나 그들의 증언은 그렇다 하더라도 일치하지 않았읍니다. 60 대제사장이 일어나 가운데 서서 예수께 여쭙어 가로되 이 사람들이 너희를 거슬러 증언하는 것에 대답하지 못하느냐 하니 61 그러나 그는 침묵하고 침묵하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제사장이 다시 묻어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냐 세존이의 아들이냐 62 그러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라. 너는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63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어찌하여 우리에게 더 많은 증인이 필요하오? 64 너희는 신성 모독을 들었느니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그들 모두는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 65 그러자 어떤 사람들이 그분에게 침 뱉고, 그분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그분에게 "우리에게 예언하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하인들이 그의 뺨을 쳤다. 66 베드로가 뜰에 내려와 있더라. 그때 대제사장의 하녀 하나가 왔다. 67 베드로가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을 보고 그를 바라보며 가로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더라 68 그러나 그는 부인하며 "나는 당신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노라"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그는 뜰로 나갔다. 69 그러자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기를 "이 사람도 그들 중 한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70 그가 다시 부인하더라. 잠시 후에 그들은 곁에 서 있던 베드로에게 다시 말하였다: "진실로, 너는 그들 중의 하나이다;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라. 71 그러나 그는 자신을 저주하며 "나는 당신이 말하는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맹세하기 시작하였다. 72 그러자 즉시 그 까마귀가 다시 울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까마귀가 두 번 오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났읍니다. 그리고 그는 울기 시작했다.

15

1 아침이 되매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온 산헤드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2 빌라도가 예수께 묻되 "당신이 유대인왕이십니까?" 그러나 그분은 대답하여 "당신이 그렇게 말하시는"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3 이에 대제사장들이 그분을 가납게 고발하였다.

4 빌라도가 다시 묻자 "당신이 대답하지 않으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이 얼마나 심하게 당신을 비난하는지 보십시오!

5 그러나 예수께서 더 이상 대답하지 않으시자, 빌라도는 깜짝 놀랐다.

6 그가 잔치를 위하여 그들에게 한 포로를 주곤 하였으니 그들이 원하는 자였더라.

7 그런데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반역에서 살인을 저지른 반역자들과 함께 잡혔다.

8 그러자 백성이 올라가서 그분이 예전처럼 하라고 청 하셨다.

9 빌라도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10 이는 대제사장들이 시기하여 자기를 넘겨 준 줄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11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백성을 격노하여 바라바를 놓아 주었다.

12 빌라도가 다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리이까?

13 그들이 다시 부르짖어 가로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14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무슨 악을 행하였나이까 그러나 그들은 더욱 부르짖었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15 빌라도는 백성의 뜻을 행하기를 기억하고 바라바를 그들에게 놓아 예수를 채찍질하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였다.

16 군인들이 그를 요새 곧 공의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온 군대를 불러 모으고

17 그들이 그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알아 입혀

입히고 18 그에게 문안하며 "유대인의 왕이여 주를 찬양하노라" 하고 문안하였다.

19 그들이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고, 그에게 침을 뱉고, 무릎을 꿇고 그에게 경배하더라.

20 그들이 예수를 조롱한 후에 자주색 옷을 벗기고 자기 옷을 입고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데리고 나 와서

21 지나가는 사람 곧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니 그는 들에서 온 자요 그는 알렉산더와 루보의 아버지로서 그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였더라

22 그들이 예수를 갈보리 곳으로 데리고 갔으니 그곳은 해골이 있는 곳으로 번역되었더라.

23 그들이 그에게 몰약을 포도주에 타서 마시게 하였으나 그는 받지 아니하였더라

24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더라. 그들은 그의 옷을 나누고, 누가 무엇을 가져갈지 보려고 제비를 뽑았다.

25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지 세 시쯤이 되었다.

26 그 위에는 그에 대하여 말한 것 곧 유대인의 왕이 기록되었더라.

27 그들이 예수와 함께 살인자 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하나는 그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의 왼편에 있었더라.

28 그때에 "그는 행악자 중에 헤아림을 받는다"는 성경이 성취되었읍니다.

29 지나가던 자들이 예수를 모독하며 머리를 흔들며 가로되 하, 성전을 허물고 삼 일 만에 건축하는 자들아,

30 이제 너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더라

31 이와 같이 대제사장들은 자기들과 서기관들 가운데서 그분을 조롱하며 "그는 남을 도왔으나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느니라" 하고 말하였다.

32 이스라엘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가 보고 믿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다.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도 그분을 욕하였다.

33 그리고 제육시쯤에 온 땅에 어둠이 드리워지다가 제구시경에 이르렀더라.

34 제구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시되 엘리, 엘리, 라마 아사브다니

35 이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곁에서 있던 어떤 자들이 가로되, "보라, 그가 엘리야를 부르시는도다" 하였다.

36 그 중에 한 사람이 달려서 스펀지에 식초를 채우고 갈대에 놓고 물을 주며 가로되 멈추어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갈지 보아라 하니라

37 그러나 예수께서는 크게 부르짖으시고 돌아가셨다.

38 그리고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더라.

39 백부장이 그 맞은편에 서서 그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 가로되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니라

40 또 멀리서 지켜보는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있었으니,

41 예수가 갈릴리에 있을 때에 그를 따라와서 섬겼던 자들과 그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다른 많은 사람들도 있었더라.

42 저녁에는 안식일 전날이었으므로

43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고귀한 의원으로 왔더라. 그는 감히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했다.

44 빌라도는 그가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놀라 백부장을 불러 그가 오래 전에 죽었느냐고 물었다.

45 그가 백부장에게 묻고 나서 그 시체를 요셉에게 주었더라.

46 그가 아마포를 사서 벗어 아마포로 싸서 바위를 깎아 만든 무덤에 넣고 무덤 문 앞에서 돌을 굴러 놓았더라.

47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와 호세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가 뉘어진 곳을 보았다.

16

1 안식일이 지났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와서 그에게 향유를 바르려고 향품을 샀더라. 2 그들이 그 주의 첫날 곧 해가 뜰 때에 매우 일찍 무덤에 이르렀더라. 3 이에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 놓으리이까?" 4 그들이 위를 들어 보니, 그 돌이 굴러 치워져 있었더라. 그는 키가 매우 컸기 때문이다. 5 그들이 무덤에 들어가 보니 한 젊은이가 그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데 그는 긴 흰 옷을 입고 있더라 6 그러나 그분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지만,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를 뉘었던 곳을 보라! 7 그러나 가서 그분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그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라고 말하여라. 그분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당신은 그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8 이에 그들이 나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더라. 그녀는 떨리고 겁에 질린 상태로 도착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이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9 10 그 여자는 가서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 곧 슬퍼하며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선포하였다. 11 이에 이들은 그가 살아서 그녀에게 나타났다는 말을 듣고, 믿지 아니하였더라. 12 그런 다음 그분은 육지를 걷고 있는 그들 중 두 사람에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13 그리고 그들도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더라. 그리고 그들도 그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14 마침내, 열한 제자가 식탁에 앉았을 때에, 예수께서 나타나시고 그들의 불신앙과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꾸짖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를 보고 다시 살아난 자들을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15 이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6 믿고 침례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17 믿는 자들에게 따를 표적은 이러하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악령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 그들이 뱀을 쫓아내리니 그들이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을 것이며,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더 나아질 것이다. 19 이에 주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 들리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더라. 20 그러나 그들은 나가서 모든 곳에서 전파하였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뒤이어 있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하셨다.

- 누가복음에 따른 복음:

1

1 많은 사람들이 이미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이야기들을 기록하려고 한 후에,
2 그것들이 우리에게 전해진 대로, 그들은 처음부터 그것을 직접 보았고, 말씀의 봉사자였으므로,
3 나도 처음부터 모든 것을 부지런히 조사한 후에, 그것을 나의 고귀한 데오빌로여, 당신에게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였습니다.
4 그대가 가르침 받은 교리의 확실한 기초를 알 수 있도록.
5 유대 왕 헤롯 시대에 아비아 반차의 한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딸들 중에서 났으니 그의 이름은 엘리사벳이요

6 그러나 그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였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 안에서 흠 없이 행하였더라.
7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지 못하였고 둘 다 몹시 늙었으므로 그들에게 자녀가 없었더라.
8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권을 행사하고 있을 때에, 그것이 그의 명령이었을 때에,
9 그는 신권의 관습에 따라 향을 피우도록 이끌려 주의 성전에 들어갔더라.
10 백성의 모든 무리가 밖에 있으면서 향을 피우는 시간에 기도 하고 있었다.
11 이에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분향 제단 오른편에 섰더라.
12 사가랴가 그를 보고 무서워하며 두려움이 엄습하더라.
13 천사가 가로되 사가랴야 두려워 말라 네 기도가 상달되었으니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을
것ियो 그 이름은 요한이라 하리라
14 또 너희는 기쁨과 즐거움을 가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그의 탄생을 기뻐하리라.
15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이며, 그의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16 또 그는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할 것이라.
17 또 그는 엘리야의 정신과 권능으로 그보다 앞서 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며,
불순종하는 자를 의인의 지혜로 돌이키게 하여, 주를 위하여 준비된 백성을 준비시키리라.
18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알찌 하리이까 나는 늙었고 내 아내는 늙었기 때문이다.
19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선 가브리엘이라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하려고 너희에게
보냄을 받았 노라
20 또 보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날까지 너희는 잠잠하여 말할 수 없으리니, 이는 너희가 때가 되면
이루어질 내 말을 믿지 아니 하였음이니라.
21 이에 백성이 사가랴를 기다렸고, 그가 성전에서 그토록 오래 머무른 것에 이상히 여겼더라.
22 또 그가 나가실 때에 그들에게 말씀하실 수 없었으므로, 그들은 그가 성전에서 시현을 본 줄 알았더라.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손짓하고 침묵을 지켰다.
23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의 성역의 기간이 끝나자,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더라.
24 이 날 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여 다섯 달 동안 숨어 지내며 이르되
25 "주께서 나를 보시던 날에 내게 이렇게 행하신 것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의 치욕을 내게서 제하시려
함이니라.
26 여섯달에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어 나사렛이라 하는 갈릴리 도시 로
27 다윗 집의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친분이 있는 처녀에게 보내셨으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니라.
28 천사가 그녀에게 들어와서 가로되 가장 은혜를 입은 분이여 당신에게 만송하소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29 그러나 그 여자는 그의 말에 겁이 나서 속으로 "이게 무슨 인사인가?" 하고 생각하였다.
30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마.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31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네 이름은 예수가 되리라.
32 그는 위대하여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주 하느님께서서는 그에게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좌를 주실 것이며,
33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며, 그의 왕국은 끝이 없을 것이다.
34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아는 사람이 없거늘 어찌 이럴 수 있나이까
35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라
36 또 보라, 너의 친척 엘리사벳도 자기 나이의 아들을 임신하였고, 이제 여섯 달째 되는 달을 걷고
있나니, 그는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말하느니라.

37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38 마리아가 가로되 "보라, 나는 주의 시녀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자 천사는 그녀에게서 떠났다.
 39 마리아는 그 날에 일어나 유다의 한 도시로 있는 산으로 가서
 40 사가랴의 집에 이르러 엘리사벳에게 문안하였다.
 41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를 듣고 아기가 그녀의 태에서 뛰놀았더라.
 엘리사벳은 성령이 충만하여
 42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여자들 중에 네가 복이 있고 네 태의 열매가 복이 있도다.
 43 어찌하여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오시나이까?
 44 보라, 내가 너의 문안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아이는 내 태에서 기뻐 뛰었느니라.
 45 믿는 자들아 복이 있도다! 주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임이니라.
 46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높이 며
 47 내 영혼이 내 구주 하느님을 기뻐 하네.
 48 이는 그가 자기 종의 겸손을 보았음이니라. 보라, 이제부터 나의 자녀들의 모든 자녀들이 나를 복되다 일컬음하리라.
 49 이는 그가 나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였음이니, 그는 전능하시고 그 이름이 거룩하신도다.
 50 그의 자비는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함께 영원토록 지속되도다.
 51 그분은 자기 팔로 권능을 행사하시고, 마음에서 교만한 자들을 홀으신다.
 52 그분은 용사들을 그들의 왕좌에서 쫓아내시고 겸손한 자들을 높이신다.
 53 그분은 굶주린 자에게 재물로 배불리 먹이시고, 부유한 자에게는 공허하게 내버려 두신다.
 54 그분은 자비를 기억하시고 당신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시며,
 55 우리 조상들과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영원히 말씀하셨습니다.
 56 마리아는 세 달쯤 그 여자와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다.
 57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때가 이르렀고, 그가 아들을 낳았더라.
 58 그녀의 이웃과 친척들은 주께서 그녀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을 듣고 그녀와 함께 기뻐하였다.
 59 또 팔일째 되는 날에 그들이 그 아기에게 할례를 행하러 와서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그의 이름을 지었더라.
 60 그의 어머니가 대답하여 가로되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니 다만 그의 이름은 요한이니라 하되
 61 그들이 그녀에게 이르되 당신의 가족 중에 그렇게 일컬어지는 사람이 없나이다.
 62 이에 그들은 그의 아버지에게 그가 부르기를 원하듯이 손짓하였다.
 63 그리고 그는 돌판을 청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썼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64 그러자 즉시 그의 입과 혀가 열리고, 그가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라.
 65 이에 모든 이웃에게 두려움이 임하였고, 이 모든 이야기가 유대의 모든 산지에 알려졌더라.
 66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가로되 너는 그 아기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더라 주님의 손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67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언하되 68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분은 자기 백성을 방문하시어 구속하셨고,
 69 우리를 위하여 자기 종 다윗의 집에 구원의 뿔을 세우 셧으며,
 70 그가 그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옛날에 말한 바와 같 으니,
 71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과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72 우리 조상들에게 자비를 보이시고, 그분의 거룩한 계약을 기억 하셨기 때문이다.

73 그분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우리에게 주겠다고 맹세 하신
 74 우리는 원수의 손에서 구속받아 평생토록 두려움 없이 그분을 섬겼으며,
 75 그분이 기뻐하시는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그분을 섬겼습니다.
 76 어린아이들아,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예언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대는 주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길을 예비하고,
 77 그분의 백성에게 그들의 죄를 용서함으로써 구원의 지식을 주며,
 78 우리 하느님의 부드러운 자비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부활하시는 분이 우리를 방문 하셨고,
 79 그분이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에 두 실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80 이에 그 아기는 자라서 영이 강해졌더라. 그리고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오실 때까지 광야에 계셨다.

2 1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시저 아우구스투스로부터 계명이 나왔는데, 곧 온 천하가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더라.

2 그리고 이 추산은 가장 먼저 이루어진 것으로, 키레니우스가 시리아의 총독이었을 때 이루어진 것이다.
 3 그리고 모든 사람은 가치를 인정받기 위하여 갔고, 각 사람은 자기 도시로 갔더라.
 4 요셉이 또 갈릴리에서 나사렛 성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 성으로 갔으니 이는 그가 다윗의 집과 혈통에 속하였음이니
 5 그가 아이를 가진 그의 믿음직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귀하게 여겨지려 함이었더라
 6 그들이 그곳에 있을 때에, 그 여자가 해산할 때가 이르렀다.
 7 그가 첫 아들을 낳고 그를 포대기로 싸서 독감에 빠뜨렸으니 이는 그들이 여관에 다른 방이 없었음이라.
 8 또 같은 지역에 있는 밭에 있는 우리들 곁에는 목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밤에 그들의 양 떼를 돌보고 있었다.
 9 또 보라,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오니, 주의 광채가 그들을 둘러 비치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10 이에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 소식은 모든 백성에게 임하리라.
 11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그리스도 곧 다윗의 동네에 계시니라.
 12 이것이 징조이니, 너는 아이가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13 이에 즉시 그 천사와 함께 하늘의 허다한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가로되 14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요 사람에게는 선의 가 있도다
 15 천사들이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갔을 때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되 이제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일어난 이야기를 보자 하니라
 16 그들이 급히 와서 보니, 마리아와 요셉이 구유에 누워 있고, 아기는 구유에 누워 있더라.
 17 그들이 그를 보고 나서, 이 아이가 그들에게 말한 말씀을 펴 주었더라.
 18 이에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르렀던 모든 자는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말에 놀라더라.
 19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간직하고 마음을 움직였다.
 20 이에 목자들은 돌이켜 그들이 듣고 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였다.
 21 팔일이 지나 아기가 할례를 받아야 할 때에, 그가 모태에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그를 일컫는 대로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불렀더라.
 22 또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케 되는 날이 끝나자, 그들이 그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주께 바치니,
 23 주의 율법에 기록된 바와 같이, "각 남자는 처음 난 것은 주께 거룩한 자라 일컬음을 받을지이다"

24 그리고 주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들이 희생 제물을 바치게 하려 함이니라. "한 쌍의 거북이 비둘기 또는 두 마리의 어린 비둘기".

25 또 보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나니, 그 그 사람은 경건하고 의로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성령이 그와 함께 계셨더라.

26 또 그는 성령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으니, 그가 먼저 주의 그리스도를 아니하면 사망을 아니하리라.

27 그리고 그는 영의 충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더라. 그 부모가 아기 예수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 율법대로 관례대로 해 주려고

28 아기를 팔에 안고 하느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29 주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평안히 가게 하소서.

30 내 눈으로 주의 구주를 보았사오니

31 주께서 모든 민족 앞에 예비하시 고

32 이방인을 깨우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찬송을 돌리는 빛이로이다.

33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에 관한 말을 듣고 크게 놀랐다.

34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하고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르되 보라 이 사람은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이 넘어지고 일어나는 것을 위하여 세워졌나니 이는 모순되는 표적 이 될 것이요

35 검이 네 영혼을 꿰뚫어 많은 마음의 생각을 나타내게 하리라.

36 아셀 가문의 바누엘의 딸 여선지자 안나가 있었는데 그는 매우 늙었고 처녀가 된 지 칠 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았고

37 이제 팔십사 세의 과부가 되어 성전에서 나오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겼더라

38 그녀는 또한 같은 시간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그분에 대해 말하였다.

39 이에 그들이 주의 율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그들은 갈릴리 곧 그들의 도시 나사렛으로 돌아갔더라.

40 그러나 그 아이는 자라서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더라. 성전에서 열두 살 된 예수

41 그의 부모는 매년 부활절에 예루살렘에 갔다.

42 예수가 열두 살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축제의 관습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라.

43 날이 끝나고 그들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에 아기 예수는 예루살렘에 남아 계셨고 그 부모는 알지 못하더라.

44 그러나 그들은 그분이 동료들 중에 있다고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가서 그들의 친척과 친지들 가운데서 그분을 찾았더라.

45 그들이 그를 만나지 못하자,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를 찾았더라.

46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삼일 후에 그들이 예수가 성전에서 교사들 가운데 앉아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 여쭙어 보니라.

47 그의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의 이해력과 대답에 놀랐다.

48 그들이 그를 보고 놀라더라.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였느냐 하니 보라, 너의 아버지와 내가 고통으로 너를 찾았느니라.

49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나를 찾았느냐? 내가 내 아버지의 일 안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50 그들이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더라.

51 또 그가 그들과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와서 그들에게 복종하셨더라.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다.

52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지혜와 키와 은혜가 자라가셨더라.

3

1 디베로 가이사 재위 제십오 년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이요 헤롯이 갈릴리의 왕자요 그의 형 빌립이 이투래아의 왕자요 트라코니티스와 리사니아 지방에서 아빌레네의 왕자 였을 때,

2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더라. 사막에서.

3 또 그가 요단 주변 모든 땅에 이르러 죄 사함을 위한 회개의 침례를 전파 하였더니,

4 선지자 이사야의 말책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이르되 광야에서 전파하는 자의 음성이 있어 이르되 주의 길을 예비하며 그의 길을 바로잡으라 하더라

5 모든 골짜기가 높아지며 모든 산과 언덕이 낮아지리니 구부러진 것이 옳으며 고르지 않은 것이 곧은 길이 되리라.

6 그리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주를 볼 것이다."

7 요한이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가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독사들아 누가 너희에게 장차 올 진노를 피할 것을 보여 주었느냐

8 주의를 기울이고, 회개의 의로운 열매를 맺으며,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으로 있다'고 말하겠다고 결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이 돌들로 아브라함을 위하여 자녀를 일으키실 수 있느니라.

9 도끼는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무엇이든지 찍어 불에 던져질 것이다.

10 백성이 여쭙어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되

11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두 옷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주고, 먹을 있는 자는 그대로 하라 하시니라

12 세금 징수원들도 침례를 받으러 와서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13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정해진 것 이상을 구하지 말라.

14 이에 군인들도 그분께 여쭙어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고 말하되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무에게도 폭력이나 불의를 행하지 말고 너희의 품삯으로 만족하라 하시니라

15 그러나 백성이 기대로 가득 차고 모든 사람이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하여 그가 혹시 그리스도인가 하고 생각할 때,

16 요한이 대답하여 그들 모두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든 나보다 더 강한 이가 있어 나는 그의 신발 끈을 풀기에 부족하노라 그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리라 하시리라

17 그의 손에는 낱실 샅이 있으니, 그는 타작마당을 쓸고, 밀을 곳간에 거두고, 꺼지지 않는 불로 겨를 태울 것이다.

18 그리고 그는 다른 많은 것들과 함께 백성을 권면하고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였다.

19 네 왕자 헤롯이 자기 형제의 아내 헤로디아와 헤롯이 행한 모든 악 때문에 그에게 꾸지람을 받았을 때에,

20 그는 요한도 감옥에 가두었다.

21 또 이렇게 되었나니 모든 백성이 침례를 받고 예수도 침례를 받고 기도 하시매 하늘이 열렸고

22 성령이 비둘기 같은 육신으로 그에게 내려왔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23 예수께서 시작하실 때에 나이가 삼십 세쯤 되어 요셉의 아들이요, 요셉은 엘리야의 아들이요,

24 마태의 아들이요, 레위의 아들이요, 멜기의 아들이요, 산내이의 아들이요, 요셉의 아들이요,
 25 맛다디아의 아들이요. 그는 아모스의 아들, 나훔의 아들, 예즐리의 아들, 나가개의 아들,
 26 그는 마앗의 아들, 맛다디아의 아들, 시므이스의 아들, 요식스의 아들, 요다의 아들,
 27 요하난의 아들, 레자의 아들이었다. 그는 스룹바벨의 아들이요, 실디엘의 아들이요, 네리의 아들
 이요,
 28 그는 멜기의 아들이요, 엘디의 아들이요, 고삼의 아들이요, 엘마담의 아들이요, 엘마담의 아들이요,
 엘마담의 아들이요, 엘마담 의 아들이요, 엘마담의 아들이요, 엘마담은 에르의 아들이요,
 29 그는 예수의 아들이요, 그는 엘리살의 아들이요, 여호림의 아들이었더라. 그는 레위의 아들 맛타의
 아들,
 30 시므온의 아들, 유다의 아들, 요셉의 아들, 요남의 아들, 엘리아김의 아들,
 31 멜레아의 아들, 므나의 아들, 마타다의 아들, 나단의 아들이었다.
 32 그는 이새의 아들, 오벧의 아들, 보아스의 아들, 살마의 아들, 낙손의 아들,
 33 암미나답의 아들, 아담의 아들, 아르니의 아들, 헤스론의 아들, 베레스의 아들, 그는 유다의 아들,
 34 그는 야곱의 아들, 그는 이삭의 아들, 그는 아브라함의 아들, 그는 다라의 아들, 그는 나훔의 아들,
 35 그는 스룩의 아들, 레구스의 아들, 벨렉의 아들, 에벨의 아들, 셀라의 아들이었다.
 36 그는 게난의 아들, 아르박삿의 아들, 셈의 아들, 노아의 아들, 라멕의 아들,
 37 그는 므두셀라의 아들, 에녹의 아들, 야렛의 아들, 마할랄렐의 아들, 게난의 아들,
 38 그는 에노스의 아들이었다. 그는 셋의 아들이었고, 아담의 아들이었으며,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4 1 예수께서 성령이 충만하여 요단강에서 다시 오셔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광야로 가셨고, 2 사십
 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는 그 날들에 아무것도 먹지 않았으며, 그 날들이 끝나자
 굶주렸다. 3 이에 마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에게 말하라
 그리하면 떡이 되게 하라 하니라 4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으리라 하였느니라 5 마귀가 그를 데리고 올라와 순식간에 온 세상의 모든 왕국을 보여 주고 6 그에게
 이르되 이 모든 권능과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그것은 내게 주어졌고, 나는 내 뜻대로 누구에게 주리라.
 7 그러니 너희가 나를 숭배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모두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8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 예배하고 다만 그를 섬길지니 하였느니라 9 예수께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네 몸을 던지라. 10 기록되었으되 그가 그의 천사들을 명하여 너희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음이니라 11
 그들이 너를 손에 들고 있으니, 네가 발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12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르기를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13 이에 악마가 모든 유혹을
 마치자, 그는 잠시 동안 그에게서 떠났더라. 갈릴리에서 일하십시오. 나사렛에서의 설교 14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오시니 그에 대한 소식이 주위의 모든 곳에 울려 퍼졌다. 15 또 그가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매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더라. 16 예수가 자라던 나사렛에 이르러
 안식일에 그의 관례대로 회당에 가서 일어나 읽기 원하노라. 17 그런 다음 예언자 이사야의 책이 그에게
 전해졌다. 그가 그 책을 펴 보니 다음과 같은 구절이 기록되어 있었다: 18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내게 기름을 부으셨음이라. 그가 나를 보내어 포로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자유로워지게 하고, 눈먼 자에게 보게 하며, 억압받는 자에게
 자유롭고 자유롭게 하기 위함이니, 19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함이니라." 20 그는 그 책을 다
 읽고 종에게 주고 앉았다. 회당의 모든 눈이 그분에게 쏠렸다. 21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 22 이에 그들이 다 그를 증거하고, 이 은혜의 말이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을 보고 놀라워하며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더라 23 이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게 이 속담을 말하리라 의사여 너 자신을 도우라 하시리라 우리가 가버나움에서 얼마나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들었음이라! 당신의 고향 도시에서도 똑같이 하십시오. 24 이에 그가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기 나라에서는 어떤 선지자도 아무 가치도 없느니라. 25 그러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과부가 많았으니 그때에는 하늘이 석 년 여섯 달 동안 닫혔고 온 땅에 큰 즐거움이 있었다라 26 엘리야는 시돈 사람 땅 사레밧 외에는 그들 중 어느 누구에게도 보내지지 아니하였더라 27 선지자 엘리사의 날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나, 시리아에서 온 나만 외에는 그들 중 아무도 깨끗하게 되지 못하였더라. 28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분노로 가득 찼더니, 29 그들이 일어나 그를 성 밖으로 밀어내고 자기들의 도시가 세워진 산 가장자리로 데리고 가서 던져 버렸다. 30 그러나 그분은 그들을 통과하셨다. 31 예수께서 갈릴리의 도시 가버나움에 오셔서 안식일에 가르치시니라 32 이에 그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라. 왜냐하면 그는 권위를 가지고 전파했기 때문이다. 33 회당에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었더라. 그는 큰 소리로 외쳤다.

34 "멈추십시오, 나사렛 예수여,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당신은 우리를 파괴하러 오셨습니다. 저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35 예수께서 그를 꾸짖으시며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하시니라 악한 영이 그를 그들 가운데로 던져 버리고 그를 쫓아내었으나 그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였더라. 36 이에 두려움이 그들 모두에게 엄습하여, 그들이 서로 말하여 가로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더라 그분은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은 나갑니다. 37 그에 대한 소식이 주변 모든 곳에 울려 퍼졌다. 38 그가 회당에서 나와 시몬의 집에 이르렀더라 시몬의 장모가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그들은 시몬에게 시몬을 달라고 간청하였다. 39 그가 그녀에게 절하여 열병을 명하니, 그 열병이 그녀를 떠났더라. 그러자 그 여자는 즉시 일어나 그들을 섬겼다. 40 해가 지고 나서, 여러 가지 고통으로 병든 자들이 다 그것들을 그에게로 데리고 왔더라. 그분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으시고 고쳐 주셨다. 41 이에 많은 사람의 악한 영들이 나와서 부르짖어 가로되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하되 그는 그들을 위협하고 그들이 말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들이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았기 때문이다. 42 날이 밝을 때에 그는 외딴 곳으로 가셨더라. 백성이 그분을 찾았고, 그분에게 와서 그분을 굳게 붙드렸으므로, 그분이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다. 43 이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도 또한 하나님의 왕국 복음을 다른 도시들에게 전파해야 하리라. 이것이 바로 내가 보냄을 받은 이유이기 때문이다. 44 또 그는 유대의 회당에서 전파하였더라.

5 1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에게 몰려들었는데, 그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계셨고,

2 두 척의 배가 바닷가에 누워 있는 것을 보았는데, 어부들이 나와서 그물을 씻고 계셨더라.

3 그리고 나서 그는 시몬의 배에 타서 육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데려다 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그분은 앉아서 사람들을 배에서 내리라고 가르치셨다.

4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너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물을 던져 행진하라 하시니라

5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이며 우리가 밤새도록 일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거늘 주의 말씀에 내가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6 그들이 이렇게 하니, 그들이 큰 무리의 물고기를 잡았고, 그들의 그물이 끊어지기 시작하였다.

7 그리고 그들은 다른 배에 타고 있던 동료들에게 와서 도와주라고 손짓하였다. 그들이 와서 두 배를 가득 채우자, 그 배는 가라앉고 말았다.

8 시몬 베드로는 이것을 보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주여 내게서 나가소서" 하고 말하였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9 이는 그와 그와 함께 이 고기잡이 원정에 나섰던 모든 자가 함께 행한 것이었음이라.

10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시몬의 동무들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잡을 것이다.

11 그들이 배들을 이끌고 육지로 가서 모든 것을 버리고 그를 따랐더라.

12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한 도시에 있을 때에, 보라, 한 사람이 나병에 걸린 한 사람이 있었더라. 그는 예수를 보자 엎드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간청했습니다.

13 그가 손을 내밀어 그를 만져 이르시되 내가 이를 행하리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그러자 즉시 나병이 그를 떠났다.

14 그리고 그는 그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가서 제사장에게 네 자신을 보이고, 모세가 그들에게 증언하라고 명령한 대로 너의 정결을 위하여 희생 제물을 바치라.

15 그러나 그에 대한 소식은 점점 더 널리 퍼졌고, 많은 사람이 그의 말씀을 듣고 그를 통하여 그들의 병이 고침을 받기 위해 함께 모여들었다.

16 그러나 그는 광야로 도망하여 기도하였다.

17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어느 날 예수께서 가르치시는데, 거기에는 갈릴리와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의 모든 곳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앉아 계셨더라. 그리고 주님의 권능은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 역사했습니다.

18 또 보라, 어떤 사람들이 통풍으로 병든 한 남자를 침대에 눕히고, 그들이 그를 데려와 그 앞에 눕히려 하였더라.

19 그들은 어떻게 그분을 사람들 앞으로 데리고 가야 할지 찾지 못하자, 지붕으로 올라가서 침대를 그들 가운데 두고 예수 앞에 놓아 기왓장 사이로 내려보냈다.

20 예수께서 그들의 신앙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21 이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말하기를 "그가 누구이기에 신성 모독을 말하겠느냐?"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22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보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마음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23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쉽습니까?

24 그러나 인자는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 수 있도록, 통풍으로 병든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대를 들고 집으로 가라.

25 그리고 그는 즉시 그들의 눈앞에서 일어나 자기가 누워 있던 침대를 일으켜 세우고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26 이에 그들이 다 놀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두려워하며 가로되 우리가 오늘 이상한 일을 보았도다 하더라

27 예수께서 나가서 레위라는 세리가 통행세 곁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하였다.

28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29 레위가 그의 집에서 그를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더니, 많은 세금 징수원들과 그 밖의 사람들이 그와 함께 식탁에 앉았더라.

30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며 제자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31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가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병든 자가 쓸데 있느니라

32 나는 죄인들에게 회개를 외치러 왔지,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33 그들이 예수께 이르되 요한의 제자들은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같이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34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너희가 혼인 부부를 단식하게 할 수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셨다.

35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올 것이요, 그 날에 그들이 금식하리라.

36 또 그분은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시되 "아무도 새 옷에서 형겔을 찢어 낡은 옷에 수선하지 아니하며 새 옷을 찢어 새 옷의 형겔이 옛 옷에 맞지 아니하니라.

37 아무도 젊은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니, 그렇지 아니하면 어린 포도주가 가죽 부대를 찢어 흘리게 될 것이요, 그 가죽 부대는 멸하리라.

38 그러나 어린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부어질 것이니라.

39 옛 것을 마시는 자는 새 것을 원하지 않나니, 이는 그가 "옛 것이 더 순하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6

1 또 이렇게 되었나니 안식일에 그가 옥수수 밭을 지나가고 계셨더라. 제자들은 옥수수 이삭을 따서 손으로 문질러 먹었다. 2 바리새인 중 몇몇이 가로되 어찌하여 너희가 안식일에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하느냐 하더냐 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주릴 때에 한 일과 그와 함께 한 사람들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4 예수께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사 진설병을 취하고 먹고 또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니라. 제사장들 외에는 아무도 먹을 수 없었습니까? 5 이에 그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을 다스리는 주님이시다." 6 이제 또 다른 안식일에 그가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니라. 그리고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7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분이 안식일에도 병 고침을 받실까 보려고 기다렸다. 8 그러나 그분은 그들의 생각을 들으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일어나 나오라" 하셨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걸어가셨다. 9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아니면 파괴하기 위해? 10 그분은 그들을 모두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했고, 그의 손이 다시 그에게 주어졌다. 11 그러나 그들은 몹시 어리석어지고, 예수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함께 이야기하였다. 12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기도하러 산으로 가던 때에 그는 밤을 지새워 하느님께 기도하였다. 13 날이 밝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그 중 열두 명을 택하시되 그들을 사도라 부르셨으니 14 시몬은 베드로라 부르시고 안드레는 그 형제라 하셨더라. 야고보와 요한; 빌립과 바돌로매; 15 마태와 도마;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이라고 불리는 시몬; 16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가롯 유다가 그 후에 그를 배반하였더라 17 그리고 그분은 그들과 함께 내려가서서 평평한 들판에 서셨다. 그분 주위에는 그분의 제자들과 유대 온 땅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 해안에서 온 큰 무리의 백성이 있었는데, 18 그들이 그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병을 고치려고 왔더라. 그리고 더러운 귀신들에게 쫓겨난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습시다. 19 이에 모든 백성이 그를 만지고자 하였더라. 능력이 그에게서 나가 모든 사람을 고침 받았음이라. 20 이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이르시되, "가난한 너희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기 때문이다. 21 여기서 굶주리는 너희는 복이 있도다. 이는 너희가 참만하게 될 것임이니라. 여기서 우는 너는 복이 있도다. 너는 웃을 것이다. 22 사람들이 인자를 인하여 너희를 미워하며 쫓아내며 꾸짖으며 주의 이름을 악하다고 배척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23 그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는 보라, 너희의 상이 하늘에서 큼이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예언자들에게 그랬던 것입니다. 24 그러나 그에 대하여, 너희 부유한 사람들에게 화가 있으리라고! 그대는 편안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25 여기서 만족하는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가 굶주리리라. 여기서 웃는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너희가 울고 또 울 것이다. 26 모든 사람이 당신에 대해 좋게 말하면 당신에게 화가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예언자들에게 그렇게 하였다. 27 그러나 듣고 있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라. 28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여라. 여러분을 화나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29 누구든지 너의 한쪽 뺨을 치면 다른 쪽 뺨도 내어라. 누구든지 너의 겹옷을 가져가는 사람에게, 너의 겹옷을 금하지 말아라. 30 누구든지 청하는 사람은 그에게 주십시오. 누구든지 너희 것을 취하면 다시는 구하지 말라. 31 그리고 사람들이 당신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대로 그들에게 해 주십시오. 32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면 무슨 감사가 있느냐? 죄인들도 자기 친구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33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은인들에게 선을 행한다면, 당신에게 무슨 감사가 있습니까? 죄인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34 그리고 당신이 받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빌려 준다면, 무슨 감사가 있습니까? 죄인들도 죄인들에게 빌려 주어 그들로 하여금 다시 같은 것을 취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35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너희가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는 곳에 선을 행하고 빌려 주면, 너희의 보상이 클 것이며,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분은 배은망덕한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 친절하시기 때문이다. 36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를 베풀어라. 37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리라. 정죄하지 마라, 너는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38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충만하고, 놀리고, 흔들리고, 넘치는 분량이 그대의 가슴에 놓일 것이다. 왜냐하면 네가 헤아리는 바로 그 헤아림으로, 너는 다시 헤아림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39 또 그분은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소경이 눈먼 사람에게 길을 보여 줄 수 있겠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을까요? 40 제자는 주인보다 높지 않습니다. 제자가 완전하다면, 그는 그의 스승과 같습니다. 41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42 네가 어찌 네 형제에게 '형제여, 가만히 있으시오, 내가 네 눈의 티를 제하리니 너 자신은 네 눈의 들보를 못하리라?' 하고 말할 수 있겠는가? 위선자여,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 다음에 네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도록 하여라. 43 썩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나 좋은 열매를 맺는 썩은 나무가 없느니라. 44 모든 나무는 그 열매로 알려지느니라. 사람은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따지 않고, 올리에서 포도를 따지 않는다. 45 선한 사람은 그 마음의 선한 보화에서 선한 것들을 맺는다. 악한 사람은 자기 마음의 악한 보물에서 악을 낳는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서는 입이 넘칩니다. 46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부르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47 누구든지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행하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너에게 보여 주겠다. 48 그는 집을 짓고 땅을 파고 반석 위에 기초를 놓은 사람과 같다. 그러나 홍수가 났을 때, 강물이 집을 찢어 버렸고, 그 집을 움직일 수 없었다. 그것은 잘 지어졌기 때문이다. 49 그러나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땅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러자 강이 그를 덮쳤고, 즉시 강물이 무너졌²³, 집이 크게 무너졌다.

7 1 예수께서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가버나움으로 가셨더라. 2 그가 합당하다고 여겼던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었더라. 3 그러나 그는 예수에 대해 듣고 유대인의 장로들을 그분에게 보내어 자기 종을 고쳐 달라고 간청했다. 4 그러나 그들이 예수께 나아와서, 그들은 부지런히 그에게 간청하며 말하기를, "그는 당신이 이것을 그에게 보여 주기에 합당합니다. 5 그분은 우리 백성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세우셨습니다. 6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과 함께 가셨다. 그러나 그가 집에서 멀지 않았을 때, 백부장은 친구들을 그에게 보내어 가로되 주여 근심하게 하지 마소서. 나는 네가 내 지붕 아래로 들어갈 자격이 없다. 7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올 자격이 없다고 여겼느니라. 그러나 한 마디 말하면, 나의 종이 나을 것이다. 8 나도 권위에 복종하는 사람이니, 내 밑에 군사가 있느니라. 그리고 나는 한 사람에게 '가라!'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간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 여기로 오세요! 그래서 그분이 오십니다. 그리고 나의 종에게 "이것을 행하라." 그래서 그는 그렇게합니다. 9 예수께서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시고 돌이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나는 온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못하였노라 10 사자들이 집에 돌아와 보니 그 종은 건강하더라. 11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나인이라 하는 도시로 갔더라. 그분의 제자들도 그분과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갔다. 12 또 그가 성문 가까이 이르렀을 때, 보라, 한 죽은 사람이 끌려갔으니,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아들이요, 그녀는 과부였더라. 그리고 그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녀와 함께 갔다. 13 이에 주께서 그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그녀에게 이르시되 울지 말아라. 14 그가 와서 관을 만져 보니, 운반자들이 서 있더라. "젊은이여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15 그러자 그 죽은 사람이 일어나 말하기 시작하여,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16 이에 두려움이 그들 모두에게 임하였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가로되 한 위대한 선지자가 우리 중에 일어나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임하셨도다. 17 이에 그에 관한 이 말이 유대 온 땅과 그 주변의 모든 나라에 울려 퍼졌더라. 18 제자들이 이 모든 것을 요한에게 고하니라.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을 불러 19 그들을 주께 보내며 가로되 당신이 오실 사람이냐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겠느냐 하니 20 이 사람들이 예수께 나아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너희에게 보내어 이르되 오실 자가 당신이냐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겠나이까 하더냐 21 또 그 때에 그는 많은 사람을 병과 재앙과 악한 영들로부터 고치셨고, 많은 눈먼 사람들에게 시력을 주셨더라. 22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라 곧 소경이 보고 걷는 자가 걷는 자와 나병자가 깨끗함을 얻으며 귀머귀는 자가 듣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가 복음을 전파하느니라. 23 그리고 나를 범죄하게 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24 요한의 사자들이 떠난 후에 예수께서 요한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시니, "너희가 어찌하여 광야로 나가 보려고 하였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고 싶었나요? 25 너는 무엇을 보러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남자를 보고 싶었습니까? 보라, 아름다운 옷을 입고 호화롭게 사는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26 너는 무엇을 보러 나갔느냐? 선지자를 만나고 싶었는가? 그렇다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분은 선지자 그 이상이시다. 27 "보라, 내가 나의 사자를 너희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너희 앞에서 너희의 길을 예비하리라"고 기록된 바 그분이 바로 그분이니시라. 28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에게서 난 사람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크니라. 29 그의 말을 들은 모든 백성과 세금 징수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여 요한의 침례와 함께 침례를 받았더라. 30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의도하신 것을 멸시하고 그분에게 침례를 받지 않았다. 31 내가 이 세대의 사람들을 누구와 비교하리요, 그들은 누구와 같으냐? 32 그들은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부르짖으며 "우리는 너희를 위해 놀았고 너희는 춤추지 않았다. 우리는 그대에게 불평하였으나 그대는 울지 않았다. 33 침례 요한이 와서 떡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였더라. 그대는 '그는 귀신들렸다'고 말한다. 34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고 있다. 너희가 말하기를, '보라, 사람은 대식가이며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금 징수원과 죄인은 친구이니라.'" 35 그러나 지혜는 그의 모든 자녀에 의해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36 그러자 바리새인 중 하나가 그분과 함께 먹자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그분은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탁에 앉으셨다. 37 또 보라, 그 도시에 죄인인 한 여인이 있었더라. 예수가 바리새인의 집 식탁에 앉아 있다는 말을 듣고, 향유 한 잔을 가져와서 38 그의 발치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의 발을 적시고, 그녀의 머리털로 닦고, 그의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39 그러나 그를 초대한 바리새인은 이것을 보고 속으로 말하기를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그가 누구이며 어떤 여자를 만지고 있는지 알 것이라. 그 여자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40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할 말이 있노라 하시니라 "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41 두 명의 채무자를 가진 채권자가 있었다. 한 명은 은 500 그로셴을 빚졌고, 다른 한 명은 50 그로셴을 빚졌다. 42 그러나 그들이 지불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분은 그것을 그들 두 사람에게 주셨다. 말해봐, 그들 중 누가 그를 가장 사랑할까? 43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그분이 가장 많이 주신 분을 존경합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옳게 판단하였도다. 44 예수께서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의 집에 들어왔다. 당신은 내 발에 물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내 발을 말렸다. 45 당신은 내게 입

맞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후자는 내가 들어온 후에도 내 발에 입맞추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46
당신은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 발에 향유를 부었다. 47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으므로 그가 내게 많은 사랑을 베풀었느니라.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자는 사랑이 적게 된다. 48 이에 그가 그에게 이르되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시니라 49 그러자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은 사람들이 속으로 말하기를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까지도 용서하느뇨
하더냐?" 50 이에 그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너의 신앙이 너를 도왔도다. 평안히 가십시오!

8 1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왕국 복음을 전파하고 전파하고
계셨는데, 열두 제자가 그와 함께 있었고, 2 또 그가 악령과 병에서 고친 몇몇 여인들, 곧 일곱
영이 나간 막달레나 마리아, 3과 요안나, 헤롯의 청지기 중 한 사람인 추사의 아내와 수산나,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소유를 내어준 다른 많은 사람들이었다. 4 또 많은 백성이 함께 모여서 성읍에서
그분에게로 급히 오고 있을 때에, 그분은 비유로 말씀하셨다. 5 씨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갔더라.
그분이 씨를 뿌리는 동안에 어떤 사람들은 길가에 쓰러져 발에 짓밟혔고, 공중의 새들이 그것들을 먹어
버렸다. 6 더러는 바위 위에 얹드렸더라. 그것이 솟아올랐을 때, 그것은 즙이 없었기 때문에 시들어
버렸다. 7 또 더러는 가시덤불 사이에 얹드러졌더라. 가시덤불이 함께 올라가 숨이 막혔다. 8 또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졌더라. 그 나무는 싹을 틔우어 백 배의 열매를 맺었다. 그분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9 제자들이 이 비유가 무엇이나고 묻더라. 10 이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한
것이니 이는 그들로 아직 보아도 못하고 들었는지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11 그러나 비유는
이러하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12 그러나 길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다음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그들이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합니다. 13
그러나 반석 위에 있는 자들은 이러하니 그들이 들을 때에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뿌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한동안 믿다가 시련을 겪을 때 떨어져 나간다. 14 그러나 가시덤불
가운데 떨어진 자들은 그것을 듣고, 인생의 염려와 재물과 기쁨 가운데로 가며, 질식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15 그러나 좋은 땅에 있는 자들은 말씀을 듣고 선행하고 선행 마음으로 간직하며
인내로 열매를 맺느니라. 16 아무도 촛불을 켜거나 그릇으로 덮거나 의자 밑에 두지 않는다. 그러나
그분은 그것을 등잔대 위에 올려 놓으시어,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볼 수 있게 하신다. 17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고, 비밀이 무엇든지 드러나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음이니라. 18 그러므로 당신이 어떻게 귀를 기울이는지 보십시오. 가진 자에게는 주여지리라. 그러나
가지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조차 빼앗길 것이다.
19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에게 갔으나 백성 앞에 그에게 올 수 없었더라 20 그가 가로되 "너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서서 너를 보고 싶어 하노라" 하고 말하였다. 21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형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니라 하시니라 22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 날이
하나이니라 그분이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분은 그들에게 "우리가 호수를 건너자"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들은 육지에서 밀려났다. 23 그들이 운전하고 있을 때에, 그분은 잠이 드셨다.
그러자 회오리바람이 바다에 불어닥쳤고, 파도가 배를 가득 채웠으며, 그들은 큰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24 그들이 예수께 와서 깨우며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멸망하노라 하더라 그런 다음 그는 일어나
바람과 물의 파도를 위협했다. 그리고 그것은 멈추었고, 침묵이 되었다. 25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이까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라워하며 서로 말하기를 "이
사람이 누구냐?" 바람과 물까지도 그분이 명령하시고, 그들은 그분에게 복종한다. 26 그리고 그들은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 게라세네 지방으로 갔다. 27 그가 해변에 이르러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악령이 들린 자로서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아니하고 어느 집에도 머물지 아니하고 다만 매장 동굴에
 있었다 28 그가 예수를 보고 부르짖어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예수여 내게 무엇을 원하시나이까 간청하건대, 나를 괴롭히고 싶지 않으시다. 29 이는 그분이
 더러운 영에게 명령하여 사람에게서 처형하게 하셨음이라. 그가 오랫동안 그를 괴롭혔고, 그는 쇠사슬과
 족쇄에 묶여 사로잡혔으며, 그의 결박을 끊었고, 악령에게 쫓겨나 광야로 들어갔다. 30 예수께서 여쭙어
 가라사대 이름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니 그가 말하길: 군단. 많은 악한 영들이 그에게 들어왔기 때문이다.
 31 그들이 예수께 지옥에 가라고 말하지 말아 달라고 간청하더라. 32 그런데 산 곁 초장에 큰 돼지 떼가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분께 자기들이 들어갈 수 있게 허락해 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그분은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33 그러자 악한 영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갔다.
 그러자 그 가축 떼는 비탈에서 호수로 던져져 익사하고 말았다. 34 그러나 목자들은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고 도망하여 도시와 마을에 그것을 선포하였다. 35 그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러 나가 예수께
 나아와 보니, 악령들이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단정한 모습으로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더라 36 그리고
 그것을 본 자들은 악령 들린 사람이 고침을 받은 것처럼 그들에게 그것을 선포하였더라. 37 이에
 거라세네 사람들의 주변 땅에서 온 모든 무리가 그에게 그들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더라. 큰
 두려움이 그녀에게 닥쳤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배에 올라 다시 돌아섰다. 38 이에 악령들이 나간 그
 사람이 자기와 함께 있기를 간청하였더라.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를 떠나 가셔서 39 다시 집에 가서
 하느님께서 당신을 위해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지 말해 주십시오. 그는 가서 예수가 자기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지를 온 도시에 선포하였다. 40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돌아오셨을 때,
 사람들은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였더라. 그들 모두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41 또 보라, 회당의
 관원이던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그의 집으로 들어오기를 간청하였더라. 42
 그에게는 열두 살쯤 된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 딸은 마지막 다리를 뺀고 있었다. 그가 가자 사람들이 그의
 주위로 모여들었다. 43 또 한 여자가 열두 년 동안 피의 흐름을 가졌더라. 이 병은 아무나 치료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44 그 여자가 뒤에서 올라와서 그의 옷자락을 만졌다. 그러자 즉시 그녀의 피가 흘렀다. 45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러나 그들이 모두 부인하자 베드로는 "선생님이여 백성이
 당신을 압박하고 압박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46 그러나 예수께서는 "누가 나를 만졌다. 힘이
 나를 떠났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47 그러나 그 여자는 그것이 감추어지지 아니한 것을 보고, 떨면서 그
 앞에 엎드려, 자기가 그를 만진 원인과 그녀가 곧 치유될 것을 모든 백성에게 선포하였더라. 48 그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십시오! 49 그분이 아직 말씀하고
 있을 때에 회당 통치자의 하인 하나가 와서 그분에게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주인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50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를 믿으세요,
 그래야 그녀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51 그가 집에 들어올 때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 외에는 아무도 자기와 함께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52 그러나 그들은 모두 그녀를
 위하여 울며 슬퍼하였다. 그러나 그분은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죽지 않았지만 잠들어
 있다. 53 이에 그들이 그를 비웃었으니, 이는 그녀가 죽은 줄을 잘 알았음이라. 54 그러나 그분은 그녀의
 손을 잡고 울며 "아이야,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셨다. 55 그러자 그의 영이 다시 왔고, 그녀는 즉시
 일어났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음식을 먹이라고 명령했습니다. 56 그러자 그의 부모는 깜짝 놀랐다.
 그러나 그분은 그들에게 일어난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집에 들어가거든, 계속 진행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5 그들이 너를 받아들이지 않거든 같은 도시에서 나가 네 발의 먼지를 떨어 그들을 반대하는 증거로 삼으라. 6 그리고 그들은 나가서 마을들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며 모든 곳에서 병을 고치니라. 7 그리고 일어난 모든 일은 네 왕자 헤롯 앞에 있었더라. 그가 안절부절못하게 되었으니, 이는 어떤 사람들에게 대하여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8 그러나 몇몇 사람들 가운데서 엘리야가 나타났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고대의 예언자 중 한 명이 부활했습니다. 9 헤롯이 가로되 요한아, 내가 그의 목을 베었노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듣는 이 사람은 누구냐? 그리고 그를 만나기를 원하였다. 오천 명을 먹이시다 10 그리고 사도들이 다시 와서 자기들이 얼마나 큰 일을 행했는지 그분에게 말하였다. 그리고 그는 그 여자를 데리고 벳세다라는 도시로 떠났다. 11 백성은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을 따랐다. 그리고 그분은 그들을 자기에게로 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말해 주셨으며,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고쳐 주셨다. 12 그러나 날이 밝아오기 시작하였다. 이에 열두 제자가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백성을 당신에게서 떠나 그들이 주변 마을과 농장으로 들어가 숙소와 음식을 찾게 하십시오. 우리는 여기 광야에 있기 때문입니다. 13 이에 그분은 그들에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라" 말씀하셨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입니다. 우리가 가서 이 모든 백성을 위해 음식을 사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14 이는 남자가 오천 명쯤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오십 명씩 무리를 지어 앉으라. 15 이에 그들이 행하여 그들 모두를 눕게 하였더라. 16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백성에게 바치게 하셨다. 17 이에 그들이 먹고 모두 만족하였더라. 그리고 그들 가운데 남은 덩어리들을 주워 열두 광주리였다. 18 또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홀로 기도하시고 제자들만이 그와 함께 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여쭙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19 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들이 말하길 당신이 침례 요한이라 하더라.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엘리야입니다. 그러나 고대의 예언자 중 한 사람이 부활한 사람들도 있었다. 20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21 또 그들을 꾸짖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며 22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니라 23 또 다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시니라 24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것을 잃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것을 받을 것이다. 25 인간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손해를 입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26 그러나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인자가 자기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 중에 올 때에 또한 부끄러워하리라. 27 그러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왕국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않을 사람들이 있느니라. 28 또 이 말씀 후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혼자 계시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더라. 29 또 그가 기도하자 그의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의 옷이 희고 밝아졌더라. 30 또 보라, 그에게 말한 두 사람이 있었으니,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더라. 31 그들은 변형되어 나타나 그가 예루살렘에서 성취하게 될 결과를 말하였더라. 32 그러나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잠이 깬다. 그러나 그들이 깨어났을 때, 그들은 그분이 어떻게 변형되었는지를 보았고, 두 남자가 그분 곁에 서 있었습니다. 33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그에게서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여기 있음이 유익하나이다." 우리가 세 개의 성막을 만들되 하나는 너희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리고 그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몰랐다. 34 그가 이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구름이 와서 그것을 덮었다. 그들은 구름이 그들을 덮었을 때 무서워하였다. 35 이에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와서 이르되, "이는 나의 택한 아들이라. 당신은 그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36 그 음성이 들려

그들이 보니 예수는 혼자 계셨더라. 그들은 그 날에 자기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 37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 다음 날에 그들이 산에서 내려왔을 때, 많은 백성이 그들을 맞으러 왔더라. 38 또 보라,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선생님, 간청하오니, 내 아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그는 나의 외아들이기 때문이다. 39 보라, 한 영이 그를 붙잡아 그가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그를 이리저리 튕겨서 거품을 일으키게 하며, 그가 이런 식으로 그를 멸망시킬 때에도 그를 떠나지 못하느니라. 40 내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를 쫓아내라고 청하였으나 그들이 할 수 없었나이다. 41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지 아니하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이까? 아들을 데리고 오세요! 42 그가 그에게 이르매 악령이 그를 찢고 끌고 가더라. 그러나 예수께서는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그 아이를 고쳐 주어 아버지에게 돌려주셨습니다. 43 그리고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큰 권능에 놀랐다.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것에 그들이 모두 놀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44 "이 말을 들으십시오. 인자는 반드시 사람의 손에 넘겨져야 합니다." 45 그러나 그들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또 그것이 그들에게 감추어져 있었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은 이 단어를 그에게 청하기를 두려워하였다. 야망과 편협을 대적하여, 46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누가 가장 크한가에 대한 생각이 그들 가운데 떠올랐다. 47 예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한 아기를 데려다가 곁에 두시고 48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으로 이 아기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영접하느니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위대하니라. 49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자를 보았노라. 우리가 그를 저항하였으니, 이는 그가 우리와 함께 너희를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50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사람이다. 51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때가 차서 그를 여기서 데려가야 할 때에, 그는 곧장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그의 얼굴을 돌이켰더라. 52 또 그가 자기 앞에 사자들을 보내었더라. 그들이 가서 사마리아인들의 마을에 이르렀더니, 그들은 예수에게 유숙하라고 명령하였다. 53 그들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얼굴을 돌이켰음이라. 54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가로되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들을 태운다 하겠나이다 하더라 55 그러나 예수 돌아서서 그들을 위협하였다. 56 인자가 온 것은 사람의 영혼을 멸하려 함이 아니요 보존하려 함이니라. 57 그리고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58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느니라. 그러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59 또 다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러나 그는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를 문께 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60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가 자기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그러나 가서 하느님의 왕국을 선포하라. 61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그러나 먼저 내 집에 있는 사람들을 떠나게 허락하십시오. 62 그러나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쟁기에 손을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10

1 주께서 또 칠십 명을 구별하시고, 그분이 가시고자 하는 모든 도시와 곳으로 둘씩 그분 앞에 보내시며 2 그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풍부하나 일꾼이 적도다 하시니라 추수하는 주님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도록 간구하십시오. 3 가다; 보라,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서 어린 양처럼 보내노라. 4 가방이나 가방, 신발을 가지고 다니지 말고, 가는 길에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십시오. 5 집에 들어올 때,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을지어다' 하고 말하십시오. 6 또 만일 평화의 자녀가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위에 머물 것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너희의 평안은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7 그러나 같은 집에 머물면서 너희에게 주어진 것을 먹고 마시라. 왜냐하면 일꾼은 그의 삯을 받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이다. 너는 한 집에서 다른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말지니라. 8 너희가 어떤 도시에 들어올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접하고, 너희 앞에 놓인 것을 먹고, 9 거기 있는 병든

자를 고치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고 말하라. 10 그러나 그들이
 너를 받아들이지 않는 도시에 이르거든, 그 거리로 나가 말하라 11 우리가 너의 도시에서 우리 발에 붙은
 먼지를 너에게서 떨어 버리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라. 12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그 날에 소돔은 그러한 도시로서 더욱 견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3 화
 있을진, 코라진아! 벳세다야, 너희에게 화가 있을진저! 두로와 시돈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더라면, 그들은
 오래 전에 굶은 베옷과 재 속에 앉아서 회개했을 것입니다. 14 그러나 심판 때에는 티레와 시돈이 너보다
 더 견딜 만할 것이다. 15 가버나움아, 너는 하늘로 들리겠느냐? 너는 지옥으로 던져질 것이다. 16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느니라. 너희를 업신여기는 자는 나를 업신여기느니라. 그러나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멸시하는 것이다. 17 이에 칠십인이 기쁨으로 다시 나아와 가로되 주여 악한
 영들도 주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하니라 18 이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19 보라, 나는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권세를 밟을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느니라. 그리고 아무것도 당신을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20 그러나 영들이 당신에게
 복종한다고 기뻐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21 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 안에서 기뻐하며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주재 아버지여 내가 주를 찬송하노니 주께서 이
 일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셨나이다. 네,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셨습니다. 22 내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내게 넘겨 주셨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오직 아들만이 계시하시고, 아들이 의지하시는
 그분이기 때문이다. 23 그리고 그분은 특별한 방법으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다. 24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왕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였으나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들었으나 듣지 못하였느니라. 25 또 보라, 한 서기관이
 일어나 그를 유혹하여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상속받으리이까?" 26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니 어떻게 읽나요? 27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28 그러나 그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옳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살게 될
 것입니다. 29 그러나 그는 자기를 의롭다 하려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30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의 손에 넘어진 사람이 있었더라. 그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때리고는 가버렸고, 그는 반쯤 죽어 누워 있었다. 31 그런데 우연히 한 제사장이 같은
 길로 가고 있었다. 그가 그를 보자 그는 지나갔다. 32⁷⁸ 레위 사람도 이와 같다. 그가 그곳에 와서 그를
 보았을 때, 그는 지나갔습니다. 33 또 한 사마리아인이 여행하여 그리로 왔더라. 34 예수께서 그에게
 가셔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의 상처에 붓고 봉대를 감으시며 그를 짐승 위에 올려 놓고 여관으로 데리고
 들어가 간호하시니라 35 이튿날 그는 은 두 닢을 꺼내어 여관 주인에게 주며 "그를 보살펴 주거든, 네가 더
 보이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다" 하고 말했다. 36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들 가운데 쓰러진 자의 다음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37 그분은 "그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38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에 그가 한
 마을에 이르렀더라. 마르다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그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39 그에게는
 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은 마리아라. 그녀는 예수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연설을 들었습니다. 40
 그러나 마르다는 그분을 섬기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다. 그녀가 나와서 가로되 주여 제 누이가 저 혼자
 섬기게 해 달라고 간구하지 않으십니까 그녀도 그것을 공격할 것이라고 그녀에게 말하십시오! 41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근심과 근심이 많구나. 42 그러나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하였다. 그것을 그녀에게서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1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는 어떤 장소에서 기도하고 계셨더라. 그가 멈추었을 때, 그의 제자 중 하나가 그에게 "주여,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소서"라고 말하였다. 2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말하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당신의 왕국이 임하옵소서.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3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영원히 주십시오. 4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또한 우리에게 빛진 모든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5 이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친구가 있는 자가 누구냐 하면 한밤중에 그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사랑하는 친구여, 나에게 떡 세 개를 빌려 주십시오. 6 이는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거늘 내가 그 앞에 세운 것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이니라. 7 그러자 그 안에 있는 자가 대답하여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하고 말하리라. 문은 이미 잠겨 있고, 나의 어린 자녀들은 나와 함께 방에 있다. 나는 일어나서 너에게 줄 수 없어. 8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만일 그가 그의 친구이기 때문에 일어나 그에게 주지 않는다면, 그는 여전히 그의 무례한 고집 때문에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을 줄 것이다. 9 또 나도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두드리면 열릴 것입니다. 10 구하는 자는 받는 것이니라. 찾는 자는 발견한다. 누구든지 두드리는 사람은 열릴 것이다. 11 너희 중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고기를 달라고 청하면, 누가 물고기를 얻기 위해 뱀을 주겠느냐? 12 또는 그가 달걀을 청한다면, 누가 그에게 전갈을 담례로 제공합니까? 13 악한 너희가 자식에게 좋은 선물을 줄 수 있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14 그리고 그는 병어리 악한 영을 쫓아내셨더라.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영이 나갔을 때, 그 병어리 남자가 말하였더라. 그러자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15 그들 중 몇몇이 가로되 그가 그들의 통치자 바알세불을 통하여 악한 영들을 쫓아내시는도다 하더라 16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그분을 유혹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징을 청하였다. 17 그러나 그분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각 나라가 스스로 분열되면 황폐하게 되며 한 집이 다른 집 위에 무너진다 하시니라 18 그러나 사탄 역시 자기 자신에 대항하여 분열된다면, 그의 왕국은 어떻게 서 있을 것입니까? 너희가 말하기를, 내가 바알세불을 통하여 악한 영들을 쫓아냈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19 그러나 내가 바알세불로 말미암아 영들을 쫓아냈다면, 당신의 아들들은 누구로 그들을 쫓아내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20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악령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21 힘센 남자가 무장한 채 자기 궁전을 지킬 때, 그 사람은 평화롭게 머물러 있습니다. 22 그러나 더 강한 사람이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이기면, 그는 의지하던 그의 갑옷을 벗어 버리고 약탈물을 나누어 준다. 23 나와 함께 있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이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흩어지느니라. 24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서 나갈 때에, 그것은 메마른 곳을 다니며 쉼을 구하지만 찾지 못하느니라. 그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내가 왔던 곳에서 내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25 그분이 오시니, 그것은 쓸려 가고 단장되어 있느니라. 26 그런 다음 그분은 가셔서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일곱 영을 데리고 가신다. 그들이 들어올 때, 그들은 거기에 거하며, 그 후에는 같은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전보다 더 나빠질 것이다. 27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이 말을 하고 있을 때에, 백성 중에 한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 그에게 이르되, "너를 낳은 몸과 네가 젖을 빨았던 이는 복이 있도다." 28 이에 그가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29 그러나 백성은 계속 전진하였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입니다. 그는 표적을 원하며,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30 요나가 니네베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이 세대에게 인자도 그러할 것이다. 31 남방의 여왕이 최후의 심판 때에 이 세대의 백성들과 함께 나타나 그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녀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하여 세상 끝에서 왔기 때문이니라. 그리고 보라, 여기에는 솔로몬보다 더 많은 것이 있느니라. 32 니네베 백성은 이 세대와 함께 심판하고 서서 정죄할 것이다. 그들이 요나의 설교 후에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라, 여기에는 요나 이상의 자들이 있느니라. 33 아무도 촛불을 켜서 구석에 두지 아니하며, 심지어 부셀 아래가 아니라 등잔대 위에 두어,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빛을 볼 수 있게 한다. 34 당신의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그러므로 그대의 눈이 순수하면 그대의 온 몸이 가볍다. 그러나 너의 눈이 악하면 너의 몸도 어둡다. 35 그러므로 너희 안에 있는 빛이 어두움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36 그러므로 당신의 몸이 온통 빛이어서 어두움의 일부가 없다면, 그것은 밝은 섬광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밝을 것이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대적하여 37 그분이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그분에게 점심 식사를 함께 하자고 청하였다. 그리고 그분은 들어가서 식탁에 앉으셨다. 38 바리새인은 이것을 보고 자기가 먹기 전에 씻는 것을 빠뜨린 것을 보고 놀랐다. 39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잔과 접시를 마음으로 깨끗하게 간직하고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의 내면은 강도와 사악함으로 가득 차 있다. 40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창조하신 이가 속도 창조하지 않았느냐? 41 안에 있는 것을 자선으로 바치라 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깨끗하리라. 42 그러나 너희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하와 루와 모든 양배추의 십일조를 바치며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을 방심하는 것은 너라! 이것은 해야 하고 저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43 너희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회당의 머리에 앉아서 장터에서 환영받기를 좋아하는구나! 44 너희에게 화가 있을진저, 너희는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숨겨진 무덤 같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45 이에 서기관 중 하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당신도 이 말로 우리를 꾸짖으시나이까 46 그러나 그가 이르되 너희 서기관들에게도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우고, 너희 자신은 손가락으로 그것들을 건드리지 않는다. 47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예언자들을 위하여 무덤을 짓느니라. 그러나 너희 조상들이 그들을 죽였어. 48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조상들의 행위를 증언하고 승인한다. 그들이 그들을 죽였으니, 너는 그들을 위해 무덤을 짓느니라. 49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이르기를 내가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들 중에 더러는 그들을 죽이고 핍박하리라 하시니 50 이는 창세 이래 흘린 피를 모든 선지자의 이 세대에게 요구하게 하려 함이요 51 아벨의 피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은 스가랴의 피까지 요구하려 함이니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것은 이 세대에게 요구될 것이다. 52 너희 서기관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대가 지식의 열쇠를 빼앗아 갔기 때문이다. 그대는 들어가지 않았고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저항하지 않았다. 53 그분이 그리로 나가시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을 세게 압박하며 여러 가지 질문으로 심문하기 시작하여, 54 그분이 그분의 입에서 무슨 것을 쫓아낼 수 있는지 보려고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다.

80

12

1 그러는 동안에 백성이 그들에게 달려오자, 수천 명이 모여들어 서로 짓밟았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먼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곧 위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비밀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3 그러므로 너희가 어둠 속에서 말하는 것이 빛 가운데서 들릴 것이다. 당신이 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은 지붕 위에서 외쳐질 것입니다. 4 그러나 나의 친구들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시체를 죽이고 그 후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5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두려워할 자를 보이리니 그가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를 가진 그를 두려워하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를 두려워하여라. 6 참새 다섯 마리를 두 페니에 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잊혀지지 않습니다. 7 그러나 너의 머리털은 모두 세어져 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많은 참새보다 더 큼니다. 8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사람은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자기를 시인하리라. 9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부인을 받을 것이니라. 10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자는 용서를 받을 것이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하리라. 11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그들의 회당에 데리고 들어가서 권세들 앞에, 통치자들 앞에 이르게 하거든, 어떻게 또는
 무엇으로 대답하고 무슨 말을 할 것인지에 대해 걱정하지 말아라. 12 그 때에 성령이 너희를 가르치실
 것임이니, 무슨 말을 할까. 13 백성 중 하나가 그에게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 형제에게 그가 나와 상속
 재산을 나누어 가지고 있다고 말하라 하니 14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이여 누가 나를 너를 재판관이나
 상속자로 삼았느냐? 15 이에 그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주의하고, 모든 탐심을 조심하라. 많은 재물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16 또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밭이 잘 자랐더라. 17 이에 그는 속으로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고
 말하였다. 과일을 딸 곳이 없어요. 18 이에 그가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리니 내가 내 곳간을 허물고 더 큰
 곳간을 세우고 그 안에 내 모든 곡식과 내 소유를 거두리라 19 그리고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기를
 '사랑하는 영혼아, 너는 여러 해 동안 쓸 큰 창고를 가지고 있느니라. 이제 평안을 누리고, 먹고 마시고,
 기뻐하십시오! 20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그대의 영혼이 그대에게
 요구될 것이다. 너희가 준비한 것은 무엇이나? 21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 두고 하느님을 위하여
 부유하지 않은 사람들도 그러하니라. 22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이나 먹을 것이나 네 몸이나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지니라. 23 생명은 음식보다 크고,
 몸은 의복보다 더 중요합니다. 24 까마귀를 보라 그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으며 지하실도
 없고 곳간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신다. 당신은 새들보다 얼마나 더 많은가! 25 너희 중에 누가
 있겠느냐 그가 이미 염려하고 있든지 간에, 누가 자기 생명의 길이를 한 뼘이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26
 당신이 조금도 할 수 없다면, 왜 다른 일에 대해 걱정합니까? 27 백합화를 보아라, 그들이 실을 짓지도
 짜지도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은 그의 모든 영광 중에 그들과 같은 옷을 입지
 않았느니라. 28 하느님께서 오늘 밭에 있는 풀을 입히고 내일 화덕에 던져 넣으신다면, 믿음이 적은
 여러분, 얼마나 더 입히시겠습니까! 29 그러므로 너희도 무엇을 먹어야 하고 무엇을 마실지 묻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30 세상 나라들이 이 모든 것을 구하느니라. 하지만 당신의 아버지는 당신에게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31 그러나 그의 왕국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2 적은 무리야, 두려워하지 마라. 왕국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 너희 아버지의 기쁨이기
 때문이다. 33 네가 가진 것을 팔고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를 위하여 쓸모없게 되지 않는 자루를 만들어라,
 천국에서 결코 줄어들지 않는 보물, 도둑이 오지 않고 좀이 먹지 않는 보물을 만들어라. 34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을 것이다. 35 너희의 허리를 동이고 너희의 촛불을 타게 하라 36 그리고 그들의
 주님이 혼인 잔치에서 떠나실 때에 그들의 주님을 거다리는 사람들처럼 되십시오. 그리하여 그분이
 오셔서 문을 두드리실 때에 그들이 즉시 그분께 열릴 것입니다. 37 주인이 올 때에 깨어 있는 종들은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는 앞치마를 두르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그들에게 와서
 대접할 것이다. 38 또 그가 제2경과 제삼경에 와서 그러함을 발견할 때에는, 이 종들은 복이 있도다. 39
 그러나 이것을 알아두어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에 오는지 안다면, 그는 자기 집에 침입하지 않을
 것이다. 40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되어 있으라. 인자가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시간에 올 것이기
 때문이다. 41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나이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나이까 42 이에 주께서 이르시되, "주께서 그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정한 때에 그들에게
 주시려고 그의 종들 위에 임명하시는 충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는 누구냐?" 43 주인이 올 때에 그렇게
 하는 종은 복이 있도다. 44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그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돌보도록 그를
 임명할 것이다. 45 그러나 그 종이 마음속으로 '내 주인이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면서 종들과 하녀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또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한다면, 46 그 종의 주인이 그가 알지 못하는 날에 올 것이며,
 그가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 그를 토막아 버리고,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그에게 상을 줄 것이다. 47 그러나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은 많은 타격을 받을

것이다. 48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고, 매를 맞을 만한 일을 한 자는 거의 매를 맞지 않을 것이니라. 그분에게는 많은 것이 주어졌고, 그분에게서 많은 것을 구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것을 명령받은 자에게는 많은 것이 요구될 것이다. 49 나는 땅에 불을 피우러 왔노라. 불타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뭘 갖고 싶을까! 50 그러나 나는 먼저 침례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 나는 얼마나 불안하냐! 51 너희는 내가 땅에 평화를 가져오려고 왔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말한다: 아니요, 하지만 불협화음입니다. 52 이제부터 한 집안에 다섯 사람이 서로 다투게 될 것인데, 세 사람은 두 사람이고, 두 사람은 세 사람이다. 53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이 아버지를, 어머니가 딸을, 딸이 어머니를,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할 것이다. 54 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서쪽에서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즉시 '비가 온다' 할 것이다 하리라 그리고 실제로 일이 일어납니다. 55 너는 남풍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뜨거울 것이다' 하고 말하느니라. 그리고 실제로 일이 일어납니다. 56 이 위선자들아! 그대는 땅과 하늘의 모습을 살피는 법을 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떻게 테스트하지 않습니까? 57 그런데 어찌하여 여러분은 무엇이 옳은지 스스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58 네가 네 원수와 함께 행정관 앞에 갈 때에는, 그가 너를 재판관 앞으로 끌고 가고, 재판관이 너를 집행관에게 넘겨주며, 하인이 너를 감옥에 던져 넣지 않도록 그를 제거하려고 길에서 일하라. 59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는 마지막 한 푼을 낼 때까지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13

1 그때에 그들 중에 몇 사람이 그분에게 갈릴리 사람들에게 대해 말하였는데, 그들은 빌라도가 그들의 희생 제물에 그들의 피를 섞었다.

2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죄인인 줄로 생각하느냐 그들이 이 고난을 받았느뇨

3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렇지 아니하노니, 만일 너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너희 모두가 같은 방법으로 멸망할 것이다.

4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그들을 죽인 열여덟 명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백성보다 더 죄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5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렇지 아니하노니, 만일 너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너희 모두가 같은 길로 멸망할 것이다.

6 또 그가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그가 와서 그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였더라. 82

7 이에 예수께서 포도원장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맺으려고 삼 년 동안 매년 왔으나 찾지 못하노라. 그를 잘라 버리십시오! 그는 무엇이 나라를 방해하고 있습니까?"

8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해에는 내가 그를 찾아 거룩하게 할 때까지 그를 남겨 두시고

9 그래도 열매를 맺기 원하시거든 찍어 버리십시오 하시거든 찍어 주십시오

10 또 그가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더라.

11 또 보라, 한 여인이 십팔 년 동안 병든 영을 가졌는데, 그녀는 구부러져 일어설 수 없었더라.

12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여자를 보시고 불러 "여자여 병에서 벗어나십시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13 그가 그 여자에게 손을 얹자, 그 여자는 즉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14 이에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실 것을 분개하여 대답하여 백성에게 이르되 그들이 여섯 일 동안 일해야 하거늘 와서 그들에게 병 고침을 받으라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15 이에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 각자는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를 구유에서 풀어 물 주는 곳으로 가져오지 않느냐?

16 그러면 '사단'이 십팔 년 동안 결박해 있던 '아브라함'의 딸인 이 사람이 안식일에 이 결박에서 풀려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17 이에 그가 이 말을 하자, 그를 미워하던 자들이 모두 부끄러워하였더라. 그리고 모든 백성은 그분이 행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들을 기뻐하였다.

18 이에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와 같으며, 내가 그것을 누구와 비교하리이까?"

19 그것은 마치 겨자씨와 같아서,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동산에 던져 놓자, 그것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 사이에 거하였다.

20 이에 다시 그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와 비교하리요?"

21 그것은 마치 누룩과 같아서, 한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밀가루 세 부셀과 섞어 완전히 누룩이 되었다.

22 또 그는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며 가르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셨더라.

23 한 사람이 그에게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구원을 받는 자가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24 "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많은 사람이 들어갈 방법을 구하려 하지만 능히 얻지 못할 것임이니라.

25 그때부터 그 집의 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을 때, 당신이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우리를 위해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면, 그가 대답하여 당신에게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모릅니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26 그때에 너는 '우리가 당신 앞에서 먹고 마셨고, 당신은 우리 거리에서 가르쳤습니다' 하고 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27 그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니, 너희 모든 행악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리라.

28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나님의 왕국에 있는 모든 예언자를 볼 때에 슬피 울며 이를 깊이 있을 것이나, 너희는 쫓겨날 것이다.

29 그리고 부활절과 서쪽에서, 북쪽과 남쪽에서 그들이 와서 하나님의 왕국의 식탁에 앉을 것이다.

30 또 보라, 그들은 마지막이고, 그들이 먼저 될 것이며, 그들은 처음이고, 마지막일 것이라. 헤롯의 적대감.

31 그 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와서 가로되 헤롯이 너를 죽이려 하니 물러가라 하니

32 이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이 여우에게 이르기를 보라 나는 오늘과 내일 악한 귀신을 쫓아내고 고치며, 셋째 날에 나의 목적지에 이르리라 하시니라

33 그러나 오늘과 내일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나는 여전히 걸어야 하니, 이는 예언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것이 옳지 아니함이니라.

34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너희에게 보내진 자들을 돌로 치는 자들아, 암탉이 자기 날개 아래 둥지를 모으는 것 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너희의 자녀들을 모으고 싶었는지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가!

35 보라, "너희의 집은 황폐하게 버려지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이 있도다' 말할 때가 올 때까지 나를 못할 것임이니라.

14

1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안식일에 바리새인들의 통치자의 집에 와서 빵을 먹으러 가니, 그들이 그를 기다리며 누웠더라. 2 또 보라, 그 전에 수종병인 한 사람이 있었더라. 3 예수께서 대답하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은가 없느냐 4 그러나 그들은 침묵하였다. 그리고 그분은 그를 붙잡아 고쳐 주시고 놓아 주셨다. 5 이르시되 너희 중에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는 자가 누가 있느냐 안식일에 그를 즉시 끌어내지 아니하는 자가 있느냐 6

그들이 대답하지 못하더라. 7 그가 하객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시되 그들이 상당에 앉으려고 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8 너희가 어떤 사람의 혼인 잔치에 초대를 받았거든 머리에 얹지 말라 너보다 더 귀한 자가 그에게 초대받지 못할까 하노라 9 그 후에 너희와 그를 초대 한 자가 오거든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하길, '이것에 양보하라'고 말하라. 그러면 너는 부끄러움을 안고 바닥에 앉아야 한다. 10 그러나 당신이 부름을 받을 때에는 가서 앉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을 초대 한 분이 오실 때에 당신에게 '친구여, 올라가십시오'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너는 너와 함께 식탁에 앉은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11 이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리라.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12 또 자기를 초대 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저녁 식사나 저녁 식사 할 때에 네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초대하지 말라 그들이 다시 너를 초대하여 너에게 상을 주지 않을까 하노라 13 그러나 너희가 음식을 차릴 때에 가난한 사람이나 절름발이, 절름발이, 눈먼 사람을 초대하라 14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니, 그들이 너희에게 보답할 마음이 없음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의인의 부활로 보상을 받을 것이다. 15 식탁에 앉은 자가 이 말을 듣고 가로되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도다 16 예수께서 이르시되 한 사람이 큰 만찬을 차려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더라 17 또 그는 주의 만찬 시간에 그의 종을 보내어 초대받은 자들에게 이르되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오라 하였느니라. 18 그러자 그들 모두가 차례로 사과하기 시작하였다. 첫째가 그에게 말하기를, "나는 밭을 샀으니, 나가서 그것을 보아야 하노라. 실례합니다. 19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나는 황소의 멍에 다섯 개를 샀으니 이제 그들을 보러 가겠노라. 실례합니다. 20 셋째가 가로되 나는 아내를 취하였노라. 그래서 올 수 없어요. 21 그러자 종이 와서 이 일을 다시 주인에게 고하니라. 그러자 주인이 화가 나서 종에게 이르되 속히 성읍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 가난한 자와 절름발이와 눈먼 자와 저는 자를 데려오라 22 이에 그 종이 가로되 주여, 주께서 명하신 것이 이루어지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여전히 여지가 있습니다. 23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큰길과 울타리로 나가 그들을 강권하여 들어오게 하라 그리하면 내 집이 가득 차게 되리라." 24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초대받은 사람 중에 내 만찬을 맛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25 이에 많은 백성이 그와 함께 갔다. 26 "누구든지 내게 와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내와 자녀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겠소." 27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28 그러나 여러분 중에 망대를 세우고 싶어 하면서 먼저 앉아서 그것을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계산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29 그가 기초를 놓았으나 그것을 펴지 못할 때에,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이 그를 조롱하기 시작하지 않고, 30 "이 사람이 건축을 시작하였으니, 그것을 펴지 못하리라" 하고 말하리라. 31 또는 어떤⁸왕이 다른 왕과 싸우기를 원하며, 먼저 앉아서 이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만 명과 맞설 수 있을지 의논하지 않겠느냐? 32 그렇지 않다면, 그분은 아직 멀리 계실 때 평화를 청하는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33 그러므로 여러분 중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34 소금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소금이 약해지면 무엇으로 간을 할 것인가? 35 그것은 땅이나 똥에 아무 소용이 없고, 도리어 버려질 것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15

1 온갖 세금 징수원과 죄인들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분에게 나아왔다. 2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며 가로되 이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서 그들과 함께 먹는도다. 3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르시되 4 너희 중에 양 백 마리를 가진 사람이 누가 있거늘 그 중 하나를 잃어버리거든 아흔아홉 마리를 광야에 버려두고 잃은 자를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5 그가 그것을 찾았을 때, 그는 기쁨으로 그것을 자기 어깨에 메운다. 6 그리고 그는 집에 돌아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았기 때문이다. 7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늘에서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회개할 필요 없는 의인 아흔아홉 명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8 또 어떤 여자가 열 фун을 가지고 있는데 한 닢을 잃어버렸다면, 촛불을

커지 않고 집안을 쓸며 그를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는 여자가 어디 있겠는가? 9 그리고 그 여자는 그를 만나고, 자기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이르되, "나와 함께 즐거워하라. 내가 잃어버렸던 동전을 찾았기 때문이다. 10 이와 같이 나도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는 회개하는 죄인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11 이에 그가 이르되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더라. 12 그 중에 어린 아이가 그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내 소유의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니 그리고 그는 그 재산을 그들과 나누어 가졌습니다. 13 그 후에 얼마 안 되어, 둘째 아들은 모든 것을 모아 그 지방으로 멀리 갔다. 거기서 그는 자기 재산을 사치스럽게 죽였다. 14 그가 자기 것을 다 먹자, 온 나라에 큰 귀여움이 넘쳐 그는 굶어 죽기 시작하고, 15 가서 같은 나라 시민에게 매달렸다. 그는 돼지를 돌보도록 그를 자기 밭으로 보냈다. 16 또 그는 돼지가 먹은 다 쓴 곡식으로 자기 배를 채우기를 원하였더라.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17 이에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말하기를, "내 아버지에게는 얼마나 많은 샅꾼이 있는가 하면, 그들은 빵이 풍성한데, 나는 굶주려 죽어가고 있구나! 18 나는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말하겠습니다. 19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당신의 일용직 노동자 중 한 명으로 만드소서! 20 그리고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 갔다. 그러나 그가 아직 거기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조르고 입을 맞추었다. 21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님, 제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더 이상 당신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22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르되 "속히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그의 손에는 팔찌를 주고, 발에는 신을 주어라. 23 그리고 우리가 살찌운 송아지를 가져와서 잡아라. 먹고 즐거워합시다! 24 이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다. 그는 길을 잃었다가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즐거워하기 시작했다. 25 그러나 맏아들은 밭에 있었다. 그가 집 가까이 이르러 노랫소리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26 하인 중 하나를 불러 그것이 무엇이나고 물었다. 27 그러나 그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형이 왔고 당신의 아버지가 살진 송아지를 잡았으니 이는 그가 건강을 회복하였음이니이다 28 그러자 그는 화가 나서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그의 아버지가 나가서 간청하였다. 29 이에 그가 대답하여 아버지께 이르되, "보라, 내가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주를 섬겼으나, 아직 주의 계명을 범한 적이 없나이다. 그리고 당신은 내 친구들과 즐겁게 놀기 위해 나에게 염소를 준 적이 없습니다. 30 그러나 당신의 이 아들이 오셨는데, 그는 당신의 재산을 매춘부와 함께 탕진하셨는데, 당신은 그를 위해 살진 송아지를 잡아 드셨습니다. 31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이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은 다 네 것이니라 하시니라 32 그러나 너희는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한다. 당신의 이 형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⁶⁵ 잃어버렸다가 찾았습니다.

16 1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청지기를 둔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가 자기 재산을 그에게 탕진하였다고 그 앞에서 고발을 당하였더라

2 그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가 너에게서 무엇을 듣느냐 하니 당신의 가정을 고려하십시오! 너는 이제부터 청지기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3 청지기는 속으로 "내가 어찌하리이까?" 하고 말하였다. 나의 주인은 내게서 직분을 빼앗아 가신다. 파낼 수도 없고, 구걸하는 것도 부끄럽다.

4 나는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잘 알고 있으므로, 내가 사무실에서 물러날 때 그들이 나를 자기들의 집으로 데려갈 것이다.

5 또 그가 자기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 각각 따로 불러 첫째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하니

6 그분은 "기름 백 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빚 청구서를 가지고 앉으셔서, 급히 오십 달러를 쓰십시오."

7 그리고 나서 그분은 다른 사람에게 "그런데 당신, 얼마나 빛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는 "밀 백 부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그에게 말하기를 "네 편지를 가지고 팔십을 쓰라."

8 또 주께서는 그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동하였다고 칭찬하셨으니, 이는 이 세상의 자녀들이 광명의 자녀들보다 서로 더 지혜롭음이라.

9 그리고 나는 또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불의한 재물과 친구가 되라, 그리하면 그것이 완성될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장막에 받아들이게 되리라. 10

지극히 작은 자에게 충실한 자는 큰 자에게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릇된 자는 큰 자에게도 그릇된 자니라.

11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게 충실하지 않다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선을 맡기겠는가?

12 너희가 낯선 사람에게 충실하지 않다면, 누가 우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13 종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한 주인을 고집하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기겠느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다.

14 바리새인들은 이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돈에 욕심이 많았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15 이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사람 앞에 자신을 의롭게 내세우는 자는 너희이지만, 하나님은 너희 마음을 아시나니, 이는 사람들 중에 높은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임이니라.

16 율법과 예언서가 요한에게까지 미친다.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모든 사람이 힘으로 그 복음 안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17 그러나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것이 율법의 티끌 하나라도 떨어지는 것보다 더 쉽다.

18 누구든지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사람은 간음하는 것이고, 자기 남편과 이혼하는 사람은 간음하는 것입니다.

19 그런데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보배포로 자신을 입고 날마다 영광과 기쁨 가운데 살았습니다.

20 그런데 나사로라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종기로 가득 문 앞에 누워 있었는데,

21 그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만족하기를 원하니, 개들이 와서 그의 종기를 핏냈다.

22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 가난한 사람은 죽었고,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더라. 그러나 그 부자도 죽어 묻혔습니다.

23 그분이 죽은 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고통스러워하실 때 눈을 들어 보시니, 멀리서 아브라함과 그의 태중에 있는 나사로를 보셨다.

24 그가 부르짖어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사로를 보내어 그의 손가락 끝을 물에 담그고 내 혀를 시원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사오니

25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이 너는 네 생애에서 선을 받았으나 나사로는 악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 을 받고 있느니라.

26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우리와 여러분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나니, 여기서 너희에게로 건너오고자 하는 자들은 건너갈 수 없었고, 거기서 우리에게로 건너오려는 자들도 건너갈 수 없었느니라.

27 그리고 나서 그가 이르되 아버지여 청하오니 그를 내 아버지의 집으로 보내 주십시오.

28 내게는 형제가 다섯 명 더 있으니, 이는 그가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도 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29 아브라함이 말하길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사오니 그들이 그들의 말을 듣게 하라 하더라

30 그러나 그가 가로되 아니요, 조상 아브라함이여 그러나 죽은 자 중에 하나가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회개하리라 하더라

31 그가 그에게 이르되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도 믿지 아니하리라

17

1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걸림돌이 오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도다 도리어 그것들을 통과하는 그에게는 화가 있느니라. 2 연자 맷돌을 자기 목에 달아 바다에 던지는 것이 이 작은 이들 중 하나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보다 나으리라. 3 조심하세요! 네 형제가 죄를 지으면 그를 책망하여라. 그가 회개하면 용서하십시오. 4 그가 하루에 일곱 번씩 너희에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너희에게 돌아와 '미안합니다!' 하고 말한다면! 그러니 너는 그를 용서할지니라. 5 이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의 신앙을 증가시키소서 6 이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뽕나무에게 이르기를 너 자신을 찢어 바다에 던져라 할지라도 말하거든 그래서 그는 당신에게 순종할 것입니다. 7 여러분 중에 발을 갈거나 가축을 먹일 하인이 있는 사람이 밭에서 돌아올 때에 그에게 '즉시 와서 식탁에 앉으시오?'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8 오히려 그분이 그에게 "내가 먹는 것을 저녁 식사로 준비하고, 당신의 앞치마를 두르고, 내가 먹고 마실 때까지 나를 섬기십시오. 그 후에 너희도 먹고 마실 것이냐? 9 그는 또한 명령받은 일을 한 중에게 감사합니까? 10 당신도 그러합니다! 너희가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중들이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11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는 동안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여행하셨더라. 12 예수께서 한 마을에 이르시매 열 명의 나병 환자가 그를 맞았는데, 그들은 멀리서 서서 13 목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여 여보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니 14 또 그들이 보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들이 가면서 그들이 깨끗해졌더라. 15 그런데 그들 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음을 받은 것을 보고 돌아서서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고, 16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17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중 열 명은 깨끗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러나 그 아홉은 어디에 있는가? 18 이 낮은 사람 외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사람이 없었습니까? 19 이에 그가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20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리이까?" 하고 묻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눈으로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오지 아니하니라. 21 그들은 '보아라, 여기라!' 하고 말하지도 않을 것이다. 또는: 저기! 이는 보라,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 가운데 있음이니라. 22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의 날 중 하나를 보고자 할 때가 이르리니 그를 못하리라. 23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되 보라! 보라, 예키! 가거나 따라가지 마십시오. 24 이는 번개가 위로 하늘에서 번쩍이며 하늘 아래 있는 모든 것을 비취음 같이, 인자의 날에도 그러하리라. 25 그러나 그는 먼저 많은 고난을 받고 이 세대에게 버림을 받아야 하느니라. 26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날에도 그러하리니 27 그들이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결혼하고 결혼하여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홍수가 나서 그들 모두를 멸망시켰더라 28 이와 같이 룻의 날에 일어났던 것처럼: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지었다. 29 그러나 룻이 소돔을 떠나던 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처럼 내려와 그들 모두를 죽였다. 30 인자가 나타나 있는 날에도 그러할 것입니다. 31 같은 날에, 지붕 위에 있고 집안에 집안 물건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아야 한다. 이와 같이 밭에 있는 사람도 뒤에 있는 것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32 룻의 아내를 기억하십시오. 33 누구든지 자기 영혼을 보존하고자 하면 그것을 잃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녀를 잃는 사람은 그녀가 살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34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밤에 두 사람이 한 침대에 누울 것이다. 하나는 받아들여지고 다른 하나는 거부될 것입니다. 35 둘이 서로 갈리라. 하나는 받아들여지고 다른 하나는 거부될 것입니다. 36 둘은 밭에 있을 것이니 하나는 받아들여지고 다른 하나는 버려질 것이다.

37 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 있나이까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여 있느니라

18

1 또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시되 사람은 항상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라

하셨고 2 이르시되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재판관이 있더니 그 사람은 아무도 무서워하지 아니하더라

3 그런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가 그에게 와서 말하기를 "내 대적 앞에서 나를 공의로 증명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4 그리고 그는 오랫동안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후에 그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어떤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지만,

5 이 과부가 나를 너무 괴롭혔으므로 내가 공의를 행하리니, 그가 마침내 와서 내게 무슨 일을 하지 못하게 하리라."

6 그러자 주님께서 "여기서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 하느님께서 밤낮으로 그분께 부르짖는 자기의 택하신 자들에게도 공의를 주시지 않 겠느냐?

8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그분은 곧 그들의 공의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너희는 그가 이 땅에서 신앙을 발견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9 또 그는 주제넘게 의롭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어떤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 다:

10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다른 하나는 세금 징수원이었더라.

11 바리새인은 서서 "오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이나 강도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나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 하나이다.

12 나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먹는 모든 것의 십분의 일을 바칩니다.

13 세리는 멀찍이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려 하지 않고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라

14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이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갔지, 그것이 아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임이니라.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15 그들은 또한 어린아이들을 그분에게 데리고 와서 만지게 하였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16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자녀들을 내게로 오게 하고 막지 말지마하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17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리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18 한 관원이 그에게 여쭙어 가로되 좋으신 주여,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상속받으리이까

19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어찌하여 나를 인정하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선택하지 않습니다.

20 너희는 계명을 알고 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할지니라."

21 이에 그가 이르되 "내가 이 모든 것을 내 어려서부터 간직하였노라."

22 예수께서는 이 말을 듣고 그에게 "너에게 아직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다.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천국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러니 와서 나를 따르라.

23 그는 이 말을 듣고 슬펐는데, 그가 매우 부자였음이라.

24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를 바라보시며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어찌 그리 어찌 그리

어려운가!

- 25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26 이에 이 말을 들은 자들이 가로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더라
27 그러나 그는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28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보라,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29 이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는 자는 아무도 없나니
30 이세에 여러 가지로 다시 그것을 받지 아니하고 오는 세상에서의 영생을 얻지 못하느니라.
31 이에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고 가라사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니 인자의 선지자들이 기록한 모든 것이 완성되리라."
32 이는 그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이요, 그는 조롱과 모욕을 받고 침 뱉음을 받을 것임이니,
33 그들이 그를 채찍질하여 죽일 것이요,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살아날 것임이니라.
34 그러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고, 그 말이 그들에게 감추어졌으므로 무슨 말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더라.
35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여리고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더라.
36 그러나 그분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무엇이냐고 물으셨다.
37 그러고 나서 그들은 그분에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고 알렸다.
38 그가 부르짖어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39 그러나 앞장서서 가던 사람들은 그분에게 잠잠하라고 위협하였다. 그러나 그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훨씬 더 부르짖었습니다.
40 그러나 예수께서는 가만히 서서 그를 자기에게로 데려오라고 명하셨다. 그들이 그분을 가까이 데리고 오시자, 그분은 그에게 물었다.
41)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는 "주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42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하시니라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43 그러자 그는 즉시 그를 보고 따라가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이 일들을 본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찬양했다.

89

19 그리고 그는 들어가서 여리고를 지나갔더라. 2 또 보라, 삭개오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세금 징수원들의 통치자요, 부자였더라. 3 또 그가 자기가 누구인지 예수를 보기 원하였으나 사람 앞에서 볼 수 없었나니 이는 그가 몸이 작았음이라. 4 그는 앞서 달려가 뽕나무에 올라가 그가 그를 볼 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는 거기서 통과해야 했기 때문이다. 5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시며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나는 오늘 당신의 집에 들러야 합니다. 6 이에 그가 급히 내려와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였더라. 7 그들이 이것을 보고 모두 수군거리며 "그가 죄인에게 왔도다" 하고 말하였다. 8 삭개오가 주 앞에 나아와 가로되 주여 내 소유의 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노라 내가 누구를 속였거든 네 배로 갚으리라 9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10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11 그들이 듣고 있을 때에 예수도 비유를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가 예루살렘에 가까웠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즉시 나타날 줄 알았으므로 12 이르시되 한 귀한 사람이 나라를 얻고 돌아오려고 먼 땅으로 갔느니라 하시니라 13 그가 자기 종 열 명을 보내어 십 파운드를 주며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들과 거래하되 14 그러나 그의 백성들은 그를 적대시하고 그를 쫓아다니며 "우리는 그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15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왕국을 얻은 후에 다시 오셨을 때, 그가 돈을 준 바로 그 종들을 불러 그들이 각자가 무엇을 위하여 흥정하였는지를 알게 하려 하셨더라. 16 그때에 첫 번째 사람이 와서 "주여, 당신의 파운드가 십 파운드를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17 이에 그가 그에게 이르되, "오, 경건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도 충실하였은즉 열 도시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리라." 18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의 파운드가 5파운드를 났습니다 19 또 이르시되 너는 다섯 도시를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20 이에 셋째도 와서 이르되, "주여, 보라, 여기 내가 손수건에 간직한 당신의 파운드가 있나이다. 21 나는 너를 무서워하였으니, 너는 완악한 사람이라. 그대는 내려놓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다. 22 그가 그에게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입으로 너를 판단하리라 내가 완악한 사람이니, 내가 내려놓지 않은 것을 취하고 내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느냐? 23 어찌하여 내 돈을 환어음에 넣지 않았느냐? 그리고 만일 내가 왔더라면, 나는 이자를 가지고 그것을 요구했을 것이다. 24 그가 곁에서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에게서 파운드를 빼앗아 열 파운드 가진 자에게 주라 하시니라 25 그들이 가로되 주여 그는 벌써 열 파운드를 가지고 있사오니 하니 26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가진 자에게는 그것이 주어질 것이다. 그러나 가지지 못한 자에게서는 그가 가진 것조차 빼앗길 것이다. 27 그러나 내가 자기들 위에 다스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 나의 원수들은 그들을 이리로 데려와 내 앞에서 죽여라. 28 이에 그가 이 말을 하고 나서 나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라. 29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러 감람산이라 하는 산에 이르시고, 30 두 명을 그의 제자들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맞은편 곳으로 가라사대 맞은편으로 가라. 그리고 당신이 들어갈 때, 당신은 아무도 전에 앉아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 것을 볼 것입니다. 풀어서 이리로 가져오세요! 31 누가 왜 그것을 풀고 있느냐고 묻거든 '주께서 그를 필요로 하시네' 하고 말하십시오. 32 보냄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가 그들에게 말한 대로 그것을 찾았더라. 33 그들이 나귀 새끼를 풀어 주었을 때에 그의 상인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풀어 주느냐 34 그러나 그들은 "주께서 그를 필요로 하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35 그들이 그것을 예수께 가져와서 자기들의 옷을 나귀 새끼에게 던지고 예수를 그 위에 놓으니라 36 그래서 그분이 가시자, 그들은 길에 자기들의 옷을 펼쳐 놓았다. 37 예수께서 이미 감람산 비탈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제자들의 모든 무리가 자기들이 본 모든 행위로 인하여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더니, 38 이르되 왕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되도다 하늘에는 평화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을 누리며! 39 백성 중에 99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주의 제자들을 대적하소서 하니 40 그가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그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부르짖으리라 41 그가 가까이 와서 그 도시를 바라보고 울며 42 이르되 너도 이 때에 너의 평화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더라 그러나 이제 그것은 당신의 눈에서 숨겨져 있습니다. 43 너희의 원수들이 너희와 너희 자녀들 둘레에 성벽을 세우고 너희를 에워싸며 사방에서 너희를 두려워하게 할 날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44 또 그들이 너희를 갈아 죽이며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두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가 괴로움을 당하는 때를 알지 못함이니라. 45 또 그는 성전에 들어가 파는 자들을 쫓아내기 시작하였고, 46 그들에게 이르되 기록되었으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는 그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47 또 그는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치셨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 가운데 가장 고귀한 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48 어떻게 해야 할지 찾지 못하였다. 모든 백성이 그분에게 매달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다.

2 이르시되 우리에게 말해 주느냐 너는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느냐 하니

3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도 너희에게 한 마디 묻겠으니 내게 말해 보라

4 요한의 침례는 하늘에서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난 것이냐

5 그러나 그들은 속으로 생각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하늘에서 말하거든 그는 '너희가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 하고 말할 것이다.

6 그러나 우리가 사람에게 대하여 말하면, 모든 백성이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니, 이는 그들이 요한이 예언자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7 그러자 그들은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8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노라

9 그가 백성에게 이 비유를 말하기 시작되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심어 포도원에게 임대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시골을 떠났다.

10 또 그의 때에 그는 포도원 경작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그들이 포도원의 열매 중 얼마를 그에게 주게 하였더라. 그러나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사람들은 그를 때리고 그를 공허하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11 또 다른 종을 보내시되 저희도 역시 그를 때리고 조롱하며 그를 비워 두었더라

12 그가 세 번째 사람을 보냈는데, 그들이 역시 그를 피투성이로 때리고 쫓아냈다.

13 포도원의 주인이 가로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낼 것이다. 그들은 그것을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14 포도나무 농사꾼들이 그 아들을 보고 속으로 생각하여 이르되 이것이 상속 재산이니 와서 우리가 그를 죽이자 그 기업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노라 하더라

15 그들이 그를 포도원 밖으로 밀어내고 죽였다. 포도원의 주인은 그들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

16 그가 와서 이 포도나무 기르는 자들을 죽이고 자기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가로되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라!"

17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시편 118:22)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잇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무엇이나

18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산산조각이 나고,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서질 것이다.

19 이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바로 그 시간에 예수께 손을 얹으려 하였고, 백성들이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신 줄을 그들이 이해하였음이라.

20 이에 그들이 그를 뒤쫓으며, 경건한 체하도록 사람들을 보내어, 그가 말하는 것을 붙잡아 총독의 권세와 권세에 넘겨주려 하였더라.

21 그들이 여쭈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알거니와 선생님은 진실하게 말씀하시며 가르치시며 어떤 사람의 권위도 존중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하나님의 도를 바르게 가르치시는 줄을 아노라

22 우리가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 그렇지 않은가?

23 그러나 그분은 그들의 간계를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24 나에게 동전을 보여 주십시오. 그는 어떤 그림과 비문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카이사르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5 이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이사^의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26 그들이 백성 앞에서 하는 말씀에 그를 억제할 수 없었고, 그의 대답에 놀라 잠잠하더라.

27 그때에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 중 몇 사람이 예수께 나아와 여쭈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편지하여 가로되 아내가 있는 형제가 죽었는데 자식이 없거든 그 형제가 아내를 취하고 그 형제의 자손을 일으키게 하십시오."

29 그런데 일곱 형제가 있었다. 첫 번째는 아내를 취하고 자식이 없이 죽었다.

30 둘째 사람은 31

셋째 사람 곧 일곱 명 모두를 취하니 자식이 없고 죽었더라

32 마침내,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33 이제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일곱 명 모두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34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결혼하여 결혼하느니라.

35 그러나 그 세상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들은 결혼하지도 않고 결혼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36 이는 그들이 다시는 죽지 못함이니, 이는 그들이 천사 같고 하나님의 자녀임이니, 이는 그들이 부활의 자녀임이니라.

37 그러나 '모세'는 또한 자기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우시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떨기나무에서 살아날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38 그러나 하느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느님이 아니요 산 사람들의 하느님이니, 이는 그들이 모두 그분을 위하여 살아 있기 때문이다.

39 이에 서기관들 중 몇몇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 당신의 말이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0 그들이 감히 더 이상 그에게 묻지 못하더라.

41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 말하느냐 하더라

42 그 자신 다윗은 시편에서 (시편 110:1)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 우편에 앉으라

43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리라"고 말합니다.

44 그러므로 다윗은 그를 주인이라고 부르는데, 그가 어찌 그의 아들이냐?

45 그러나 모든 백성이 듣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46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며 장터에서 환영받기를 기뻐하며 회당의 머리맡과 식탁에 앉기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47 그들은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외모를 위하여 긴 기도를 드린다. 그들은 더욱 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21

1 그가 위를 바라보니, 부자들이 그들의 희생 제물을 하나님의 가슴에 넣고 있었다.

2 또 그는 두 렵돈을 넣는 가난한 과부를 보았다.

3 이에 그가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넣었느니라.

4 이 사람들은 다 자기의 풍족한 가운데서 희생 제물을 바치려고 넣었거늘, 그 여자는 자기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모든 것을 넣었느니라.

5 또 어떤 사람들이 성전이 고운 돌과 보석으로 단장되었다고 말하자, 그가 말하기를,

6 너희가 보는 모든 것 중에서 한 돌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않을 때가 올 것이라.

7 그들이 여쭙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언제 이런 일이 일어오까 하고 물었더니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무슨 징조가 있느냐?

8 그러나 그가 말하기를, "주의하라, 속지 말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다' 하고 '때가 이르렀다' 할 것이다. - 그들을 따르지 마십시오!

9 그러나 전쟁과 반역에 관한 소식을 듣거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끝이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10 이르시되 백성이 나라를 대적하며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리라

11 큰 지진과 전염병과 값비싼 시간과 무서움과 하늘로부터 오는 큰 표적이 있으리라
 12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있기 전에 그들이 너희에게 손을 얹고 너희를 핍박할 것이요, 너희를 자기들의 회당과 감옥에 넘겨 줄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왕들과 방백들 앞에 갈 것이니라.
 13 이것은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14 그러므로 여러분이 스스로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15 내가 너희에게 입과 지혜를 주리니, 너희의 모든 적대자가 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을 것이다.
 16 그러나 너희의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이 너희를 넘겨줄 것이며, 그들이 너희 중 일부를 죽일 것이다.
 17 너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18 너의 머리털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19 당신이 꾸준히 노력한다면, 당신은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20 그러나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포위된 것을 보거든, 그 황폐가 이르렀음을 알아라.
 21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하고, 도시에 있는 자는 나가고, 시골에 있는 자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22 이는 이 때가 징벌의 날임이니, 이는 기록된 것이 다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23 그러나 그 날에 임신하고 수유하는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는 땅에 큰 고난이 있을 것이며, 이 백성에 대한 분노 가 있을 것임이니,
 24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민족 가운데서 사로잡혀 갈 것이며,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발에 짓밟힐 것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될 것이다.
 25 또 해와 달과 별들과 땅에서 백성들이 두려워하며 두려워하리니, 이는 바다와 물의 물결이 울부짖을 것임이요,
 26 사람들이 두려움과 온 땅에 임할 일들을 기대함으로 기절할 것임이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도 또한 흔들릴 것임이니라.
 27 그러고 나서 그들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28 그러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너희의 구속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 고개를 들고 고개를 들라.
 29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30 지금 싹이 나고 너희가 그것을 보면 너희가 여름이 가까웠음을 알 거든
 31 이와 같이 여러분도 이 모든 일이 다가오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음을 알아라.
 32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33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 내 말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34 그러나 먹고 마시는 것과 음식에 대한 염려로 너희 마음이 짓눌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 날이 올무처럼 속히 너희에게 닥치지 않도록 주의하라.
 35 이는 그가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갑자기 임할 것임이니라.
 36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으면서 너희가 힘을 얻어 장차 일어나려는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라.
 37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서 감람산이라 하는 산에서 밤을 지내셨더라.
 38 이에 모든 백성이 성전에서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일찍 그분께 갔더라.

22

1 그리고 부활절이라 일컫는 무교절이 가까웠더라. 2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백성을 무서워하여 예수를 죽이려 하였더라. 3 또 사단이 열두 제자의 수인 가룟이라 하는 유다에게 들어갔더라. 4 이에 예수께서 가서 대제사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말씀하시되 그는 얼마나 그를 그들에게 넘겨주고 싶었는지. 5 그들이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했다. 6 그가 승낙하고 아무

소리 없이 그를 넘겨 줄 기회를 찾았더라 7 그 때에 누룩 없는 빵의 날이 이르렀고, 그 날에 유월절 어린양이 희생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8 또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어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준비하여 우리가 먹게 하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9 그러나 그들이 그분에게 "우리가 그것을 어디에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10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성에 들어갈 때에, 너는 물 주전자를 들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라. 그분을 따라 그분이 들어가는 집으로 들어가시고, 11 그 집의 주인에게 말하기를, '주님께서 당신에게 전갈을 보내셨다.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양을 먹을 수 있는 방이 어디입니까?' 하고 말하십시오. 12 그가 방석이 있는 큰 방을 보여 줄 것이다. 거기에서 준비합니다. 13 그들이 가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발견하고 유월절 양을 준비하였더라 14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앉으시고 사도들도 그와 함께 앉았더라. 15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양을 먹기를 간절히 원하였노라." 16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왕국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다시는 그것을 먹지 아니하리라. 17 이에 그가 그 잔을 가지사 감사를 드리며 이르되 그것을 가져다가 너희에게 나누어 가지라. 18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의 열매를 마시지 않겠다. 19 이에 그가 떡을 가지사 감사 드리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나를 기억하여 그렇게 하여라. 20 그분은 식사 후에 잔을 가지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21 그러나 보라, 나를 배반하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식탁 위에 있느니라. 22 인자는 규명된 대로 간다. 그러나 그가 배반당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23 이에 그들이 자기들끼리 묻기 시작하더라. 24 그들 사이에도 다툼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 가운데서 가장 큰 것으로 여겨져야 했다. 25 이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열국의 왕들이 다스리며, 그들의 용사들은 자비의 주들이라 일컬음을 받느니라." 26 그러나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가장 큰 자는 가장 어린 자와 같고, 가장 고귀한 자는 종과 같을 것이다. 27 식탁에 앉는 자와 섬기는 자 중 누가 더 크냐? 식탁에 앉으신 분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종으로서 너희 가운데 있다. 28 그러나 나의 시련 중에 나와 함께 인내한 이는 당신들입니다. 29 내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왕국을 너희에게 주리니 30 너희가 내 왕국의 내 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왕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재판하게 하리라 31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 까부르려고 너를 원하였느니라. 32 그러나 나는 너희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라. 그리고 당신이 개종할 때, 당신의 형제들을 강화하십시오. 33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여 나는 주와 함께 옥에 갇히고 죽으러 가기를 각오하노라 34 이에 그가 이르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네가 나를 안다는 것을 세 번 부인하기 전에는 오늘 울지 아니하리라." 35 이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자루도 없고, 자루도 없고, 신발도 없이 보낼 때마다, 너희에게 부족함이 있었느냐? 그들은 "절대로요"라고 대답했습니다. 36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돈주머니 있는 사람은 그것을 가져가고 자루도 가져가고, 없는 사람은 자기 겹옷을 팔아 검을 사라." 37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것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야 하리라. 내가 기록한 것도 완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38 이에 그들이 이르되, "주여, 보라, 여기 두 검이 있나이다. 그리고 그분은 그들에게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셨다. 39 그리고 그는 그의 관습대로 올리브 산으로 갔더라.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은 그분을 따랐다. 40 이에 이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41 이에 그분은 그들에게서 돌을 던지실 만한 거리를 찢으시고 무릎을 꿇으시고 42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원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43 이에 하늘로부터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그에게 힘을 주었다. 44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는 죽음과 싸우며 더욱 간절히 기도하였더라. 그러나 그의 땀은 땅에 떨어진 핏방울처럼 되었다. 45 예수께서 기도하시기를 일어나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들이 슬픔으로 잠들어 있는 것을 보시고, 46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자고 있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십시오. 47 그러나 그분이 아직 말씀하고 있을 때에, 일행이 왔다. 열두 제자 중의 한 사람, 유다라는 사람이 그들 앞으로 나아가 예수께 가까이 와서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 48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버리느냐 하시니라 49 그러나 그분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말하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50 그 중 하나가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잘라 버렸다. 51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여 "멈추십시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귀를 만져 고쳐 주셨습니다. 52 예수께서 성전의 대제사장들과 백부장들과 자기에게 나아오는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살인자를 대하듯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갔도다. 53 나는 매일 너희와 함께 성전에서 지냈는데, 너희는 내게 손을 얹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의 시간이며 어둠의 권세이다. 54 그러나 그들이 그를 붙잡아 데리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려갔더라. 그러나 베드로는 멀리서 따라왔습니다. 55 그래서 그들은 뜰 한가운데서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다. 베드로는 그들 가운데 앉았다. 56 그때에 한 여종이 그가 불 곁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자세히 보더니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더라 57 그분은 부인하시며 "여자여,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58 잠시 후에 다른 사람이 그를 보고 가로되 당신도 그들 중 하나이니라 하더라 그러나 베드로는 "사람아, 내가 아니니라"고 말하였다. 59 그리고 잠시 후에, 한 시간 후에 다른 사람이 그것을 확증하여 이르되, "진실로 이 사람이 그와 함께 있었도다. 그는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이다. 60 그러나 베드로는 "이 사람이여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그가 여전히 말을 하자마자 까마귀가 울부짖었다. 61 이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바라보시니라. 베드로는 "오늘 까마귀 앞에서 네가 세 번이나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였다. 62 베드로가 나가서 몹시 울었더라. 63 그러나 예수를 붙잡은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고 때리고, 64 예수를 덮고 묻기를 "예언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물었다. 65 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다른 많은 신성 모독을 말하더라 66 날이 밝을 때에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함께 모여 그분을 그들의 공회 앞으로 데리고 나가 67 이르되 당신이 그리스도이시까 우리에게 말씀하시오니 하니 "내가 너희에게 말하면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68 그러나 내가 물어도 너희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69 그러나 이제부터 인자는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편에 앉을 것이다. 70 그러자 그들이 다 가로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시더냐 그분은 그들에게 "너희가 말하니 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1 그러나 그들이 말하길 "어찌하여 우리에게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뇨?" 우리는 그분의 입에서 직접 들었습니다.

95

23

1 모든 무리가 일어나 그분을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가고, 2 그를 고발하여 가로되 우리가 만나거든 이 사람은 우리 백성을 돌아서게 하며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지 않고 자기가 그리스도 왕이라 말하거늘 하거든." 3 빌라도가 여쭙어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니 그는 그에게 대답하여 "당신이 그렇게 말하십니다"라고 말했습니다. 4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에게 "나는 이 사람에게서 결점을 찾지 못하노라. 5 그러나 그들은 더욱 성급해져서 말하기를 "그는 유대 온 땅을 두루 다니며 가르치사 백성을 충동시키시며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여기까지 이르렀도다" 6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그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냐고 물었다. 7 그가 헤롯의 권세에 속해 있다는 말을 듣고, 그를 헤롯에게 보냈는데, 헤롯은 그 날에 역시 예루살렘에 있었더라. 8 그러나 헤롯은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그는 오래 전에 그를 보고 싶었을 것이다. 그는 그에 대해 들었고, 그에게서 표적을 볼 수 있기를 바랐다. 9 그리고 그는 그에게 많은 것을 물었다. 그러나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10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곁에 서서 그분을 심하게 비난했다. 11 그러나 헤로데와 그의 신하들은 그분을 멸시하고 조롱하며 흰 옷을 입히고 빌라도에게 돌려보냈다. 12 그 날에 빌라도와 헤로드는 서로 친구가 되었다. 이전에는 서로의 적이었기 때문입니다. 13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통치자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14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이 이 사람을 내게로 데려오셨으니 이는 백성을 돌려보내는
 자로소 여기셨나이다. 또 보라, 내가 네 앞에서 그를 조사하였으나, 네가 그를 비난하는 것을 그
 사람에게서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노라. 15 헤롯도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가 그를 우리에게
 돌려보냈음이라. 또 보라, 그는 죽어 마땅한 일을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6 그래서 나는 그를
 형벌하고 풀어 주겠다. 17 18 그러자 모든 무리가 소리치며 "이 사람을 버리고 우리를 바라바를 놓아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19 그는 그 도시에서 일어난 폭동과 살인 죄로 감옥에 갇혔다. 20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 주려고 다시 그들을 불렀다. 21 그러나 그들이 부르짖어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소서 하더라 22 또 세 번째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사람이 무슨 악을
 행하였나이까 나는 그에게서 죽어 마땅한 것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그를 형벌하고
 놓아 주겠다. 23 그러나 그들은 큰 소리로 그분을 공격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비명은 견잡을 수 없게 되었다. 24 빌라도는 그들의 청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25 선동과
 살인을 위하여 감옥에 갇힌 그를 놓아 주었는데, 그들이 청한 자요. 그러나 그분은 예수를 그들의 뜻에
 맡기셨습니다. 26 그들이 예수를 데리고 가다가 그 중 한 사람 곧 들에서 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
 십자가를 그 위에 얹고 예수를 꾸짖게 하려 하더라 27 그 뒤를 따라 큰 무리와 여자들이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울며 그를 따랐더라. 28 예수께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오직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29 이는 보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와 낳지 못한 몸과
 먹이지 않은 젖 속에 복이 있도다'라고 말할 때가 이르리라. 30 그때에 그들은 산들에게 '우리에게
 넘어지라' 말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언덕으로: 우리를 덮으소서! 31 푸른 나무에 이런 일이 행해지면,
 무엇이 시든 나무가 되겠습니까? 32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으니 곧 두 행악자가 그와 함께 제거되려고
 끌려갔더라. 33 그들이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행악자들도 그와
 함께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있더라. 34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분의 옷을 나누고 그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다. 35 그러자 백성이 서서 지켜보았다. 통치자들도 조롱하며 말하기를, "그는 다른
 사람들을 도왔도다. 그가 스스로 돕게 하라, 그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택하신 자이다. 36 군인들도
 그분을 조롱하고 그분에게 와서 식초를 가져오며 37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 자신을
 구원하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38 그리고 그 위에는 또한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글이 새겨져
 있었다. 39 그러나 교수형에 처해진 자의 행악자는 그를 모독하며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말하였다. 여러분과 우리를 도와주세요! 40 다른 사람이 대답하여 꾸짖어 가로되 너는 같은 정죄 중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41 그리고 우리가 이 안에 있는 것은 옳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의 행위의 가치를 받음이니라. 그러나 그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 42 그가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시니라 43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44 또 벌써 제육시쯤 되었으나, 제 구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드리웠으며,
 45 태양은 빛을 잃었고, 성전의 휘장이 둘로 찢어졌더라. 46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노라 하시니라 그가 이 말을 하고 나서 그는 죽었다.
 47 백부장은 그 일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사람은 확실히 의로운 사람이었도다" 하고 말하였다. 48
 거기 있으면서 지켜보던 모든 백성이 일어나는 일을 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섰다. 49 그의 친지들은 다
 멀리 섰고 여자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그분을 따랐고, 이 모든 것을 보았더라. 50 또 보라, 조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선하고 경건한 사람이었으나, 51 그들의 권고와 거래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유대인의 도시인 아리마대 출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52 그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청하고, 53 시체를 벗어 아마포로 싸서 아무도 누운 적이 없는 깎아 만든
 무덤에 누웠다. 54 그 날은 예비하는 날이요, 안식일이 밝아오니라. 55 갈릴리에서 그와 함께 온 여자들이

따라와서 무덤과 그의 시체가 어떻게 뉘어져 있는지 살펴보니라. 56 그러나 그들은 돌이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였다. 안식일 내내 그들은 율법에 따라 침묵하였다.

24

1 그러나 그 주의 첫날, 아주 일찍 그들은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이르렀다. 2 그들이 무덤에서 굴러 떨어진 돌을 발견하고 3 들어가 예수 여호와의 시체를 찾지 못하더라 4 또 그들이 이 일을 염려하고 있을 때에, 보라,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에게 왔더라. 5 이에 그들이 무서워하여 그들의 얼굴을 땅에 엮드렸더라. 그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를 찾느냐? 6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아직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7 "인자는 반드시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 8 그리고 그들은 그의 말을 기억하였다. 9 이에 그들이 다시 무덤에서 내려와 이 모든 것을 열한 제자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니라. 10 막달라 마리아와 요안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들과 함께한 다른 사람들이 이 일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11 이에 이 말씀이 그들에게 마치 동화처럼 보였으나,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아니하였더라. 12 베드로가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 세마포만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하며 가버렸다. 13 또 보라, 같은 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걸어서 두 시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갔더라. 그 이름은 엠마오입니다. 14 그리고 그들은 이 모든 이야기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15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친히 가까이 오셔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더라. 16 그러나 그들의 눈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17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길에 서로 행하는 이 말이 무엇이나 하시니라 거기서 그들은 슬프게도 멈춰 섰다. 18 그 중 한 사람 곧 글로바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루살렘에 있는 외인 중에 당신이 혼자입니까 요즈음에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나이까 19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무엇이냐? 그들이 예수에게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이요 그는 선지자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행동에 능한 자요. 20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통치자들이 그분을 죽음의 단죄에 넘겨 주고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와 같습니다. 21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분이기를 바랐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은 그런 일들이 일어난 지 3일째 되는 날입니다. 22 우리는 또한 우리 가운데서 온 몇몇 여자들 때문에 겁을 먹었다. 23 그의 시체를 찾지 못하였으니, 와서 그가 살아 있다고 말하는 천사들의 환영을 보았다고 말하더라 24 우리 중 몇몇이 무덤에 가서 그 여인들이 말한 대로 그것을 발견하였더라. 그러나 그들은 그를 못하였다. 25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어리석고 마음이 게으른 자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나니라! 26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겪으시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셔야 하지 않았습니까? 27 또 그분은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과 함께 시작하시고, 그 안에 있는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온 성경에서 그들에게 설명하시니, 28 그들이 그들이 가는 곳에 가까이 이르렀더라. 그리고 그는 계속하는 척했다. 29 이에 그들이 그를 강요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저녁이 다가오고 날이 밝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분은 그들과 함께 머물러 가셨다. 30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계실 때에, 그가 떡을 가지사 감사 드리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라. 31 이에 그들의 눈이 열리고 그들이 그를 알게 되었더라.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서 사라졌다. 32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가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가 성경을 우리에게 펴 주었을 때에 우리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33 그 시간에 그들이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와 그들과 함께 있던 자들이 모여 있더니, 34 가로되 주께서 참으로 살아나셔서 시몬에게 나타나셨도다 하더라 35 그들이 가는 길에 있었던 일과 그가 떡을 떼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그를 알아보았는지를 말해 주었다. 36 그들이 그 일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 계셨다. 37 그러나 그들은 영을 보았다고 생각하여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였다. 38 이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그토록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이런 생각이 너희 마음에 들어오느냐? 39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이는 바로 나 자신이다. 나를 느끼고 보라. 영은 살도 뼈도 없으니,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40 41 그러나 그들이 기뻐 믿지 못하고 놀라지 않자, 그분은 그들에게 "너희가 여기에 먹을 것이 있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42 그들이 그분 앞에 생선 튀김 한 조각을 놓았더라. 43 그리고 그분은 그것을 가져다가 그들 앞에서 드셨다. 44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것이 이것이니 곧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느니라. 45 그런 다음 그분은 그들이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열어 주셨고, 46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기록되었느니라. 47 그리고 그 회개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죄의 용서를 위하여 그분의 이름으로 전파되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48 모든 것의 증인이 되어라. 49 또 보라,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러나 너는 위로부터 오는 권능으로 입힐 때까지 그 도시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50 이에 그가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까지 가며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였더라. 51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서 떠나셨더라. 52 그러나 그들은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53 항상 성전에서 하느님을 찬양했다.

- Evangelium nach Johannes:

- 1
 - 1 Im Anfang war das Wort, und das Wort war bei Gott, und Gott war das Wort.
 - 2 Dasselbe war im Anfang bei Gott.
 - 3 Alle Dinge sind durch dasselbe gemacht, und ohne dasselbe ist nichts gemacht, was gemacht ist.
- 4 In ihm war das Leben, und das Leben war das Licht der Menschen.
- 5 Und das Licht scheint in der Finsternis, und die Finsternis hat's nicht begriffen.
- 6 Es ward ein Mensch von Gott gesandt, der hieß Johannes.
- 7 Dieser kam zum Zeugnis, dass er von dem Licht zeugte, auf dass sie alle durch ihn glaubten.
- 8 Er war nicht das Licht, sondern dass er zeugte von dem Licht.
- 9 Das war das wahrhaftige Licht, welches alle Menschen erleuchtet, die in diese Welt kommen.
- 10 Es war in der Welt, und die Welt ist durch dasselbe gemacht; und die Welt kannte es nicht.
- 11 Er kam in sein Eigentum; und die Seinen nahmen ihn nicht auf.
- 12 Wie viele ihn aber aufnahmen, denen gab er Macht, Kinder Gottes zu werden, die an seinen Namen glauben;
- 13 welche nicht von dem Geblüt noch von dem Willen des Fleisches noch von dem Willen eines Mannes, sondern von Gott geboren sind.
- 14 Und das Wort ward Fleisch und wohnte unter uns, und wir sahen seine Herrlichkeit, eine Herrlichkeit als des eingeborenen Sohnes vom Vater, voller Gnade und Wahrheit.
- 15 Johannes zeugt von ihm, ruft und spricht: Dieser war es, von dem ich gesagt habe: Nach mir wird kommen, der vor mir gewesen ist; denn er war eher als ich.
- 16 Und von seiner Fülle haben wir alle genommen Gnade um Gnade.
- 17 Denn das Gesetz ist durch Moses gegeben; die Gnade und Wahrheit ist durch Jesum Christum geworden.
- 18 Niemand hat Gott je gesehen; der eingeborene Sohn, der in des Vaters Schoß ist, der hat es uns verkündigt.
- 19 Und dies ist das Zeugnis des Johannes, da die Juden sandten von Jerusalem Priester und Leviten, dass sie ihn fragten: Wer bist du?
- 20 Und er bekannte und leugnete nicht; und er bekannte: Ich bin nicht Christus.
- 21 Und sie fragten ihn: Was denn? Bist du Elia? Er sprach: Ich bin's nicht. Bist du der Prophet? Und er antwortete: Nein!
- 22 Da sprachen sie zu ihm: Was bist du denn? dass wir Antwort geben denen, die uns gesandt haben. Was sagst du von dir selbst?
- 23 Er sprach: Ich bin eine Stimme eines Predigers in der Wüste: Richtet den Weg des Herrn! wie der Prophet Jesaja gesagt hat.
- 24 Und die gesandt waren, die waren von den Pharisäern.
- 25 Und sie fragten ihn und sprachen zu ihm: Warum taufst du denn, so du nicht Christus bist noch Elia noch der Prophet?
- 26 Johannes antwortete ihnen und sprach: Ich taufe mit Wasser; aber er ist mitten unter euch getreten, den ihr

nicht kennt.

27 Der ist's, der nach mir kommen wird, welcher vor mir gewesen ist, des ich nicht wert bin, dass ich seine Schuhriemen auflöse.

28 Dies geschah zu Bethabara jenseit des Jordans, wo Johannes taufte.

29 Des andern Tages sieht Johannes Jesum zu ihm kommen und spricht: Siehe, das ist Gottes Lamm, welches der Welt Sünde trägt!

30 Dieser ist's, von dem ich gesagt habe: Nach mir kommt ein Mann, welcher vor mir gewesen ist; denn er war eher denn ich.

31 Und ich kannte ihn nicht; sondern auf dass er offenbar würde in Israel, darum bin ich gekommen, zu taufen mit Wasser.

32 Und Johannes zeugte und sprach: Ich sah, dass der Geist herabfuhr wie eine Taube vom Himmel und blieb auf ihm.

33 Und ich kannte ihn nicht; aber der mich sandte, zu taufen mit Wasser, der sprach zu mir: Auf welchen du sehen wirst den Geist herabfahren und auf ihm bleiben, der ist's, der mit dem heiligen Geist tauft.

34 Und ich sah es und zeugte, dass dieser ist Gottes Sohn.

35 Des andern Tages stand abermals Johannes und zwei seiner Jünger.

36 Und als er Jesum sah wandeln, sprach er: Siehe, das ist Gottes Lamm!

37 Und die zwei Jünger hörten ihn reden und folgten Jesu nach.

38 Jesus aber wandte sich um und sah sie nachfolgen und sprach zu ihnen: Was suchet ihr? Sie aber sprachen zu ihm: Meister, wo bist du zur Herberge?

39 Er sprach zu ihnen: Kommt und sehet's! Sie kamen und sahen's und blieben den Tag bei ihm. Es war aber um die zehnte Stunde.

40 Einer aus den zweien, die von Johannes hörten und Jesus nachfolgten, war Andreas, der Bruder des Simon Petrus.

41 Der findet am ersten seinen Bruder Simon und spricht zu ihm: Wir haben den Messias gefunden (welches ist verdolmetscht: der Gesalbte),

42 und führte ihn zu Jesu. Da ihn Jesus sah, sprach er: Du bist Simon, Jona's Sohn; du sollst Kephas (Fels) heißen.

43 Des andern Tages wollte Jesus wieder nach Galiläa ziehen und findet Philippus und spricht zu ihm: Folge mir nach!

44 Philippus aber war von Bethsaida, aus der Stadt des Andreas und Petrus.

45 Philippus findet Nathanael und spricht zu ihm: Wir haben den gefunden, von welchem Moses im Gesetz und die Propheten geschrieben haben, Jesum, Josephs Sohn von Nazareth.

46 Und Nathanael sprach zu ihm: Was kann von Nazareth Gutes kommen? Philippus spricht zu ihm: Komm und sieh es!

47 Jesus sah Nathanael zu sich kommen und spricht von ihm: Siehe, ein rechter Israeliter, in welchem kein Falsch ist.

48 Nathanael spricht zu ihm: Woher kennst du mich? Jesus antwortete und sprach zu ihm: Ehe denn dich Philippus rief, da du unter dem Feigenbaum warst, sah ich dich.

49 Nathanael antwortete und spricht zu ihm: Rabbi, du bist Gottes Sohn, du bist der König von Israel!

50 Jesus antwortete und sprach zu ihm: Du glaubst, weil ich dir gesagt habe, dass ich dich gesehen habe unter dem Feigenbaum; du wirst noch Größeres denn das sehen.

51 Und spricht zu ihm: Wahrlich, wahrlich ich sage euch: Von nun an werdet ihr den Himmel offen sehen und die Engel Gottes hinauf und herab fahren auf des Menschen Sohn.

2

1 Und am dritten Tag ward eine Hochzeit zu Kana in Galiläa; und die Mutter Jesu war da.

2 Jesus aber und seine Jünger wurden auch auf die Hochzeit geladen.

3 Und da es an Wein gebrach, spricht die Mutter Jesu zu ihm: Sie haben nicht Wein.

4 Jesus spricht zu ihr: Weib, was habe ich mit dir zu schaffen? Meine Stunde ist noch nicht gekommen.

5 Seine Mutter spricht zu den Dienern: Was er euch sagt, das tut.

6 Es waren aber allda sechs steinerne Wasserkrüge gesetzt nach der Weise der jüdischen Reinigung, und ging in je einen zwei oder drei Maß.

7 Jesus spricht zu ihnen: Füllet die Wasserkrüge mit Wasser! Und sie füllten sie bis obenan.

8 Und er spricht zu ihnen: Schöpfet nun und bringet's dem Speisemeister! Und sie brachten's.

9 Als aber der Speisemeister kostete den Wein, der Wasser gewesen war, und wusste nicht, woher er kam (die Diener aber wussten's, die das Wasser geschöpft hatten), ruft der Speisemeister den Bräutigam

10 und spricht zu ihm: Jedermann gibt zum ersten guten Wein, und wenn sie trunken geworden sind, alsdann den geringeren; du hast den guten Wein bisher behalten.

11 Das ist das erste Zeichen, das Jesus tat, geschehen zu Kana in Galiläa, und offenbarte seine Herrlichkeit. Und seine Jünger glaubten an ihn.
12 Darnach zog er hinab gen Kapernaum, er, seine Mutter, seine Brüder und seine Jünger; und sie blieben nicht lange daselbst.
13 Und der Juden Ostern war nahe, und Jesus zog hinauf gen Jerusalem.
14 Und er fand im Tempel sitzen, die da Ochsen, Schafe und Tauben feil hatten, und die Wechsler.
15 Und er machte eine Geißel aus Stricken und trieb sie alle zum Tempel hinaus samt den Schafen und Ochsen und verschüttete den Wechslern das Geld und stieß die Tische um
16 und sprach zu denen, die die Tauben feil hatten: tragt das von dannen und macht nicht meines Vaters Haus zum Kaufhause!
17 Seine Jünger aber gedachten daran, dass geschrieben steht: Der Eifer um dein Haus hat mich gefressen.
18 Da antworteten nun die Juden und sprachen zu ihm: Was zeigst du uns für ein Zeichen, dass du solches tun mögest?
19 Jesus antwortete und sprach zu ihnen: Brechet diesen Tempel, und am dritten Tage will ich ihn aufrichten.
20 Da sprachen die Juden: Dieser Tempel ist in sechsundvierzig Jahren erbaut; und du willst ihn in drei Tagen aufrichten?
21 (Er aber redete von dem Tempel seines Leibes.
22 Da er nun auferstanden war von den Toten, gedachten seine Jünger daran, dass er dies gesagt hatte, und glaubten der Schrift und der Rede, die Jesus gesagt hatte.)
23 Als er aber zu Jerusalem war am Osterfest, glaubten viele an seinen Namen, da sie die Zeichen sahen, die er tat.
24 Aber Jesus vertraute sich ihnen nicht; denn er kannte sie alle
25 und bedurfte nicht, dass jemand Zeugnis gäbe von einem Menschen; denn er wusste wohl, was im Menschen war.

3

1 Es war aber ein Mensch unter den Pharisäern mit Namen Nikodemus, ein Oberster unter den Juden.
2 Der kam zu Jesu bei der Nacht und sprach zu ihm: Meister, wir wissen, dass du bist ein Lehrer von Gott gekommen; denn niemand kann die Zeichen tun, die du tust, es sei denn Gott mit ihm.
3 Jesus antwortete und sprach zu ihm: Wahrlich, wahrlich, ich sage dir: Es sei denn, dass jemand von neuem geboren werde, so kann er das Reich Gottes nicht sehen.
4 Nikodemus spricht zu ihm: Wie kann ein Mensch geboren werden wenn er alt ist? Kann er auch wiederum in seiner Mutter Leib gehen und geboren werden?
5 Jesus antwortete: Wahrlich, wahrlich ich sage dir: Es sei denn dass jemand geboren werde aus Wasser und Geist, so kann er nicht in das Reich Gottes kommen.
6 Was vom Fleisch geboren wird, das ist Fleisch; und was vom Geist geboren wird, das ist Geist.
7 Lass dich's nicht wundern, dass ich dir gesagt habe: Ihr müsset von neuem geboren werden.
8 Der Wind bläst, wo er will, und du hörst sein Sausen wohl; aber du weißt nicht, woher er kommt und wohin er fährt. Also ist ein jeglicher, der aus dem Geist geboren ist.
9 Nikodemus antwortete und sprach zu ihm: Wie mag solches zugehen?
10 Jesus antwortete und sprach zu ihm: Bist du ein Meister in Israel und weißt das nicht?
11 Wahrlich, wahrlich ich sage dir: Wir reden, was wir wissen, und zeugen, was wir gesehen haben; und ihr nehmt unser Zeugnis nicht an.
12 Glaubet ihr nicht, wenn ich euch von irdischen Dingen sage, wie würdet ihr glauben, wenn ich euch von himmlischen Dingen sagen würde?
13 Und niemand fährt gen Himmel, denn der vom Himmel herniedergekommen ist, nämlich des Menschen Sohn, der im Himmel ist.
14 Und wie Mose in der Wüste eine Schlange erhöht hat, also muss des Menschen Sohn erhöht werden,
15 auf dass alle, die an ihn glauben, nicht verloren werden, sondern das ewige Leben haben.
16 Also hat Gott die Welt geliebt, dass er seinen eingeborenen Sohn gab, auf dass alle, die an ihn glauben, nicht verloren werden, sondern das ewige Leben haben.
17 Denn Gott hat seinen Sohn nicht gesandt in die Welt, dass er die Welt richte, sondern dass die Welt durch ihn selig werde.
18 Wer an ihn glaubt, der wird nicht gerichtet; wer aber nicht glaubt, der ist schon gerichtet, denn er glaubt nicht an den Namen des eingeborenen Sohnes Gottes.
19 Das ist aber das Gericht, dass das Licht in die Welt gekommen ist, und die Menschen liebten die Finsternis mehr als das Licht; denn ihre Werke waren böse.
20 Wer arges tut, der hasst das Licht und kommt nicht an das Licht, auf dass seine Werke nicht gestraft werden.
21 Wer aber die Wahrheit tut, der kommt an das Licht, dass seine Werke offenbar werden; denn sie sind in

Gott getan.

22 Danach kam Jesus und seine Jünger in das jüdische Land und hatte daselbst sein Wesen mit ihnen und taufte.

23 Johannes aber taufte auch noch zu Enon, nahe bei Salim, denn es war viel Wasser daselbst; und sie kamen dahin und ließen sich taufen.

24 Denn Johannes war noch nicht ins Gefängnis gelegt.

25 Da erhob sich eine Frage unter den Jüngern des Johannes mit den Juden über die Reinigung.

26 Und sie kamen zu Johannes und sprachen zu ihm: Meister, der bei dir war jenseit des Jordans, von dem du zeugtest, siehe, der tauft, und jedermann kommt zu ihm.

27 Johannes antwortete und sprach: Ein Mensch kann nichts nehmen, es werde ihm denn gegeben vom Himmel.

28 Ihr selbst seid meine Zeugen, dass ich gesagt habe, ich sei nicht Christus, sondern vor ihm her gesandt.

29 Wer die Braut hat, der ist der Bräutigam; der Freund aber des Bräutigams steht und hört ihm zu und freut sich hoch über des Bräutigams Stimme. Diese meine Freude ist nun erfüllt.

30 Er muss wachsen, ich aber muss abnehmen.

31 Der von obenher kommt, ist über alle. Wer von der Erde ist, der ist von der Erde und redet von der Erde. Der vom Himmel kommt, der ist über alle

32 und zeugt, was er gesehen und gehört hat; und sein Zeugnis nimmt niemand an.

33 Wer es aber annimmt, der besiegelt's, dass Gott wahrhaftig sei.

34 Denn welchen Gott gesandt hat, der redet Gottes Worte; denn Gott gibt den Geist nicht nach dem Maß.

35 Der Vater hat den Sohn lieb und hat ihm alles in seine Hand gegeben.

36 Wer an den Sohn glaubt, der hat das ewige Leben. Wer dem Sohn nicht glaubt, der wird das Leben nicht sehen, sondern der Zorn Gottes bleibt über ihm.

4 1 Da nun der Herr inward, dass vor die Pharisäer gekommen war, wie Jesus mehr Jünger machte und taufte denn Johannes

2 (wiewohl Jesus selber nicht taufte, sondern seine Jünger),

3 verließ er das Land Judäa und zog wieder nach Galiläa.

4 Er musste aber durch Samaria reisen.

5 Da kam er in eine Stadt Samarias, die heißt Sichar, nahe bei dem Feld, das Jakob seinem Sohn Joseph gab.

6 Es war aber daselbst Jakobs Brunnen. Da nun Jesus müde war von der Reise, setzte er sich also auf den Brunnen; und es war um die sechste Stunde.

7 Da kommt ein Weib aus Samaria, Wasser zu schöpfen. Jesus spricht zu ihr: Gib mir zu trinken!

8 (Denn seine Jünger waren in die Stadt gegangen, dass sie Speise kauften.)

9 Spricht nun das samaritanische Weib zu ihm: Wie bittest du von mir zu trinken, so du ein Jude bist, und ich ein samaritanisch Weib? (Denn die Juden haben keine Gemeinschaft mit den Samaritanern.)

10 Jesus antwortete und sprach zu ihr: Wenn du erkennst die Gabe Gottes und wer der ist, der zu dir sagt: „Gib mir zu trinken!“, du bätest ihn, und er gäbe dir lebendiges Wasser.

11 Spricht zu ihm das Weib: Herr, hast du doch nichts, womit du schöpfest, und der Brunnen ist tief; woher hast du denn lebendiges Wasser?

12 Bist du mehr denn unser Vater Jakob, der uns diesen Brunnen gegeben hat? Und er hat daraus getrunken und seine Kinder und sein Vieh.

13 Jesus antwortete und sprach zu ihr: Wer von diesem Wasser trinkt, den wir wieder dürsten;

14 wer aber von dem Wasser trinken wird, das ich ihm gebe, den wird ewiglich nicht dürsten; sondern das Wasser, das ich ihm geben werde, das wird in ihm ein Brunnen des Wassers werden, das in das ewige Leben quillt.

15 Spricht das Weib zu ihm: Herr, gib mir dieses Wasser, auf dass mich nicht dürste und ich nicht herkommen müsse, zu schöpfen!

16 Jesus spricht zu ihr: Gehe hin, rufe deinen Mann und komm her!

17 Das Weib antwortete und sprach zu ihm: Ich habe keinen Mann. Jesus spricht zu ihr: Du hast recht gesagt: Ich habe keinen Mann.

18 Fünf Männer hast du gehabt, und den du nun hast, der ist nicht dein Mann; da hast du recht gesagt.

19 Das Weib spricht zu ihm: Herr, ich sehe, dass du ein Prophet bist.

20 Unsre Väter haben auf diesem Berge angebetet, und ihr sagt, zu Jerusalem sei die Stätte, da man anbeten solle.

21 Jesus spricht zu ihr: Weib, glaube mir, es kommt die Zeit, dass ihr weder auf diesem Berge noch zu Jerusalem werdet den Vater anbeten.

22 Ihr wisset nicht, was ihr anbetet; wir wissen aber, was wir anbeten, denn das Heil kommt von den Juden.

23 Aber es kommt die Zeit und ist schon jetzt, dass die wahrhaftigen Anbeter werden den Vater anbeten im Geist und in der Wahrheit; denn der Vater will haben, die ihn also anbeten.

24 Gott ist Geist, und die ihn anbeten, die müssen ihn im Geist und in der Wahrheit anbeten.

25 Spricht das Weib zu ihm: Ich weiß, dass der Messias kommt, der da Christus heißt. Wenn derselbe kommen wird, so wird er's uns alles verkündigen.

26 Jesus spricht zu ihr: Ich bin's, der mit dir redet.

27 Und über dem kamen seine Jünger, und es nahm sie wunder, dass er mit dem Weib redete. Doch sprach niemand: Was fragst du? oder: Was redest du mit ihr?

28 Da ließ das Weib ihren Krug stehen und ging hin in die Stadt und spricht zu den Leuten:

29 Kommt, seht einen Menschen, der mir gesagt hat alles, was ich getan habe, ob er nicht Christus sei!

30 Da gingen sie aus der Stadt und kamen zu ihm.

31 Indes aber ermahnten ihn die Jünger und sprachen: Rabbi, iss!

32 Er aber sprach zu ihnen: Ich habe eine Speise zu essen, von der ihr nicht wisset.

33 Da sprachen die Jünger untereinander: Hat ihm jemand zu essen gebracht?

34 Jesus spricht zu ihnen: Meine Speise ist die, dass ich tue den Willen des, der mich gesandt hat, und vollende sein Werk.

35 Saget ihr nicht: Es sind noch vier Monate, so kommt die Ernte? Siehe, ich sage euch: Hebet eure Augen auf und sehet in das Feld; denn es ist schon weiß zur Ernte.

36 Und wer da schneidet, der empfängt Lohn und sammelt Frucht zum ewigen Leben, auf dass sich miteinander freuen, der da sät und der da schneidet.

37 Denn hier ist der Spruch wahr: Dieser sät, der andere schneidet.

38 Ich habe euch gesandt, zu schneiden, was ihr nicht gearbeitet habt; andere haben gearbeitet und ihr seid in ihre Arbeit gekommen.

39 Es glaubten aber an ihn viele der Samariter aus der Stadt um des Weibes Rede willen, welches da zeugte: Er hat mir gesagt alles, was ich getan habe.

40 Als nun die Samariter zu ihm kamen, baten sie ihn, dass er bei ihnen bliebe; und er blieb zwei Tage da.

41 Und viel mehr glaubten um seines Wortes willen

42 und sprachen zum Weibe: Wir glauben nun hinfort nicht um deiner Rede willen; wir haben selber gehört und erkannt, dass dieser ist wahrlich Christus, der Welt Heiland.

43 Aber nach zwei Tagen zog er aus von dannen und zog nach Galiläa.

44 Denn er selber, Jesus, zeugte, dass ein Prophet daheim nichts gilt.

45 Da er nun nach Galiläa kam, nahmen ihn die Galiläer auf, die gesehen hatten alles, was er zu Jerusalem auf dem Fest getan hatte; denn sie waren auch zum Fest gekommen.

46 Und Jesus kam abermals gen Kana in Galiläa, da er das Wasser hatte zu Wein gemacht.

47 Und es war ein Königischer, des Sohn lag krank zu Kapernaum. Dieser hörte, dass Jesus kam aus Judäa nach Galiläa, und ging hin zu ihm und bat ihn, dass er hinabkäme und hülfe seinem Sohn; denn er war todkrank.

48 Und Jesus sprach zu ihm: Wenn ihr nicht Zeichen und Wunder seht, so glaubet ihr nicht.

49 Der Königische sprach zu ihm: Herr, komm hinab, ehe denn mein Kind stirbt!

50 Jesus spricht zu ihm: Gehe hin, dein Sohn lebt! der Mensch glaubte dem Wort, das Jesus zu ihm sagte, und ging hin.

51 Und indem er hinabging, begegneten ihm seine Knechte, verkündigten ihm und sprachen: Dein Kind lebt.

52 Da forschte er von ihnen die Stunde, in welcher es besser mit ihm geworden war. Und sie sprachen zu ihm: Gestern um die siebente Stunde verließ ihn das Fieber.

53 Da merkte der Vater, dass es um die Stunde wäre, in welcher Jesus zu ihm gesagt hatte: Dein Sohn lebt. Und er glaubte mit seinem ganzen Hause.

54 Das ist nun das andere Zeichen, das Jesus tat, da er aus Judäa nach Galiläa kam.

5

1 Darnach war ein Fest der Juden, und Jesus zog hinauf gen Jerusalem.

2 Es ist aber zu Jerusalem bei dem Schaftor ein Teich, der heißt auf hebräisch Bethesda und hat fünf Hallen,

3 in welchem lagen viele Kranke, Blinde, Lahme, Verdorrte, die warteten, wann sich das Wasser bewegte.

4 (Denn ein Engel fuhr herab zu seiner Zeit in den Teich und bewegte das Wasser.) Welcher nun zuerst, nachdem das Wasser bewegt war, hineinstieg, der ward gesund, mit welcherlei Seuche er behaftet war.

5 Es war aber ein Mensch daselbst, achtunddreißig Jahre lang krank gelegen.

6 Da Jesus ihn sah liegen und vernahm, dass er so lange gelegen hatte, spricht er zu ihm: Willst du gesund werden?

7 Der Kranke antwortete ihm: Herr, ich habe keinen Menschen, wenn das Wasser sich bewegt, der mich in den Teich lasse; und wenn ich komme, so steigt ein anderer vor mir hinein.

8 Jesus spricht zu ihm: Stehe auf, nimm dein Bett und gehe hin!
9 Und alsbald ward der Mensch gesund und nahm sein Bett und ging hin. Es war aber desselben Tages der Sabbat.
10 Da sprachen die Juden zu dem, der geheilt worden war: Es ist heute Sabbat; es ziemt dir nicht, das Bett zu tragen.
11 Er antwortete ihnen: Der mich gesund machte, der sprach zu mir: „Nimm dein Bett und gehe hin!“
12 Da fragten sie ihn: Wer ist der Mensch, der zu dir gesagt hat: „Nimm dein Bett und gehe hin!“?
13 Der aber geheilt worden war, wusste nicht, wer es war; denn Jesus war gewichen, da so viel Volks an dem Ort war.
14 Darnach fand ihn Jesus im Tempel und sprach zu ihm: Siehe zu, du bist gesund geworden; sündige hinfort nicht mehr, dass dir nicht etwas Ärgeres widerfahre.
15 Der Mensch ging hin und verkündete es den Juden, es sei Jesus, der ihn gesund gemacht habe.
16 Darum verfolgten die Juden Jesum und suchten ihn zu töten, dass er solches getan hatte am Sabbat.
17 Jesus aber antwortete ihnen: Mein Vater wirkt bisher, und ich wirke auch.
18 Darum trachteten ihm die Juden viel mehr nach, dass sie ihn töteten, dass er nicht allein den Sabbat brach, sondern sagte auch, Gott sei sein Vater, und machte sich selbst Gott gleich.
19 Da antwortete Jesus und sprach zu ihnen: Wahrlich, wahrlich, ich sage euch: Der Sohn kann nichts von sich selber tun, sondern was er sieht den Vater tun; denn was dieser tut, das tut gleicherweise auch der Sohn.
20 Der Vater aber hat den Sohn lieb und zeigt ihm alles, was er tut, und wird ihm noch größere Werke zeigen, dass ihr euch verwundern werdet.
21 Denn wie der Vater die Toten auferweckt und macht sie lebendig, also auch der Sohn macht lebendig, welche er will.
22 Denn der Vater richtet niemand; sondern alles Gericht hat er dem Sohn gegeben,
23 auf dass sie alle den Sohn ehren, wie sie den Vater ehren. Wer den Sohn nicht ehrt, der ehrt den Vater nicht, der ihn gesandt hat.
24 Wahrlich, wahrlich, ich sage euch: Wer mein Wort hört und glaubt dem, der mich gesandt hat, der hat das ewige Leben und kommt nicht in das Gericht, sondern er ist vom Tode zum Leben hindurchgedrungen.
25 Wahrlich, wahrlich, ich sage euch: Es kommt die Stunde und ist schon jetzt, dass die Toten werden die Stimme des Sohnes Gottes hören; und die sie hören werden, die werden leben.
26 Denn wie der Vater hat das Leben in ihm selber, also hat er dem Sohn gegeben, das Leben zu haben in ihm selber,
27 und hat ihm Macht gegeben, auch das Gericht zu halten, darum dass er des Menschen Sohn ist.
28 Verwundert euch des nicht, denn es kommt die Stunde, in welcher alle, die in den Gräbern sind, werden seine Stimme hören,
29 und werden hervorgehen, die da Gutes getan haben, zur Auferstehung des Lebens, die aber Übles getan haben, zur Auferstehung des Gerichts.
30 Ich kann nichts von mir selber tun. Wie ich höre, so richte ich, und mein Gericht ist recht; denn ich suche nicht meinen Willen, sondern des Vaters Willen, der mich gesandt hat.
31 So ich von mir selbst zeuge, so ist mein Zeugnis nicht wahr.
32 Ein anderer ist's, der von mir zeugt; und ich weiß, dass das Zeugnis wahr ist, das er von mir zeugt.
33 Ihr schicktet zu Johannes, und er zeugte von der Wahrheit.
34 Ich aber nehme nicht Zeugnis von Menschen; sondern solches sage ich, auf dass ihr selig werdet.
35 Er war ein brennend und scheinend Licht; ihr aber wolltet eine kleine Weile fröhlich sein in seinem Lichte.
36 Ich aber habe ein größeres Zeugnis; denn des Johannes Zeugnis; denn die Werke, die mir der Vater gegeben hat, dass ich sie vollende, eben diese Werke, die ich tue, zeugen von mir, dass mich der Vater gesandt habe.
37 Und der Vater, der mich gesandt hat, derselbe hat von mir gezeugt. Ihr habt nie weder seine Stimme gehört noch seine Gestalt gesehen,
38 und sein Wort habt ihr nicht in euch wohnend; denn ihr glaubt dem nicht, den er gesandt hat.
39 Suchet in der Schrift; denn ihr meint, ihr habet das ewige Leben darin; und sie ist's, die von mir zeuget;
40 und ihr wollt nicht zu mir kommen, dass ihr das Leben haben möchtet.
41 Ich nehme nicht Ehre von Menschen;
42 aber ich kenne euch, dass ihr nicht Gottes Liebe in euch habt.
43 Ich bin gekommen in meines Vaters Namen, und ihr nehmet mich nicht an. So ein anderer wird in seinem eigenen Namen kommen, den werdet ihr annehmen.
44 Wie könnet ihr glauben, die ihr Ehre voneinander nehmet? und die Ehre, die von Gott allein ist, suchet ihr nicht.
45 Ihr sollt nicht meinen, dass ich euch vor dem Vater verklagen werde; es ist einer, der euch verklagt, der Mose, auf welchen ihr hofft.

46 Wenn ihr Mose glaubtet, so glaubtet ihr auch mir; denn er hat von mir geschrieben.
47 So ihr aber seinen Schriften nicht glaubt, wie werdet ihr meinen Worten glauben?

6 1 Darnach fuhr Jesus weg über das Meer an der Stadt Tiberias in Galiläa.
2 Und es zog ihm viel Volks nach, darum dass sie die Zeichen sahen, die er an den Kranken tat.
3 Jesus aber ging hinauf auf einen Berg und setzte sich daselbst mit seinen Jüngern.
4 Es war aber nahe Ostern, der Juden Fest.
5 Da hob Jesus seine Augen auf und sieht, dass viel Volks zu ihm kommt, und spricht zu Philippus: Wo kaufen wir Brot, dass diese essen?
6 (Das sagte er aber, ihn zu versuchen; denn er wusste wohl, was er tun wollte.)
7 Philippus antwortete ihm: Für zweihundert Groschen Brot ist nicht genug unter sie, dass ein jeglicher unter ihnen ein wenig nehme.
8 Spricht zu ihm einer seiner Jünger, Andreas, der Bruder des Simon Petrus:
9 Es ist ein Knabe hier, der hat fünf Gerstenbrote und zwei Fische; aber was ist das unter so viele?
10 Jesus aber sprach: Schaffet, dass sich das Volk lagert. Es war aber viel Gras an dem Ort. Da lagerten sich bei fünftausend Mann.
11 Jesus aber nahm die Brote, dankte und gab sie den Jüngern, die Jünger aber denen, die sich gelagert hatten; desgleichen auch von den Fischen, wieviel sie wollten.
12 Da sie aber satt waren, sprach er zu seinen Jüngern: Sammelt die übrigen Brocken, dass nichts umkommt.
13 Da sammelten sie und füllten zwölf Körbe mit Brocken von den fünf Gerstenbrotten, die übrig blieben denen, die gespeist worden.
14 Da nun die Menschen das Zeichen sahen, das Jesus tat, sprachen sie: Das ist wahrlich der Prophet, der in die Welt kommen soll.
15 Da Jesus nun merkte, dass sie kommen würden und ihn haschen, dass sie ihn zum König machten, entwich er abermals auf den Berg, er selbst allein.
16 Am Abend aber gingen die Jünger hinab an das Meer
17 und traten in das Schiff und kamen über das Meer gen Kapernaum. Und es war schon finster geworden, und Jesus war nicht zu ihnen gekommen.
18 Und das Meer erhob sich von einem großen Winde.
19 Da sie nun gerudert hatten bei fünfundzwanzig oder dreißig Feld Wegs, sahen sie Jesum auf dem Meere dahergehen und nahe zum Schiff kommen; und sie fürchteten sich.
20 Er aber sprach zu ihnen: Ich bin's; fürchtet euch nicht!
21 Da wollten sie ihn in das Schiff nehmen; und alsbald war das Schiff am Lande, da sie hin fuhren.
22 Des anderen Tages sah das Volk, das diesseits des Meeres stand, dass kein anderes Schiff daselbst war denn das eine, darin seine Jünger getreten waren, und dass Jesus nicht mit seinen Jüngern in das Schiff getreten war, sondern allein seine Jünger waren weggefahren.
23 Es kamen aber andere Schiffe von Tiberias nahe zur Stätte, da sie das Brot gegessen hatten durch des Herrn Danksagung.
104
24 Da nun das Volk sah, dass Jesus nicht da war noch seine Jünger, traten sie auch in Schiffe und kamen gen Kapernaum und suchten Jesum.
25 Und da sie ihn fanden jenseit des Meeres, sprachen sie zu ihm: Rabbi, wann bist du hergekommen?
26 Jesus antwortete ihnen und sprach: Wahrlich, wahrlich ich sage euch: Ihr sucht mich nicht darum, dass ihr Zeichen gesehen habt, sondern dass ihr von dem Brot gegessen habt und seid satt geworden.
27 Wirket Speise, nicht, die vergänglich ist, sondern die da bleibt in das ewige Leben, welche euch des Menschen Sohn geben wird; denn den hat Gott der Vater versiegelt.
28 Da sprachen sie zu ihm: Was sollen wir tun, dass wir Gottes Werke wirken?
29 Jesus antwortete und sprach zu ihnen: Das ist Gottes Werk, dass ihr an den glaubt, den er gesandt hat.
30 Da sprachen sie zu ihm: Was tust du denn für ein Zeichen, auf dass wir sehen und glauben dir? Was wirkst du?
31 Unsre Väter haben Manna gegessen in der Wüste, wie geschrieben steht: „Er gab ihnen Brot vom Himmel zu essen.“
32 Da sprach Jesus zu ihnen: Wahrlich, wahrlich ich sage euch: Mose hat euch nicht das Brot vom Himmel gegeben, sondern mein Vater gibt euch das rechte Brot vom Himmel.
33 Denn dies ist das Brot Gottes, das vom Himmel kommt und gibt der Welt das Leben.
34 Da sprachen sie zu ihm: Herr, gib uns allewege solch Brot.
35 Jesus aber sprach zu ihnen: Ich bin das Brot des Lebens. Wer zu mir kommt, den wird nicht hungern; und wer an mich glaubt, den wird nimmermehr dürsten.

36 Aber ich habe es euch gesagt, dass ihr mich gesehen habt, und glaubet doch nicht.
 37 Alles, was mir mein Vater gibt, das kommt zu mir; und wer zu mir kommt, den werde ich nicht hinausstoßen.
 38 Denn ich bin vom Himmel gekommen, nicht dass ich meinen Willen tue, sondern den Willen des, der mich gesandt hat.
 39 Das ist aber der Wille des Vaters, der mich gesandt hat, dass ich nichts verliere von allem, was er mir gegeben hat, sondern dass ich's auferwecke am Jüngsten Tage.
 40 Denn das ist der Wille des, der mich gesandt hat, dass, wer den Sohn sieht und glaubt an ihn, habe das ewige Leben; und ich werde ihn auferwecken am Jüngsten Tage.
 41 Da murrten die Juden darüber, dass er sagte: Ich bin das Brot, dass vom Himmel gekommen ist,
 42 und sprachen: Ist dieser nicht Jesus, Josephs Sohn, des Vater und Mutter wir kennen? Wie spricht er denn: Ich bin vom Himmel gekommen?
 43 Jesus antwortete und sprach zu ihnen: Murret nicht untereinander.
 44 Es kann niemand zu mir kommen, es sei denn, dass ihn ziehe der Vater, der mich gesandt hat; und ich werde ihn auferwecken am Jüngsten Tage.
 45 Es steht geschrieben in den Propheten: „Sie werden alle von Gott gelehrt sein.“ Wer es nun hört vom Vater und lernt es, der kommt zu mir.
 46 Nicht dass jemand den Vater habe gesehen, außer dem, der vom Vater ist; der hat den Vater gesehen.
 47 Wahrlich, wahrlich ich sage euch: Wer an mich glaubt, der hat das ewige Leben.
 48 Ich bin das Brot des Lebens.
 49 Eure Väter haben Manna gegessen in der Wüste und sind gestorben.
 50 Dies ist das Brot, das vom Himmel kommt, auf dass, wer davon isset, nicht sterbe.
 51 Ich bin das lebendige Brot, vom Himmel gekommen. Wer von diesem Brot essen wird, der wird leben in Ewigkeit. Und das Brot, dass ich geben werde, ist mein Fleisch, welches ich geben werde für das Leben der Welt.
 52 Da zankten die Juden untereinander und sprachen: Wie kann dieser uns sein Fleisch zu essen geben?
 53 Jesus sprach zu ihnen: Wahrlich, wahrlich ich sage euch: Werdet ihr nicht essen das Fleisch des Menschensohnes und trinken sein Blut, so habt ihr kein Leben in euch.
 54 Wer mein Fleisch isset und trinket mein Blut, der hat das ewige Leben, und ich werde ihn am Jüngsten Tage auferwecken.
 55 Denn mein Fleisch ist die rechte Speise, und mein Blut ist der rechte Trank.
 56 Wer mein Fleisch isset und trinket mein Blut, der bleibt in mir und ich in ihm.
 57 Wie mich gesandt hat der lebendige Vater und ich lebe um des Vaters willen, also, wer mich isset, der wird auch leben um meinetwillen.
 58 Dies ist das Brot, das vom Himmel gekommen ist; nicht, wie eure Väter haben Manna gegessen und sind gestorben: wer dies Brot isset, der wird leben in Ewigkeit.
 59 Solches sagte er in der Schule, da er lehrte zu Kapernaum.
 60 Viele nun seine Jünger, die das hörten, sprachen: Das ist eine harte Rede; wer kann sie hören?
 61 Da Jesus aber bei sich selbst merkte, dass seine Jünger darüber murrten, sprach er zu ihnen: Ärgert euch das?
 62 Wie, wenn ihr denn sehen werdet des Menschen Sohn auffahren dahin, da er zuvor war?
 63 Der Geist ist's, der da lebendig macht; das Fleisch ist nichts nütze. Die Worte, die ich rede, die sind Geist und sind Leben.
 64 Aber es sind etliche unter euch, die glauben nicht. (Denn Jesus wusste von Anfang wohl, welche nicht glaubend waren und welcher ihn verraten würde.)
 65 Und er sprach: Darum habe ich euch gesagt: Niemand kann zu mir kommen, es sei ihm denn von meinem Vater gegeben.
 66 Von dem an gingen seiner Jünger viele hinter sich und wandelten hinfort nicht mehr mit ihm.
 67 Da sprach Jesus zu den Zwölfen: Wollt ihr auch weggehen?
 68 Da antwortete ihm Simon Petrus: Herr, wohin sollen wir gehen? Du hast Worte des ewigen Lebens;
 69 und wir haben geglaubt und erkannt, dass du bist Christus, der Sohn des lebendigen Gottes.
 70 Jesus antwortete ihnen: Habe ich nicht euch zwölf erwählt? und – euer einer ist ein Teufel!
 71 Er redete aber von dem Judas, Simons Sohn, Ischariot; der verriet ihn hernach, und war der Zwölfe einer.

7 1 Darnach zog Jesus umher in Galiläa; denn er wollte nicht in Judäa umherziehen, darum dass ihm die Juden nach dem Leben stellten.
 2 Es war aber nahe der Juden Fest, die Laubhütten.
 3 Da sprachen seine Brüder zu ihm: Mache dich auf von dannen und gehe nach Judäa, auf dass auch deine Jünger sehen, die Werke die du tust.

4 Niemand tut etwas im Verborgenen und will doch frei offenbar sein. Tust du solches, so offenbare dich vor der Welt.

5 Denn auch seine Brüder glaubten nicht an ihn.

6 Da spricht Jesus zu ihnen: Meine Zeit ist noch nicht hier; eure Zeit aber ist allewege.

7 Die Welt kann euch nicht hassen; mich aber hasst sie, denn ich zeuge von ihr, dass ihre Werke böse sind.

8 Gehet ihr hinauf auf dieses Fest; ich will noch nicht hinaufgehen auf dieses Fest, denn meine Zeit ist noch nicht erfüllt.

9 Da er aber das zu ihnen gesagt, blieb er in Galiläa.

10 Als aber seine Brüder waren hinaufgegangen, da ging er auch hinauf zu dem Fest, nicht offenbar, sondern wie heimlich.

11 Da suchten ihn die Juden am Fest und sprachen: Wo ist der?

12 Und es war ein großes Gemurmel unter dem Volk. Etliche sprachen: Er ist fromm; die andern aber sprachen: Nein, er verführt das Volk.

13 Niemand aber redete frei von ihm um der Furcht willen vor den Juden.

14 Aber mitten im Fest ging Jesus hinauf in den Tempel und lehrte.

15 Und die Juden verwunderten sich und sprachen: Wie kann dieser die Schrift, so er sie doch nicht gelernt hat?

16 Jesus antwortete ihnen und sprach: Meine Lehre ist nicht mein, sondern des, der mich gesandt hat.

17 So jemand will des Willen tun, der wird innerwerden, ob diese Lehre von Gott sei, oder ob ich von mir selbst rede.

18 Wer von sich selbst redet, der sucht seine eigene Ehre; wer aber sucht die Ehre des, der ihn gesandt hat, der ist wahrhaftig, und ist keine Ungerechtigkeit an ihm.

19 Hat euch nicht Mose das Gesetz gegeben? und niemand unter euch tut das Gesetz. Warum sucht ihr mich zu töten?

20 Das Volk antwortete und sprach: Du hast den Teufel; wer versucht dich zu töten?

21 Jesus antwortete und sprach: Ein einziges Werk habe ich getan, und es wundert euch alle.

22 Mose hat euch darum gegeben die Beschneidung, nicht dass sie von Mose kommt, sondern von den Vätern, und ihr beschneidet den Menschen am Sabbat.

23 So ein Mensch die Beschneidung annimmt am Sabbat, auf dass nicht das Gesetz Moses gebrochen werde, zürnet ihr denn über mich, dass ich den ganzen Menschen habe am Sabbat gesund gemacht?

24 Richtet nicht nach dem Ansehen, sondern richtet ein rechtes Gericht.

25 Da sprachen etliche aus Jerusalem: Ist das nicht der, den sie suchten zu töten?

26 Und siehe zu, er redet frei, und sie sagen nichts. Erkennen unsre Obersten nun gewiss, dass er gewiss Christus sei?

27 Doch wir wissen, woher dieser ist; wenn aber Christus kommen wird, so wird niemand wissen, woher er ist.

28 Da rief Jesus im Tempel und sprach: Ja, ihr kennet mich und wisset, woher ich bin; und von mir selbst bin ich nicht gekommen, sondern es ist ein Wahrhaftiger, der mich gesandt hat, welchen ihr nicht kennet.

29 Ich kenne ihn aber; denn ich bin von ihm, und er hat mich gesandt.

30 Da suchten sie ihn zu greifen; aber niemand legte die Hand an ihn, denn seine Stunde war noch nicht gekommen.

31 Aber viele vom Volk glaubten an ihn und sprachen: Wenn Christus kommen wird, wird er auch mehr Zeichen tun, denn dieser tut?

32 Und es kam vor die Pharisäer, dass das Volk solches von ihm murmelte. Da sandten die Pharisäer und Hohenpriester Knechte aus, dass sie ihn griffen.

33 Da sprach Jesus zu ihnen: Ich bin noch eine kleine Zeit bei euch, und dann gehe ich hin zu dem, der mich gesandt hat.

34 Ihr werdet mich suchen, und nicht finden; und wo ich bin, könnet ihr nicht hin kommen.

35 Da sprachen die Juden untereinander: Wo soll dieser hin gehen, dass wir ihn nicht finden sollen? Will er zu den Zerstreuten unter den Griechen gehen und die Griechen lehren?

36 Was ist das für eine Rede, dass er sagte: „Ihr werdet mich suchen, und nicht finden; und wo ich bin, da könnet ihr nicht hin kommen“?

37 Aber am letzten Tage des Festes, der am herrlichsten war, trat Jesus auf, rief und sprach: Wen da dürstet, der komme zu mir und trinke!

38 Wer an mich glaubt, wie die Schrift sagt, von des Leibe werden Ströme des lebendigen Wassers fließen.

39 Das sagte er aber von dem Geist, welchen empfangen sollten, die an ihn glaubten; denn der Heilige Geist war noch nicht da, denn Jesus war noch nicht verklärt.

40 Viele nun vom Volk, die diese Rede hörten, sprachen: Dieser ist wahrlich der Prophet.

41 Andere sprachen: Er ist Christus. Etliche aber sprachen: Soll Christus aus Galiläa kommen?

42 Spricht nicht die Schrift: von dem Samen Davids und aus dem Flecken Bethlehem, da David war, soll Christus kommen?

43 Also ward eine Zwietracht unter dem Volk über ihn.

44 Es wollten aber etliche ihn greifen; aber niemand legte die Hand an ihn.

45 Die Knechte kamen zu den Hohenpriestern und Pharisäern; und sie sprachen zu ihnen: Warum habt ihr ihn nicht gebracht?

46 Die Knechte antworteten: Es hat nie ein Mensch also geredet wie dieser Mensch.

47 Da antworteten ihnen die Pharisäer: Seid ihr auch verführt?

48 Glaubt auch irgendein Oberster oder Pharisäer an ihn?

49 sondern das Volk, das nichts vom Gesetz weiß, ist verflucht.

50 Spricht zu ihnen Nikodemus, der bei der Nacht zu ihm kam, welcher einer unter ihnen war:

51 Richtet unser Gesetz auch einen Menschen, ehe man ihn verhört und erkennt, was er tut?

52 Sie antworteten und sprachen zu ihm: Bist du auch ein Galiläer? Forsche und siehe, aus Galiläa steht kein Prophet auf.

53 Und ein jeglicher ging also heim.

8

1 Jesus aber ging an den Ölberg.

2 Und frühmorgens kam er wieder in den Tempel, und alles Volk kam zu ihm; und er setzte sich und lehrte sie.

3 Aber die Schriftgelehrten und Pharisäer brachten eine Frau zu ihm, im Ehebruch ergriffen, und stellten sie in die Mitte

4 und sprachen zu ihm: Meister, diese Frau ist ergriffen auf frischer Tat im Ehebruch.

5 Mose aber hat uns im Gesetz geboten, solche zu steinigen. Was sagst du?

6 Das sprachen sie aber, ihn zu versuchen, auf daß sie eine Sache wider ihn hätten. Aber Jesus bückte sich nieder und schrieb mit dem Finger auf die Erde.

7 Als sie nun anhielten, ihn zu fragen, richtete er sich auf und sprach zu ihnen: Wer unter euch ohne Sünde ist, der werfe den ersten Stein auf sie.

8 Und bückte sich wieder nieder und schrieb auf die Erde.

9 Da sie aber das hörten, gingen sie hinaus, einer nach dem andern, von den Ältesten an; und Jesus ward allein gelassen und die Frau in der Mitte stehend.

10 Jesus aber richtete sich auf und sprach zu ihr: Weib, wo sind sie, deine Verkläger? Hat dich niemand verdammt?

11 Sie aber sprach: Herr, niemand. Jesus aber sprach: So verdamme ich dich auch nicht; gehe hin und sündige hinfort nicht mehr.

12 Da redete Jesus abermals zu ihnen und sprach: Ich bin das Licht der Welt. Wer mir nachfolgt, der wird nicht wandeln in der Finsternis, sondern wird das Licht des Lebens haben.

13 Da sprachen die Pharisäer zu ihm: Du zeugst von dir selbst; dein Zeugnis ist nicht wahr.

14 Jesus antwortete und sprach zu ihnen: Auch wenn ich von mir selbst zeuge, so ist mein Zeugnis wahr; denn ich weiß, woher ich gekommen bin und wohin ich gehe; ~~ih~~ ihr aber wisset nicht, woher ich komme und wohin ich gehe.

15 Ihr richtet nach dem Fleisch, ich richte niemand.

16 Wenn ich aber richte, so ist mein Gericht recht; denn ich bin nicht allein, sondern ich und der mich gesandt hat.

17 Auch steht in eurem Gesetz geschrieben, daß zweier Menschen Zeugnis wahr sei.

18 Ich bin's, der ich von mir selbst zeuge; und der Vater, der mich gesandt hat, zeugt auch von mir.

19 Da sprachen sie zu ihm: Wo ist dein Vater? Jesus antwortete: Ihr kennet weder mich noch meinen Vater; wenn ihr mich kenntet, so kenntet ihr auch meinen Vater.

20 Diese Worte redete Jesus an dem Gotteskasten, da er lehrte im Tempel; und niemand griff ihn, denn seine Stunde war noch nicht gekommen.

21 Da sprach Jesus abermals zu ihnen: Ich gehe hinweg, und ihr werdet mich suchen und in eurer Sünde sterben. Wo ich hingehet, da könnt ihr nicht hinkommen.

22 Da sprachen die Juden: Will er sich denn selbst töten, daß er spricht: Wohin ich gehe, da könnt ihr nicht hinkommen?

23 Und er sprach zu ihnen: Ihr seid von unten her, ich bin von oben her; ihr seid von dieser Welt, ich bin nicht von dieser Welt.

24 Darum habe ich euch gesagt, daß ihr sterben werdet in euren Sünden; denn wenn ihr nicht glaubet, daß ich es bin, so werdet ihr sterben in euren Sünden.

25 Da sprachen sie zu ihm: Wer bist du denn? Und Jesus sprach zu ihnen: Was rede ich noch mit euch!

26 Ich habe viel über euch zu reden und zu richten. Aber der mich gesandt hat, ist wahrhaftig, und was ich von ihm gehört habe, das rede ich zu der Welt.

27 Sie verstanden aber nicht, daß er ihnen von dem Vater sagte.

28 Da sprach Jesus zu ihnen: Wenn ihr des Menschen Sohn erhöhen werdet, dann werdet ihr erkennen, daß ich es bin und nichts von mir selber tue, sondern, wie mich der Vater gelehrt hat, so rede ich.

29 Und der mich gesandt hat, ist mit mir. Der Vater läßt mich nicht allein; denn ich tue allezeit, was ihm gefällt.

30 Da er solches redete, glaubten viele an ihn.

31 Da sprach nun Jesus zu den Juden, die an ihn glaubten: Wenn ihr bleiben werdet an meiner Rede, so seid ihr in Wahrheit meine Jünger

32 und werdet die Wahrheit erkennen, und die Wahrheit wird euch frei machen.

33 Da antworteten sie ihm: Wir sind Abrahams Kinder und sind niemals jemandes Knechte gewesen. Wie sprichst du denn: Ihr sollt frei werden?

34 Jesus antwortete ihnen: Wahrlich, wahrlich, ich sage euch: Wer Sünde tut, der ist der Sünde Knecht.

35 Der Knecht aber bleibt nicht ewiglich im Hause; der Sohn bleibt ewiglich.

36 Wenn euch nun der Sohn frei macht, so seid ihr recht frei.

37 Ich weiß wohl, daß ihr Abrahams Kinder seid; aber ihr sucht mich zu töten, denn mein Wort findet bei euch keinen Raum.

38 Ich rede, was ich von meinem Vater gesehen habe; und ihr tut, was ihr von eurem Vater gehört habt.

39 Sie antworteten und sprachen zu ihm: Abraham ist unser Vater. Spricht Jesus zu ihnen: Wenn ihr Abrahams Kinder wäret, so tätet ihr Abrahams Werke.

40 Nun aber sucht ihr mich zu töten, einen solchen Menschen, der ich euch die Wahrheit gesagt habe, die ich von Gott gehört habe. Das hat Abraham nicht getan.

41 Ihr tut eures Vaters Werke. Da sprachen sie zu ihm: Wir sind nicht unehelich geboren; wir haben einen Vater, Gott.

42 Jesus sprach zu ihnen: Wäre Gott euer Vater, so liebte ich mich; denn ich bin ausgegangen und komme von Gott; denn ich bin nicht von mir selber gekommen, sondern er hat mich gesandt.

43 Warum versteht ihr denn meine Sprache nicht? Weil ihr mein Wort nicht könnt hören!

44 Ihr habt den Teufel zum Vater, und nach eures Vaters Gelüste wollt ihr tun. Der ist ein Mörder von Anfang und steht nicht in der Wahrheit; denn die Wahrheit ist nicht in ihm. Wenn er die Lüge redet, so redet er von seinem Eignen; denn er ist ein Lügner und der Vater der Lüge.

45 Ich aber, weil ich die Wahrheit sage, so glaubet ihr mir nicht.

46 Welcher unter euch kann mich einer Sünde zeihen? Wenn ich aber die Wahrheit sage, warum glaubet ihr mir nicht?

47 Wer von Gott ist, der hört Gottes Wort; darum höret ihr nicht, denn ihr seid nicht von Gott.

48 Da antworteten die Juden und sprachen zu ihm: Sagen wir nicht recht, daß du ein Samariter bist und hast einen bösen Geist?

49 Jesus antwortete: Ich habe keinen bösen Geist, sondern ich ehre meinen Vater, und ihr verunehrt mich.

50 Ich suche nicht meine Ehre; es ist aber einer, der sie sucht und richtet.

51 Wahrlich, wahrlich, ich sage euch: So jemand mein Wort wird halten, der wird den Tod nicht sehen ewiglich.

52 Da sprachen die Juden zu ihm: Nun erkennen wir, daß du einen bösen Geist hast. Abraham ist gestorben und die Propheten, und du sprichst: So jemand mein Wort hält, der wird den Tod nicht schmecken ewiglich.

53 Bist du mehr als unser Vater Abraham, welcher gestorben ist? Und die Propheten sind gestorben. Was machst du aus dir selbst?

54 Jesus antwortete: Wenn ich mich selber ehre, so ist meine Ehre nichts. Es ist aber mein Vater, der mich ehrt, von welchem ihr sprecht: Er ist unser Gott,

55 und kennet ihn nicht; ich aber kenne ihn. Und wenn ich wollte sagen: Ich kenne ihn nicht, - so würde ich ein Lügner, gleichwie ihr seid. Aber ich kenne ihn und halte sein Wort.

56 Abraham, euer Vater, ward froh, daß er meinen Tag sehen sollte, und er sah ihn und freute sich.

57 Da sprachen die Juden zu ihm: Du bist noch nicht fünfzig Jahre alt und hast Abraham gesehen?

58 Jesus sprach zu ihnen: Wahrlich, wahrlich, ich sage euch: Ehe denn Abraham ward, bin ich.

59 Da hoben sie Steine auf, daß sie auf ihn würfen. Aber Jesus verbarg sich und ging zum Tempel hinaus.

9

1 Und Jesus ging vorüber und sah einen, der blind geboren war.

2 Und seine Jünger fragten ihn und sprachen: Meister, wer hat gesündigt, dieser oder seine Eltern, daß er ist blind geboren?

3 Jesus antwortete: Es hat weder dieser gesündigt, noch seine Eltern, sondern es sollen die Werke Gottes offenbar werden an ihm.

4 Ich muß wirken die Werke des, der mich gesandt hat, solange es Tag ist; es kommt die Nacht, da niemand

wirken kann.

5 Dieweil ich bin in der Welt, bin ich das Licht der Welt.

6 Da er solches gesagt, spie er auf die Erde und machte einen Brei aus dem Speichel und legte den Brei auf des Blinden Augen

7 und sprach zu ihm: Gehe hin zu dem Teich Siloah, das ist verdolmetscht: gesandt, und wasche dich! Da ging er hin und wusch sich und kam sehend.

8 Die Nachbarn und die ihn zuvor gesehen hatten, daß er ein Bettler war, sprachen: Ist dieser nicht, der dasaß und bettelte?

9 Etliche sprachen: Er ist's, etliche aber: Nein, aber er ist ihm ähnlich. Er selbst aber sprach: Ich bin's.

10 Da sprachen sie zu ihm: Wie sind deine Augen aufgetan?

11 Er antwortete: Der Mensch, der Jesus heißt, machte einen Brei und legte ihn auf meine Augen und sprach: Gehe hin zu dem Teich Siloah und wasche dich! Ich ging hin und wusch mich und ward sehend.

12 Da sprachen sie zu ihm: Wo ist er? Er sprach: Ich weiß nicht.

13 Da führten sie ihn, der zuvor blind war, zu den Pharisäern.

14 Es war aber Sabbat an dem Tage, da Jesus den Brei machte und seine Augen öffnete.

15 Da fragten sie ihn abermals, auch die Pharisäer, wie er wäre sehend geworden. Er aber sprach zu ihnen: Einen Brei legte er mir auf die Augen, und ich wusch mich und bin nun sehend.

16 Da sprachen etliche der Pharisäer: Dieser Mensch ist nicht von Gott, weil er den Sabbat nicht hält. Die andern aber sprachen: Wie kann ein sündiger Mensch solche Zeichen tun? Und es ward eine Zwietracht unter ihnen.

17 Sie sprachen wieder zu dem Blinden: Was sagst du von ihm, daß er hat deine Augen aufgetan? Er aber sprach: Er ist ein Prophet.

18 Die Juden glaubten nicht von ihm, daß er blind gewesen und sehend geworden wäre, bis daß sie riefen die Eltern des, der sehend geworden war,

19 fragten sie und sprachen: Ist das euer Sohn, von welchem ihr sagt, er sei blind geboren? Wie ist er denn nun sehend?

20 Seine Eltern antworteten ihnen und sprachen: Wir wissen, daß dieser unser Sohn ist und daß er blind geboren ist.

21 Wie er aber nun sehend ist, wissen wir nicht; oder wer ihm hat seine Augen aufgetan, wissen wir auch nicht. Er ist alt genug, fragt ihn, laßt ihn selbst für sich reden.

22 Solches sagten seine Eltern, denn sie fürchteten sich vor den Juden. Denn die Juden hatten sich schon geeinigt: wenn jemand ihn als den Christus bekennte, der sollte in den Bann getan werden.

23 Darum sprachen seine Eltern: Er ist alt genug, fraget ihn.

24 Da riefen sie zum andern Mal den Menschen, der blind gewesen war, und sprachen zu ihm: Gib Gott die Ehre! Wir wissen, daß dieser Mensch ein Sünder ist.

25 Er antwortete: Ist er ein Sünder? Das weiß ich nicht; eines aber weiß ich: daß ich blind war und bin nun sehend.

26 Da sprachen sie zu ihm: Was tat er dir? Wie tat er deine Augen auf?

27 Er antwortete ihnen: Ich habe es euch schon gesagt, und ihr habt's nicht gehört! Was wollt ihr's abermals hören? Wollt ihr auch seine Jünger werden?

28 Da schmähten sie ihn und sprachen: Du bist sein Jünger; wir aber sind des Mose Jünger.

29 Wir wissen, daß Gott mit Mose geredet hat; woher aber dieser ist, wissen wir nicht.

30 Der Mensch antwortete und sprach zu ihnen: Das ist ein wunderbarlich Ding, daß ihr nicht wisset, woher er ist, und er hat meine Augen aufgetan.

31 Wir wissen, daß Gott die Sünder nicht hört; sondern wenn jemand gottesfürchtig ist und tut seinen Willen, den hört er.

32 Vom Anbeginn der Welt hat man nicht gehört, daß jemand einem Blindgeborenen die Augen aufgetan habe.

33 Wäre dieser nicht von Gott, er könnte nichts tun.

34 Sie antworteten und sprachen zu ihm: Du bist ganz in Sünden geboren und lehrst uns? Und stießen ihn hinaus.

35 Es kam vor Jesus, daß sie ihn ausgestoßen hatten. Und da er ihn fand, sprach er zu ihm: Glaubst du an des Menschen Sohn?

36 Er antwortete und sprach: Herr, wer ist's? auf daß ich an ihn glaube.

37 Jesus sprach zu ihm: Du hast ihn gesehen, und der mit dir redet, der ist's.

38 Er aber sprach: Herr, ich glaube, und fiel vor ihm nieder.

39 Und Jesus sprach: Ich bin zum Gericht in diese Welt gekommen, auf daß, die da nicht sehen, sehend werden, und die da sehen, blind werden.

40 Solches hörten etliche der Pharisäer, die bei ihm waren, und sprachen zu ihm: Sind wir denn auch blind?

41 Jesus sprach zu ihnen: Wäret ihr blind, so hättet ihr keine Sünde; nun ihr aber sprecht: Wir sind sehend, bleibt eure Sünde.

10

1 Wahrlich, wahrlich, ich sage euch: Wer nicht zur Tür hineingeht in den Schafstall, sondern steigt anderswo hinein, der ist ein Dieb und Räuber.

2 Der aber zur Tür hineingeht, der ist der Hirte der Schafe.

3 Dem tut der Türhüter auf, und die Schafe hören seine Stimme; und er ruft seine Schafe mit Namen und führt sie aus.

4 Und wenn er alle die Seinen hat hinausgelassen, geht er vor ihnen hin, und die Schafe folgen ihm nach; denn sie kennen seine Stimme.

5 Einem Fremden aber folgen sie nicht nach, sondern fliehen vor ihm; denn sie kennen der Fremden Stimme nicht.

6 Diesen Spruch sagte Jesus zu ihnen; sie verstanden aber nicht, was es war, das er zu ihnen sagte.

7 Da sprach Jesus wieder zu ihnen: Wahrlich, wahrlich, ich sage euch: Ich bin die Tür zu den Schafen.

8 Alle, die vor mir gekommen sind, die sind Diebe und Räuber; aber die Schafe haben ihnen nicht gehorcht.

9 Ich bin die Tür; wenn jemand durch mich eingeht, der wird gerettet werden und wird ein- und ausgehen und Weide finden.

10 Ein Dieb kommt nur, daß er stehle, würge und umbringe. Ich bin gekommen, daß sie das Leben und volle Genüge haben sollen.

11 Ich bin der gute Hirte. Der gute Hirte läßt sein Leben für die Schafe.

12 Der Mietling aber, der nicht Hirte ist, des die Schafe nicht eigen sind, sieht den Wolf kommen und verläßt die Schafe und flieht; und der Wolf erhascht und zerstreut die Schafe.

13 Der Mietling flieht; denn er ist ein Mietling und achtet der Schafe nicht.

14 Ich bin der gute Hirte und kenne die Meinen und bin bekannt den Meinen,

15 wie mich mein Vater kennt und ich kenne den Vater. Und ich lasse mein Leben für die Schafe.

16 Und ich habe noch andere Schafe, die sind nicht aus diesem Stalle; und auch diese muß ich herführen, und sie werden meine Stimme hören, und wird eine Herde und ein Hirte werden.

17 Darum liebt mich mein Vater, weil ich mein Leben lasse, auf daß ich's wieder nehme.

18 Niemand nimmt es von mir, sondern ich lasse es von mir selber. Ich habe Macht, es zu lassen, und habe Macht, es wiederzunehmen. Solch Gebot habe ich empfangen von meinem Vater.

19 Da ward abermals eine Zwietracht unter den Juden über diese Worte.

20 Viele unter ihnen sprachen: Er hat einen bösen Geist und ist unsinnig; was höret ihr ihm zu?

21 Die andern sprachen: Das sind nicht Worte eines Besessenen; kann ein böser Geist auch der Blinden Augen auf tun?

22 Es ward aber Tempelweihe zu Jerusalem und war Winter.

23 Und Jesus wandelte im Tempel in der Halle Salomos.

24 Da umringten ihn die Juden und sprachen zu ihm: Wie lange hältst du unsre Seele im Ungewissen? Bist du der Christus, so sage es frei heraus.

25 Jesus antwortete ihnen: Ich habe es euch gesagt, und ihr glaubet nicht. Die Werke, die ich tue in meines Vaters Namen, die zeugen von mir.

26 Aber ihr glaubet nicht, denn ihr seid nicht von meinen Schafen.

27 Meine Schafe hören meine Stimme, und ich kenne sie, und sie folgen mir,

28 und ich gebe ihnen das ewige Leben, und sie werden nimmermehr umkommen, und niemand wird sie aus meiner Hand reißen.

29 Der Vater, der mir sie gegeben hat, ist größer als alles, und niemand kann sie aus meines Vaters Hand reißen.

30 Ich und der Vater sind eins.

31 Da hoben die Juden abermals Steine auf, daß sie ihn steinigten.

32 Jesus antwortete ihnen: Viele gute Werke habe ich euch erzeugt von meinem Vater; um welches Werk unter ihnen steigst ihr mich?

33 Die Juden antworteten ihm: Um eines guten Werkes willen steinigen wir dich nicht, sondern um der Gotteslästerung willen und weil du als ein Mensch dich selber zu Gott machst.

34 Jesus antwortete ihnen: Steht nicht geschrieben in eurem Gesetz (Psalm 82,6): «Ich habe gesagt: Ihr seid Götter»?

35 Wenn er Götter die nennt, zu welchen das Wort Gottes geschah – und die Schrift kann doch nicht gebrochen werden –,

36 wie sprecht ihr denn zu dem, den der Vater geheiligt und in die Welt gesandt hat: Du lästerst Gott, - weil ich sagte: Ich bin Gottes Sohn?

37 Tue ich nicht die Werke meines Vaters, so glaubet mir nicht;
38 tue ich sie aber, so glaubet doch – wollt ihr mir nicht glauben – den Werken, damit ihr zur Erkenntnis kommt und in ihr bleibt, daß der Vater in mir ist und ich in ihm.
39 Da suchten sie abermals ihn zu greifen. Aber er entging ihnen aus ihren Händen
40 und zog hin wieder jenseits des Jordan an den Ort, da Johannes zuvor getauft hatte, und blieb allda.
41 Und viele kamen zu ihm und sprachen: Johannes tat kein Zeichen; aber alles, was Johannes von diesem gesagt hat, das ist wahr.
42 Und glaubten allda viele an ihn.

11

1 Es lag aber einer krank mit Namen Lazarus aus Bethanien, dem Dorfe Marias und ihrer Schwester Martha.
2 Maria aber war es, die den Herrn gesalbt hat mit Salbe und seine Füße getrocknet mit ihrem Haar. Deren Bruder Lazarus war krank.
3 Da sandten seine Schwestern zu ihm und ließen ihm sagen: Herr, siehe, den du lieb hast, der liegt krank.
4 Da Jesus das hörte, sprach er: Diese Krankheit ist nicht zum Tode, sondern zur Verherrlichung Gottes, daß der Sohn Gottes dadurch verherrlicht werde.
5 Jesus aber hatte Martha lieb und ihre Schwester und Lazarus.
6 Als er nun hörte, daß er krank war, blieb er noch zwei Tage an dem Ort, da er war;
7 danach aber spricht er zu seinen Jüngern: Laßt uns wieder nach Judäa ziehen!
8 Seine Jünger sprachen zu ihm: Meister, vor kurzem erst wollt die Juden dich steinigen, und du willst wieder dahin ziehen?
9 Jesus antwortete: Sind nicht des Tages zwölf Stunden? Wer des Tages wandelt, der stößt sich nicht; denn er sieht das Licht dieser Welt.
10 Wer aber des Nachts wandelt, der stößt sich; denn es ist kein Licht in ihm.
11 Solches sagte er, und danach spricht er zu ihnen: Lazarus, unser Freund, schläft; aber ich gehe hin, daß ich ihn aufwecke.
12 Da sprachen seine Jünger: Herr, schläft er, so wird's besser mit ihm.
13 Jesus aber sprach von seinem Tode; sie meinten aber, er rede vom leiblichen Schlaf.
14 Da sagte es ihnen Jesus frei heraus: Lazarus ist gestorben;
15 und ich bin froh um euretwillen, daß ich nicht dagewesen bin, auf daß ihr glaubet. Aber lasset uns zu ihm ziehen!
16 Da sprach Thomas, der genannt ist Zwilling, zu den Jüngern: Laßt uns mitziehen, daß wir mit ihm sterben!
17 Da kam Jesus und fand ihn schon vier Tage im Grabe liegen.
18 Bethanien aber war nahe bei Jerusalem, bei einer halben Stunde.
19 Und viele Juden waren zu Martha und Maria gekommen, sie zu trösten über ihren Bruder.
20 Als Martha nun hörte, daß Jesus kommt, ging sie ihm entgegen; Maria aber blieb daheim sitzen.
21 Da sprach Martha zu Jesus: Herr, wärest du hier gewesen, mein Bruder wäre nicht gestorben.
22 Aber auch jetzt noch weiß ich, daß, was du bittest von Gott, das wird dir Gott geben.
23 Jesus spricht zu ihr: Dein Bruder wird auferstehen. *III*
24 Martha spricht zu ihm: Ich weiß wohl, daß er auferstehen wird in der Auferstehung am Jüngsten Tage.
25 Jesus spricht zu ihr: Ich bin die Auferstehung und das Leben. Wer an mich glaubt, der wird leben, ob er gleich stirbe;
26 und wer da lebet und glaubet an mich, der wird nimmermehr sterben. Glaubst du das?
27 Sie spricht zu ihm: Herr, ja; ich glaube, daß du bist der Christus, der Sohn Gottes, der in die Welt gekommen ist.
28 Und da sie das gesagt hatte, ging sie hin und rief ihre Schwester Maria heimlich und sprach: Der Meister ist da und ruft dich.
29 Dieselbe, als sie das hörte, stand sie eilends auf und kam zu ihm.
30 Jesus aber war noch nicht in das Dorf gekommen, sondern war noch an dem Ort, da ihm Martha entgegengekommen war.
31 Die Juden, die bei ihr im Hause waren und sie trösteten, da sie sahen, daß Maria eilends aufstand und hinausging, folgten sie ihr nach und dachten: Sie geht hin zum Grabe, daß sie daselbst weine.
32 Als nun Maria dahin kam, wo Jesus war, und ihn sah, fiel sie zu seinen Füßen und sprach zu ihm: Herr, wärest du hier gewesen, mein Bruder wäre nicht gestorben.
33 Als Jesus sie sah weinen und die Juden auch weinen, die mit ihr kamen, ergrimmte er im Geist und ward betrübt in sich selbst
34 und sprach: Wo habt ihr ihn hingelegt? Sie sprachen zu ihm: Herr, komm und sieh es!
35 Und Jesus gingen die Augen über.

36 Da sprachen die Juden: Siehe, wie hat er ihn so lieb gehabt!
 37 Etliche aber unter ihnen sprachen: Konnte, der dem Blinden die Augen aufgetan hat, nicht schaffen, daß auch dieser nicht stürbe?
 38 Da ergrimmte Jesus abermals in sich selbst und kam zum Grabe. Es war aber eine Höhle, und ein Stein davor gelegt.
 39 Jesus sprach: Hebt den Stein weg! Spricht zu ihm Martha, die Schwester des Verstorbenen: Herr, er stinkt schon; denn er hat vier Tage gelegen.
 40 Jesus spricht zu ihr: Habe ich dir nicht gesagt: wenn du glaubtest, so würdest du die Herrlichkeit Gottes sehen?
 41 Da hoben sie den Stein weg. Jesus aber hob seine Augen empor und sprach: Vater, ich danke dir, daß du mich erhört hast.
 42 Ich wußte wohl, daß du mich allezeit hörst; aber um des Volks willen, das umhersteht, habe ich geredet, damit sie glauben, daß du mich gesandt hast.
 43 Da er das gesagt hatte, rief er mit lauter Stimme: Lazarus, komm heraus!
 44 Und der Verstorbene kam heraus, gebunden mit Grabtüchern an Füßen und Händen und sein Angesicht verhüllt mit einem Schweißtuch. Jesus spricht zu ihnen: Löset die Binden und lasset ihn gehen!
 45 Viele nun von den Juden, die zu Maria gekommen waren und sahen, was Jesus tat, glaubten an ihn.
 46 Etliche aber von ihnen gingen hin zu den Pharisäern und sagten ihnen, was Jesus getan hatte.
 47 Da versammelten die Hohenpriester und die Pharisäer den Rat und sprachen: Was tun wir? Dieser Mensch tut viele Zeichen.
 48 Lassen wir ihn so, dann werden sie alle an ihn glauben, und es werden die Römer kommen und nehmen uns Land und Leute.
 49 Einer aber unter ihnen, Kaiphas, der desselben Jahres Hoherpriester war, sprach zu ihnen: Ihr wisset nichts;
 50 ihr bedenket auch nicht: Es ist euch besser, ein Mensch sterbe für das Volk, als daß das ganze Volk verderbe.
 51 Solches aber redete er nicht von sich selbst, sondern, weil er desselben Jahres Hoherpriester war, weissagte er. Denn Jesus sollte sterben für das Volk,
 52 und nicht für das Volk allein, sondern damit er auch die Kinder Gottes, die zerstreut waren, zusammenbrächte.
 53 Von dem Tage an war es für sie beschlossen, daß sie ihn töteten.
 54 Jesus aber wandelte nicht mehr öffentlich unter den Juden, sondern ging von dannen in eine Gegend nahe bei der Wüste, in eine Stadt, genannt Ephraim, und blieb daselbst mit seinen Jüngern.
 55 Es war aber nahe das Ostern der Juden; und es gingen aus der Gegend viele hinauf nach Jerusalem vor Ostern, daß sie sich reinigten.
 56 Da standen sie und fragten nach Jesus und redeten miteinander im Tempel: Was dünkt euch? Wird er wohl kommen auf das Fest?
 57 Es hatten aber die Hohenpriester und Pharisäer ein Gebot ausgehen lassen: wenn jemand wüßte, wo er wäre, solle er's anzeigen, damit sie ihn greifen könnten.

12

1 Sechs Tage vor Ostern kam Jesus nach Bethanien, wo Lazarus war, welchen Jesus auferweckt hatte von den Toten.

2 Daselbst machten sie ihm ein Mahl, und Martha diente; Lazarus aber war deren einer, die mit ihm zu Tische lagen.

3 Da nahm Maria ein Pfund Salbe von unverfälschter, köstlicher Narde und salbte die Füße Jesu und trocknete mit ihrem Haar seine Füße; das Haus aber ward voll vom Geruch der Salbe.

4 Da sprach seiner Jünger einer, Judas Ischarioth, der ihn hernach verriet:

5 Warum ist diese Salbe nicht verkauft um dreihundert Silbergroschen und den Armen gegeben?

6 Das sagte er aber nicht, weil er nach den Armen fragte, sondern er war ein Dieb und hatte den Beutel und nahm an sich, was gegeben ward.

7 Da sprach Jesus: Laß sie mit Frieden! Mag es gelten für den Tag meines Begräbnisses.

8 Denn Arme habt ihr allezeit bei euch; mich aber habt ihr nicht allezeit.

9 Da erfuhr viel Volks der Juden, daß er daselbst war, und kamen nicht allein um Jesu willen, sondern damit sie auch Lazarus sähen, welchen er von den Toten erweckt hatte.

10 Aber die Hohenpriester beschlossen, daß sie auch Lazarus töteten;

11 denn um seinetwillen gingen viele Juden hin und glaubten an Jesus.

12 Des andern Tages, da viel Volks, das aufs Fest gekommen war, hörte, daß Jesus käme nach Jerusalem,

13 nahmen sie Palmenzweige und gingen hinaus ihm entgegen und schrien: Hosianna! Gelobt sei, der da kommt in dem Namen des Herrn, der König von Israel!

14 Jesus aber fand ein Eselsfüllen und ritt darauf; wie denn geschrieben steht :

15 «Fürchte dich nicht, du Tochter Zion! Siehe, dein König kommt, reitend auf einem Eselsfüllen.»

16 Solches aber verstanden seine Jünger zuerst nicht; aber als Jesus verherrlicht ward, da dachten sie daran, daß solches von ihm geschrieben war und man solches ihm getan hatte.

17 Das Volk aber, das mit ihm war, als er Lazarus aus dem Grabe rief und von den Toten auferweckte, rühmte die Tat.

18 Darum ging ihm auch das Volk entgegen, da sie hörten, er hätte solches Zeichen getan.

19 Die Pharisäer aber sprachen untereinander: Ihr sehet, daß ihr nichts ausrichtet; siehe, alle Welt läuft ihm nach!

20 Es waren aber etliche Griechen unter denen, die hinaufgekommen waren, daß sie anbeteten auf dem Fest.

21 Die traten zu Philippus, der von Bethsaida aus Galiläa war, baten ihn und sprachen: Herr, wir wollten Jesus gerne sehen.

22 Philippus kommt und sagt's Andreas, und Philippus und Andreas sagten's Jesus weiter.

23 Jesus aber antwortete ihnen und sprach: Die Zeit ist gekommen, daß des Menschen Sohn verherrlicht werde.

24 Wahrlich, wahrlich, ich sage euch: Wenn das Weizenkorn nicht in die Erde fällt und erstirbt, so bleibt's allein; wenn es aber erstirbt, so bringt es viel Frucht.

25 Wer sein Leben lieb hat, der wird's verlieren; und wer sein Leben auf dieser Welt hasset, der wird's erhalten zum ewigen Leben.

26 Wer mir dienen will, der folge mir nach; und wo ich bin, da soll mein Diener auch sein. Und wer mir dienen wird, den wird mein Vater ehren.

27 Jetzt ist meine Seele betrübt. Und was soll ich sagen? Vater, hilf mir aus dieser Stunde? Nein, darum bin ich in diese Stunde gekommen.

28 Vater, verherrliche deinen Namen! Da kam eine Stimme vom Himmel: Ich habe ihn verherrlicht und will ihn abermals verherrlichen.

29 Da sprach das Volk, das dabeistand und zuhörte: Es donnerte. Die andern sprachen: Es redete ein Engel mit ihm.

30 Jesus antwortete und sprach: Diese Stimme ist nicht um meinetwillen geschehen, sondern um euretwillen.

31 Jetzt geht das Gericht über die Welt; nun wird der Fürst dieser Welt ausgestoßen werden.

32 Und ich, wenn ich erhöht werde von der Erde, so will ich sie alle zu mir ziehen.

33 Das sagte er aber, zu zeigen, welches Todes er sterben würde.

34 Da antwortete ihm das Volk: Wir haben gehört im Gesetz, daß der Christus ewiglich bleibe; und wie sagst du denn: Des Menschen Sohn muß erhöht werden? Wer ist dieser Menschensohn?

35 Da sprach Jesus zu ihnen: Es ist das Licht noch eine kleine Zeit bei euch. Wandelt, solange ihr das Licht habt, damit euch die Finsternis nicht überfalle. Wer in der Finsternis wandelt, der weiß nicht, wo er hinget.

36 Glaubet an das Licht, solange ihr's habt, auf daß ihr des Lichtes Kinder werdet. Solches redete Jesus und ging weg und verbarg sich vor ihnen.

37 Und ob er wohl solche Zeichen vor ihnen getan hatte, glaubten sie doch nicht an ihn;

38 auf daß erfüllt würde der Spruch des Propheten Jesaja, den er sagte: «Herr, wer glaubt unserm Predigen? Und wem ist der Arm des Herrn offenbart?»

113

39 Darum konnten sie nicht glauben, denn Jesaja sagte abermals :

40 «Er hat ihre Augen verblindet und ihr Herz verstockt, daß sie mit den Augen nicht sehen noch mit dem Herzen vernehmen und sich bekehren, und ich ihnen hülfe.»

41 Solches sagte Jesaja, da er seine Herrlichkeit sah, und redete von ihm.

42 Doch auch der Obersten glaubten viele an ihn; aber um der Pharisäer willen bekannten sie es nicht, auf daß sie nicht in den Bann getan würden.

43 Denn sie hatten lieber die Ehre bei den Menschen als die Ehre bei Gott.

44 Jesus aber rief und sprach: Wer an mich glaubt, der glaubt nicht an mich, sondern an den, der mich gesandt hat.

45 Und wer mich sieht, der sieht den, der mich gesandt hat.

46 Ich bin gekommen in die Welt ein Licht, damit, wer an mich glaubt, nicht in der Finsternis bleibe.

47 Und wer meine Worte hört und bewahrt sie nicht, den werde ich nicht richten; denn ich bin nicht gekommen, daß ich die Welt richte, sondern daß ich die Welt rette.

48 Wer mich verachtet und nimmt meine Worte nicht auf, der hat schon seinen Richter: Das Wort, welches ich geredet habe, das wird ihn richten am Jüngsten Tage.

49 Denn ich habe nicht von mir selber geredet; sondern der Vater, der mich gesandt hat, der hat mir ein Gebot gegeben, was ich sagen und reden soll.

50 Und ich weiß: sein Gebot ist das ewige Leben. Darum, was ich rede, das rede ich so, wie mir der Vater gesagt hat.

1 Vor dem Osterfest aber erkannte Jesus, daß seine Stunde gekommen war, daß er aus dieser Welt ginge zum Vater; und wie er hatte geliebt die Seinen, die in der Welt waren, so liebte er sie bis ans Ende.

2 Und bei dem Abendessen, da schon der Teufel hatte dem Judas, Simons Sohn, dem Ischarioth, ins Herz gegeben, daß er ihn verriete,

3 und Jesus wußte, daß ihm der Vater hatte alles in seine Hände gegeben und daß er von Gott gekommen war und zu Gott ging:

4 stand er vom Abendmahl auf, legte seine Kleider ab und nahm einen Schurz und umgürtete sich.

5 Danach goß er Wasser in ein Becken, hob an, den Jüngern die Füße zu waschen, und trocknete sie mit dem Schurz, mit dem er umgürtet war.

6 Da kam er zu Simon Petrus; der sprach zu ihm: Herr, solltest du mir meine Füße waschen?

7 Jesus antwortete und sprach zu ihm: Was ich tue, das weißt du jetzt nicht; du wirst es aber hernach erfahren.

8 Da sprach Petrus zu ihm: Nimmermehr sollst du mir die Füße waschen! Jesus antwortete ihm: Werde ich dich nicht waschen, so hast du kein Teil an mir.

9 Spricht zu ihm Simon Petrus: Herr, nicht die Füße allein, sondern auch die Hände und das Haupt!

10 Spricht Jesus zu ihm: Wer gewaschen ist, der bedarf nichts als noch die Füße waschen; denn er ist ganz rein. Und ihr seid rein, aber nicht alle.

11 Denn er wußte seinen Verräter wohl; darum sprach er: Ihr seid nicht alle rein.

12 Da er nun ihre Füße gewaschen hatte, nahm er seine Kleider und setzte sich wieder nieder und sprach abermals zu ihnen: Wisset ihr, was ich euch getan habe?

13 Ihr heißet mich Meister und Herr und saget recht daran, denn ich bin's auch.

14 Wenn nun ich, euer Herr und Meister, euch die Füße gewaschen habe, so sollt ihr auch euch untereinander die Füße waschen.

15 Ein Beispiel habe ich euch gegeben, daß ihr tut, wie ich euch getan habe.

16 Wahrlich, wahrlich, ich sage euch: Der Knecht ist nicht größer als sein Herr, noch der Apostel größer als der, der ihn gesandt hat.

17 Wenn ihr solches wisset, selig seid ihr, wenn ihr's tut.

18 Nicht rede ich von euch allen; ich weiß, welche ich erwählt habe. Aber es muß die Schrift erfüllt werden (Psalm 41,10): «Der mein Brot isset, der tritt mich mit Füßen.»

19 Jetzt sage ich's euch, ehe denn es geschieht, damit, wenn es geschehen ist, ihr glaubet, daß ich es bin.

20 Wahrlich, wahrlich, ich sage euch: Wer aufnimmt, wenn ich jemand senden werde, der nimmt mich auf; wer aber mich aufnimmt, der nimmt den auf, der mich gesandt hat.

21 Da Jesus solches gesagt hatte, ward er betrübt im Geist und bezeugte und sprach: Wahrlich, wahrlich, ich sage euch: Einer unter euch wird mich verraten.

22 Da sahen sich die Jünger untereinander an, und ward ihnen bange, von welchem er redete.

23 Es war aber einer unter seinen Jüngern, welchen Jesus lieb hatte, der lag bei Tische an der Brust Jesu.

24 Dem winkte Simon Petrus und sprach zu ihm: Sag, wer ist's, von dem er redet!

25 Der lehnte sich an die Brust Jesu und sprach zu ihm: Herr, wer ist's?

26 Jesus antwortete: Der ist's, dem ich den Bissen eintauche und gebe. Und er tauchte den Bissen ein, nahm ihn und gab ihn dem Judas, des Simon Ischarioth Sohn.

27 Und nach dem Bissen fuhr der Satan in ihn. Da sprach Jesus zu ihm: Was du tust, das tue bald!

28 Es wußte aber niemand am Tische, wozu er's ihm sagte.

29 Etliche meinten, weil Judas den Beutel hatte, Jesus spräche zu ihm: Kaufe, was uns not ist zum Fest, oder daß er den Armen etwas gäbe.

30 Da er nun den Bissen genommen hatte, ging er alsbald hinaus. Und es war Nacht.

31 Da Judas aber hinausgegangen war, spricht Jesus: Nun ist des Menschen Sohn verherrlicht, und Gott ist verherrlicht in ihm.

32 Ist Gott verherrlicht in ihm, so wird ihn Gott auch verherrlichen in sich und wird ihn alsbald verherrlichen.

33 Liebe Kinder, ich bin noch eine kleine Weile bei euch. Ihr werdet mich suchen; und wie ich zu den Juden sagte: Wo ich hingehe, da könnt ihr nicht hinkommen, so sage ich jetzt auch euch.

34 Ein neu Gebot gebe ich euch, daß ihr euch untereinander liebet, wie ich euch geliebt habe, damit auch ihr einander lieb habet.

35 Daran wird jedermann erkennen, daß ihr meine Jünger seid, so ihr Liebe untereinander habt.

36 Spricht Simon Petrus zu ihm: Herr, wo gehst du hin? Jesus antwortete ihm: Wo ich hingehe, kannst du mir diesmal nicht folgen; aber du wirst mir nachmals folgen.

37 Petrus spricht zu ihm: Herr, warum kann ich dir diesmal nicht folgen? Ich will mein Leben für dich lassen.

38 Jesus antwortete ihm: Solltest du dein Leben für mich lassen? Wahrlich, wahrlich, ich sage dir: Der Hahn wird nicht krähen, bis du mich dreimal habest verleugnet.

14

- 1 Euer Herz erschrecke nicht! Glaubet an Gott und glaubet an mich!
- 2 In meines Vaters Hause sind viele Wohnungen. Wenn's nicht so wäre, würde ich dann zu euch gesagt haben: Ich gehe hin, euch die Stätte zu bereiten?
- 3 Und wenn ich hingehe, euch die Stätte zu bereiten, so will ich wieder kommen und euch zu mir nehmen, damit ihr seid, wo ich bin.
- 4 Und wo ich hingehe, - den Weg wisset ihr.
- 5 Spricht zu ihm Thomas: Herr, wir wissen nicht, wo du hingehst; und wie können wir den Weg wissen?
- 6 Jesus spricht zu ihm: Ich bin der Weg und die Wahrheit und das Leben; niemand kommt zum Vater denn durch mich.
- 7 Wenn ihr mich kenntet, so kenntet ihr auch meinen Vater. Und von nun an kenntet ihr ihn und habt ihn gesehen.
- 8 Spricht zu ihm Philippus: Herr, zeige uns den Vater, so ist's uns genug.
- 9 Jesus spricht zu ihm: So lange bin ich bei euch, und du kennst mich nicht, Philippus? Wer mich sieht, der sieht den Vater! Wie sprichst du denn: Zeige uns den Vater?
- 10 Glaubst du nicht, daß ich im Vater und der Vater in mir ist? Die Worte, die ich zu euch rede, die rede ich nicht von mir selbst. Der Vater aber, der in mir wohnt, der tut seine Werke.
- 11 Glaubet mir, daß ich im Vater und der Vater in mir ist; wo nicht, so glaubet mir doch um der Werke willen.
- 12 Wahrlich, wahrlich, ich sage euch: Wer an mich glaubt, der wird die Werke auch tun, die ich tue, und wird größere als diese tun, denn ich gehe zum Vater.
- 13 Und was ihr bitten werdet in meinem Namen, das will ich tun, auf daß der Vater verherrlicht werde in dem Sohne.
- 14 Was ihr mich bitten werdet in meinem Namen, das will ich tun.
- 15 Liebet ihr mich, so werdet ihr meine Gebote halten.
- 16 Und ich will den Vater bitten, und er wird euch einen andern Tröster geben, daß er bei euch sei ewiglich:
- 17 den Geist der Wahrheit, welchen die Welt nicht kann empfangen, denn sie sieht ihn nicht und kennt ihn nicht. Ihr aber kenntet ihn, denn er bleibt bei euch und wird in euch sein.
- 18 Ich will euch nicht als Waisen zurücklassen; ich komme zu euch.
- 19 Es ist noch um ein kleines, dann wird mich die Welt nicht mehr sehen. Ihr aber sollt mich sehen, denn ich lebe, und ihr sollt auch leben.
- 20 An demselben Tage werdet ihr erkennen, daß ich in meinem Vater bin und ihr in mir und ich in euch.
- 21 Wer meine Gebote hat und hält sie, der ist's, der mich liebt. Wer mich aber liebt, der wird von meinem Vater geliebt werden, und ich werde ihn lieben und mich ihm offenbaren.
- 22 Spricht zu ihm Judas, nicht der Ischarioth: Herr, was ist's, daß du dich uns willst offenbaren und nicht der Welt?
- 23 Jesus antwortete und sprach zu ihm: Wer mich liebt, der wird mein Wort halten; und mein Vater wird ihn lieben, und wir werden zu ihm kommen und Wohnung bei ihm machen.
- 24 Wer aber mich nicht liebt, der hält meine Worte nicht. Und das Wort, das ihr höret, ist nicht mein, sondern des Vaters, der mich gesandt hat.
- 25 Solches habe ich zu euch geredet, während ich bei euch gewesen bin.
- 26 Aber der Tröster, der heilige Geist, welchen mein Vater senden wird in meinem Namen, der wird euch alles lehren und euch erinnern alles des, was ich euch gesagt habe. Der Friede Christi
- 27 Den Frieden lasse ich euch, meinen Frieden gebe ich euch. Nicht gebe ich euch, wie die Welt gibt. Euer Herz erschrecke nicht und fürchte sich nicht.
- 28 Ihr habt gehört, daß ich euch gesagt habe: Ich gehe hin und komme wieder zu euch. Hättet ihr mich lieb, so würdet ihr euch freuen, daß ich zum Vater gehe, denn der Vater ist größer als ich.
- 29 Und nun habe ich's euch gesagt, ehe es geschieht, auf daß ihr glaubet, wenn es nun geschehen wird.
- 30 Ich werde nicht mehr viel mit euch reden, denn es kommt der Fürst der Welt. Er hat keine Macht über mich,
- 31 aber die Welt soll erkennen, daß ich den Vater liebe und tue, wie mir der Vater geboten hat. Stehet auf und lasset uns von hinnen gehen.

15

- 1 Ich bin der rechte Weinstock, und mein Vater der Weingärtner.
- 2 Eine jegliche Rebe an mir, die nicht Frucht bringt, wird er wegnehmen; und eine jegliche, die da Frucht bringt, wird er reinigen, daß sie mehr Frucht bringe.
- 3 Ihr seid schon rein um des Wortes willen, das ich zu euch geredet habe.
- 4 Bleibet in mir und ich in euch. Gleichwie die Rebe kann keine Frucht bringen von sich selber, sie bleibe denn

am Weinstock, so auch ihr nicht, ihr bleibet denn in mir.

5 Ich bin der Weinstock, ihr seid die Reben. Wer in mir bleibt und ich in ihm, der bringt viel Frucht; denn ohne mich könnt ihr nichts tun.

6 Wer nicht in mir bleibt, der wird weggeworfen wie eine Rebe und verdorrt, und man sammelt sie und wirft sie ins Feuer, und müssen brennen.

7 Wenn ihr in mir bleibet und meine Worte in euch bleiben, werdet ihr bitten, was ihr wollt, und es wird euch widerfahren.

8 Darin wird mein Vater verherrlicht, daß ihr viel Frucht bringet und werdet meine Jünger.

9 Gleichwie mich mein Vater liebt, so liebe ich euch auch. Bleibet in meiner Liebe!

10 Wenn ihr meine Gebote haltet, so bleibet ihr in meiner Liebe, gleichwie ich meines Vaters Gebote halte und bleibe in seiner Liebe.

11 Solches rede ich zu euch, damit meine Freude in euch bleibe und eure Freude vollkommen werde.

12 Das ist mein Gebot, daß ihr euch untereinander liebet, gleichwie ich euch liebe.

13 Niemand hat größere Liebe denn die, daß er sein Leben läßt für seine Freunde.

14 Ihr seid meine Freunde, wenn ihr tut, was ich euch gebiete.

15 Ich sage hinfort nicht, daß ihr Knechte seid; denn ein Knecht weiß nicht, was sein Herr tut. Euch aber habe ich gesagt, daß ihr Freunde seid; denn alles, was ich habe von meinem Vater gehört, habe ich euch kundgetan.

16 Ihr habt mich nicht erwählt, sondern ich habe euch erwählt und gesetzt, daß ihr hingehet und Frucht bringet und eure Frucht bleibe, damit, wenn ihr den Vater bittet in meinem Namen, er's euch gebe.

17 Das gebiete ich euch, daß ihr euch untereinander liebet.

18 Wenn euch die Welt hasset, so wisset, daß sie mich vor euch gehaßt hat.

19 Wäret ihr von der Welt, so hätte die Welt das Ihre lieb. Weil ihr aber nicht von der Welt seid, sondern ich euch aus der Welt erwählt habe, darum hasset euch die Welt.

20 Gedenket an mein Wort, das ich euch gesagt habe: Der Knecht ist nicht größer als sein Herr. Haben sie mich verfolgt, so werden sie euch auch verfolgen; haben sie mein Wort gehalten, so werden sie eures auch halten.

21 Aber das alles werden sie euch tun um meines Namens willen; denn sie kennen den nicht, der mich gesandt hat.

22 Wenn ich nicht gekommen wäre und hätte es ihnen gesagt, so hätten sie keine Sünde; nun aber können sie nichts vorwenden, ihre Sünde zu entschuldigen.

23 Wer mich hasset, der hasset auch meinen Vater.

24 Hätte ich nicht die Werke getan unter ihnen, die kein anderer getan hat, so hätten sie keine Sünde. Nun aber haben sie es gesehen und hassen doch beide, mich und meinen Vater.

25 Doch muß erfüllt werden der Spruch, in ihrem Gesetz geschrieben (Psalm 69,5): «Sie hassen mich ohne Ursache.»

26 Wenn aber der Tröster kommen wird, welchen ich euch senden werde vom Vater, der Geist der Wahrheit, der vom Vater ausgeht, der wird zeugen von mir.

27 Und auch ihr werdet meine Zeugen sein, denn ihr seid von Anfang bei mir gewesen.

16 1 Solches habe ich zu euch geredet, damit ihr nicht Ärgernis nehmt.
2 Sie werden euch in den Bann tun. Ja, es kommt die Stunde, daß wer euch tötet, wird meinen, er tue Gott einen Dienst damit.

3 Und solches werden sie darum tun, weil sie weder meinen Vater noch mich erkennen.

4 Aber solches habe ich zu euch geredet, damit, wenn die Stunde kommen wird, ihr daran gedenket, daß ich's euch gesagt habe. Solches aber habe ich euch von Anfang nicht gesagt, denn ich war bei euch.

5 Nun aber gehe ich hin zu dem, der mich gesandt hat; und niemand unter euch fragt mich: Wo gehst du hin?

6 Sondern weil ich solches zu euch geredet habe, ist euer Herz voll Trauerns geworden.

7 Aber ich sage euch die Wahrheit: es ist euch gut, daß ich hingehe. Denn wenn ich nicht hingehe, so kommt der Tröster nicht zu euch. Wenn ich aber gehe, will ich ihn zu euch senden.

8 Und wenn derselbe kommt, wird er der Welt die Augen auf tun über die Sünde und über die Gerechtigkeit und über das Gericht;

9 über die Sünde: daß sie nicht glauben an mich;

10 über die Gerechtigkeit: daß ich zum Vater gehe und ihr mich hinfort nicht sehet;

11 über das Gericht: daß der Fürst dieser Welt gerichtet ist.

12 Ich habe euch noch viel zu sagen; aber ihr könnt es jetzt nicht tragen.

13 Wenn aber jener, der Geist der Wahrheit, kommen wird, der wird euch in alle Wahrheit leiten. Denn er wird nicht aus sich selber reden; sondern was er hören wird, das wird er reden, und was zukünftig ist, wird er euch verkündigen.

14 Derselbe wird mich verherrlichen; denn von dem Meinen wird er's nehmen und euch verkündigen.

15 Alles, was der Vater hat, das ist mein. Darum habe ich gesagt: Er wird's von dem Meinen nehmen und euch verkündigen.

16 Über ein kleines, dann werdet ihr mich nicht sehen; und abermals über ein kleines, dann werdet ihr mich sehen.

17 Da sprachen etliche unter seinen Jüngern untereinander: Was ist das, was er sagt zu uns: Über ein kleines, dann werdet ihr mich nicht sehen; und abermals über ein kleines, dann werdet ihr mich sehen; und: Ich gehe zum Vater?

18 Da sprachen sie: Was ist das, was er sagt: Über ein kleines? Wir wissen nicht, was er redet.

19 Da merkte Jesus, daß sie ihn fragen wollten, und sprach zu ihnen: Darüber fraget ihr untereinander, daß ich gesagt habe: Über ein kleines, dann werdet ihr mich nicht sehen; und abermals über ein kleines, dann werdet ihr mich sehen.

20 Wahrlich, wahrlich, ich sage euch: Ihr werdet weinen und heulen, aber die Welt wird sich freuen; ihr werdet traurig sein, doch eure Traurigkeit soll in Freude verkehrt werden.

21 Ein Weib, wenn sie gebiert, so hat sie Traurigkeit, denn ihre Stunde ist gekommen. Wenn sie aber das Kind geboren hat, denkt sie nicht mehr an die Angst um der Freude willen, daß ein Mensch zur Welt geboren ist.

22 Und auch ihr habt nun Traurigkeit; aber ich will euch wiedersehen, und euer Herz soll sich freuen, und eure Freude soll niemand von euch nehmen.

23 Und an demselben Tage werdet ihr mich nichts fragen. Wahrlich, wahrlich, ich sage euch: Wenn ihr den Vater etwas bitten werdet, so wird er's euch geben in meinem Namen.

24 Bisher habt ihr nichts gebeten in meinem Namen. Bittet, so werdet ihr nehmen, daß eure Freude vollkommen sei.

25 Solches habe ich zu euch in Sprüchen und Bildern geredet. Es kommt aber die Zeit, daß ich nicht mehr in Bildern mit euch reden werde, sondern euch frei heraus verkündigen von meinem Vater.

26 An demselben Tage werdet ihr bitten in meinem Namen. Und ich sage euch nicht, daß ich den Vater für euch bitten will;

27 denn er selbst, der Vater, hat euch lieb, weil ihr mich liebet und glaubet, daß ich von Gott ausgegangen bin.

28 Ich bin vom Vater ausgegangen und gekommen in die Welt; wiederum verlasse ich die Welt und gehe zum Vater.

29 Sprechen zu ihm seine Jünger: Siehe, nun redest du frei heraus und nicht mehr in Bildern.

30 Nun wissen wir, daß du alle Dinge weißt und bedarfst nicht, daß dich jemand frage; darum glauben wir, daß du von Gott ausgegangen bist.

31 Jesus antwortete ihnen: Jetzt glaubet ihr?

32 Siehe, es kommt die Stunde und ist schon gekommen, daß ihr zerstreut werdet, ein jeglicher in das Seine, und mich allein lasset. Aber ich bin nicht allein, denn der Vater ist bei mir.

33 Solches habe ich mit euch geredet, daß ihr in mir Frieden habet. In der Welt habt ihr Angst; aber seid getrost, ich habe die Welt überwunden.

17

1 Solches redete Jesus und hob seine Augen auf gen Himmel und sprach: Vater, die Stunde ist da: verherrliche deinen Sohn, auf daß dich der Sohn verherrliche,

2 wie du ihm Macht gegeben hast über alles Fleisch, damit er das ewige Leben gebe allen, die du ihm gegeben hast.

3 Das ist aber das ewige Leben, daß sie dich, der du allein wahrer Gott bist, und den du gesandt hast, Jesus Christus, erkennen.

4 Ich habe dich verherrlicht auf Erden und vollendet das Werk, das du mir gegeben hast, daß ich es tun sollte.

5 Und nun verherrliche mich du, Vater, bei dir selbst mit der Klarheit, die ich bei dir hatte, ehe die Welt war.

6 Ich habe deinen Namen offenbart den Menschen, die du mir von der Welt gegeben hast. Sie waren dein, und du hast sie mir gegeben, und sie haben dein Wort behalten.

7 Nun wissen sie, daß alles, was du mir gegeben hast, sei von dir.

8 Denn die Worte, die du mir gegeben hast, habe ich ihnen gegeben; und sie haben's angenommen und erkannt wahrhaftig, daß ich von dir ausgegangen bin, und glauben, daß du mich gesandt hast.

9 Ich bitte für sie und bitte nicht für die Welt, sondern für die, die du mir gegeben hast; denn sie sind dein.

10 Und alles, was mein ist, das ist dein, und was dein ist, das ist mein; und ich bin in ihnen verherrlicht.

11 Und ich bin nicht mehr in der Welt; sie aber sind in der Welt, und ich komme zu dir. Heiliger Vater, erhalte sie in deinem Namen, den du mir gegeben hast, daß sie eins seien gleichwie wir.

12 Solange ich bei ihnen war, erhielt ich sie in deinem Namen, den du mir gegeben hast, und habe sie bewahrt, und ist keiner von ihnen verloren außer dem Sohn des Verderbens, auf daß die Schrift erfüllt würde.

13 Nun aber komme ich zu dir und rede solches in der Welt, auf daß sie in sich haben meine Freude vollkommen.

14 Ich habe ihnen gegeben dein Wort, und die Welt haßte sie; denn sie sind nicht von der Welt, wie denn auch ich nicht von der Welt bin.
 15 Ich bitte nicht, daß du sie von der Welt nimmest, sondern daß du sie bewahrest vor dem Bösen.
 16 Sie sind nicht von der Welt, gleichwie ich auch nicht von der Welt bin.
 17 Heilige sie in der Wahrheit; dein Wort ist die Wahrheit.
 18 Gleichwie du mich gesandt hast in die Welt, so sende ich sie auch in die Welt.
 19 Ich heilige mich selbst für sie, auf daß auch sie geheiligt seien in der Wahrheit.
 20 Ich bitte aber nicht allein für sie, sondern auch für die, die durch ihr Wort an mich glauben werden,
 21 auf daß sie alle eins seien, gleichwie du, Vater, in mir und ich in dir; daß auch sie in uns seien, damit die Welt glaube, du habest mich gesandt.
 22 Und ich habe ihnen gegeben die Herrlichkeit, die du mir gegeben hast, daß sie eins seien, gleichwie wir eins sind,
 23 ich in ihnen und du in mir, auf daß sie vollkommen eins seien und die Welt erkenne, daß du mich gesandt hast und liebst sie, gleichwie du mich liebst.
 24 Vater, ich will, daß, wo ich bin, auch die bei mir seien, die du mir gegeben hast, auf daß sie meine Herrlichkeit sehen, die du mir gegeben hast; denn du hast mich geliebt, ehe denn die Welt gegründet ward.
 25 Gerechter Vater, die Welt kennt dich nicht; ich aber kenne dich, und diese haben erkannt, daß du mich gesandt hast.
 26 Und ich habe ihnen deinen Namen kundgetan und will ihn kundtun, damit die Liebe, mit der du mich liebst, sei in ihnen und ich in ihnen.

18

1 Da Jesus solches geredet hatte, ging er hinaus mit seinen Jüngern über den Bach Kidron; da war ein Garten, darein ging Jesus und seine Jünger.
 2 Judas aber, der ihn verriet, wußte den Ort auch, denn Jesus versammelte sich oft daselbst mit seinen Jüngern.

3 Da nun Judas zu sich genommen hatte die Schar der Kriegsknechte und die Diener der Hohenpriester und Pharisäer, kommt er dahin mit Fackeln, Lampen und mit Waffen.
 4 Da nun Jesus wußte alles, was ihm begegnen sollte, ging er hinaus und sprach zu ihnen: Wen suchet ihr?
 5 Sie antworteten ihm: Jesus von Nazareth. Er spricht zu ihnen: Ich bin's! Judas aber, der ihn verriet, stand auch bei ihnen.
 6 Als nun Jesus zu ihnen sprach: Ich bin's! wichen sie zurück und fielen zu Boden.
 7 Da fragte er sie abermals: Wen suchet ihr? Sie aber sprachen: Jesus von Nazareth.
 8 Jesus antwortete: Ich habe es euch gesagt, daß ich's bin. Suchet ihr denn mich, so lasset diese gehen!
 9 auf daß das Wort erfüllt würde, welches er gesagt hatte: Ich habe derer keinen verloren, die du mir gegeben hast.
 10 Da hatte Simon Petrus ein Schwert und zog es heraus und schlug nach des Hohenpriesters Knecht und hieb ihm sein rechtes Ohr ab. Und der Knecht hieß Malchus.
 11 Da sprach Jesus zu Petrus: Stecke dein Schwert in die Scheide! Soll ich den Kelch nicht trinken, den mir mein Vater gegeben hat?
 12 Die Schar aber und der Oberhauptmann und die Diener der Juden nahmen Jesus und banden ihn
 13 und führten ihn zuerst zu Hannas; der war der Schwiegervater des Kaiphas, welcher des Jahres Hoherpriester war.
 14 Es war aber Kaiphas, der den Juden geraten hatte, es wäre gut, daß ein Mensch stürbe für das Volk.
 15 Simon Petrus aber folgte Jesus nach und ein anderer Jünger. Dieser Jünger war dem Hohenpriester bekannt und ging mit Jesus hinein in des Hohenpriesters Palast.
 16 Petrus aber stand draußen vor der Tür. Da ging der andere Jünger, der dem Hohenpriester bekannt war, hinaus und redete mit der Türhüterin und führte Petrus hinein.
 17 Da sprach die Magd, die Türhüterin, zu Petrus: Bist du nicht auch einer von den Jüngern dieses Menschen? Er sprach: Ich bin's nicht.
 18 Es standen aber die Knechte und Diener und hatten ein Kohlenfeuer gemacht, denn es war kalt, und wärmten sich. Petrus aber stand bei ihnen und wärmte sich.
 19 Aber der Hohepriester fragte Jesus über seine Jünger und über seine Lehre.
 20 Jesus antwortete ihm: Ich habe frei öffentlich geredet vor der Welt. Ich habe allezeit gelehrt in der Synagoge und in dem Tempel, wo alle Juden zusammenkommen, und habe nichts im Verborgenen geredet.
 21 Was fragst du mich? Frage die, die gehört haben, was ich zu ihnen geredet habe. Siehe, diese wissen, was ich gesagt habe.
 22 Als er aber solches redete, gab der Diener einer, der dabeistand, Jesus einen Backenstreich und sprach: Antwortest du so dem Hohenpriester?

23 Jesus antwortete: Habe ich übel geredet, so beweise, daß es böse sei; habe ich aber recht geredet, was schlägst du mich?

24 Und Hannas sandte ihn gebunden zu dem Hohenpriester Kaiphas.

25 Simon Petrus aber stand und wärmte sich. Da sprachen sie zu ihm: Bist du nicht seiner Jünger einer? Er leugnete aber und sprach: Ich bin's nicht.

26 Spricht einer von des Hohenpriesters Knechten, ein Verwandter des, dem Petrus das Ohr abgehauen hatte: Sah ich dich nicht im Garten bei ihm?

27 Da leugnete Petrus abermals, und alsbald krächte der Hahn.

28 Da führten sie Jesus von Kaiphas vor das Richthaus. Und es war frühe; und sie gingen nicht in das Richthaus, damit sie nicht unrein würden, sondern Ostern essen könnten.

29 Da ging Pilatus zu ihnen heraus und sprach: Was bringet ihr für Klage wider diesen Menschen?

30 Sie antworteten und sprachen zu ihm: Wäre dieser nicht ein Übeltäter, wir hätten dir ihn nicht überantwortet.

31 Da sprach Pilatus zu ihnen: So nehmet ihr ihn hin und richtet ihn nach eurem Gesetz. Da sprachen die Juden zu ihm: Wir dürfen niemand töten, -

32 auf daß erfüllt würde das Wort Jesu, das er sagte, um zu zeigen, welches Todes er sterben würde.

33 Da ging Pilatus wieder hinein ins Richthaus und rief Jesus und sprach zu ihm: Bist du der Juden König?

34 Jesus antwortete: Redest du das von dir selbst, oder haben's dir andere von mir gesagt?

35 Pilatus antwortete: Bin ich ein Jude? Dein Volk und die Hohenpriester haben dich mir überantwortet. Was hast du getan?

36 Jesus antwortete: Mein Reich ist nicht von dieser Welt. Wäre mein Reich von dieser Welt, meine Diener würden darum kämpfen, daß ich den Juden nicht überantwortet würde; aber nun ist mein Reich nicht von dieser Welt.

37 Da sprach Pilatus zu ihm: So bist du dennoch ein König? Jesus antwortete: Du sagst es, ich bin ein König. Ich bin dazu geboren und in die Welt gekommen, daß ich für die Wahrheit zeugen soll. Wer aus der Wahrheit ist, der höret meine Stimme.

38 Spricht Pilatus zu ihm: Was ist Wahrheit? Und da er das gesagt, ging er wieder hinaus zu den Juden und spricht zu ihnen: Ich finde keine Schuld an ihm.

39 Ihr habt aber eine Gewohnheit, daß ich euch einen Gefangenen zum Osterfest losgebe; wollt ihr nun, daß ich euch der Juden König losgebe?

40 Da schrien sie wieder und sprachen: Nicht diesen, sondern Barabbas! Barabbas aber war ein Räuber.

19

1 Da nahm Pilatus Jesus und ließ ihn geißeln.

2 Und die Kriegsknechte flochten eine Krone von Dornen und setzten sie auf sein Haupt und legten ihm ein Purpurkleid an,

3 traten zu ihm und sprachen: Sei gegrüßt, lieber Judenkönig! und gaben ihm Backenstreiche.

4 Da ging Pilatus wieder heraus und sprach zu ihnen: Sehet, ich führe ihn heraus zu euch, damit ihr erkennt, daß ich keine Schuld an ihm finde.

5 Da ging Jesus heraus und trug eine Dornenkrone und ein Purpurkleid. Und Pilatus spricht zu ihnen: Sehet, welch ein Mensch!

6 Da ihn die Hohenpriester und die Diener sahen, schrien sie und sprachen: Kreuzige! kreuzige! Pilatus spricht zu ihnen: Nehmt ihr ihn hin und kreuzigt ihn, denn ich finde keine Schuld an ihm.

7 Die Juden antworteten ihm: Wir haben ein Gesetz, und nach dem Gesetz muß er sterben, denn er hat sich selbst zu Gottes Sohn gemacht.

8 Da Pilatus das Wort hörte, fürchtete er sich noch mehr

9 und ging wieder hinein in das Richthaus und spricht zu Jesus: Woher bist du? Aber Jesus gab ihm keine Antwort.

10 Da sprach Pilatus zu ihm: Redest du nicht mit mir? Weißt du nicht, daß ich Macht habe, dich loszugeben, und Macht habe, dich zu kreuzigen?

11 Jesus antwortete: Du hättest keine Macht über mich, wenn sie dir nicht wäre von oben her gegeben. Darum: der mich dir überantwortet hat, der hat größere Sünde.

12 Von da an trachtete Pilatus, wie er ihn losließe. Die Juden aber schrien und sprachen: Läßt du diesen los, so bist du des Kaisers Freund nicht; denn wer sich zum König macht, der ist wider den Kaiser.

13 Da Pilatus das Wort hörte, führte er Jesus heraus und setzte sich auf den Richterstuhl an der Stätte, die da heißt Steinpflaster, auf hebräisch Gabbatha.

14 Es war aber der Rüsttag auf Ostern um die sechste Stunde. Und er spricht zu den Juden: Sehet, das ist euer König!

15 Sie schrien aber: Weg, weg mit dem! Kreuzige ihn! Spricht Pilatus zu ihnen: Soll ich euren König kreuzigen?

Die Hohenpriester antworteten: Wir haben keinen König denn den Kaiser.

16 Da überantwortete er ihnen Jesus, daß er gekreuzigt würde. Kreuzigung und Tod Sie nahmen ihn aber,
17 und er trug sein Kreuz und ging hinaus zur Stätte, die da heißt Schädelstätte, welche heißt auf hebräisch Golgatha.

18 Allda kreuzigten sie ihn und mit ihm zwei andere zu beiden Seiten, Jesus aber mitten inne.

19 Pilatus aber schrieb eine Überschrift und setzte sie auf das Kreuz; und war geschrieben: Jesus von Nazareth, der Juden König.

20 Diese Überschrift lasen viele Juden, denn die Stätte, da Jesus gekreuzigt ward, war nahe bei der Stadt. Und es war geschrieben in hebräischer, lateinischer und griechischer Sprache.

21 Da sprachen die Hohenpriester der Juden zu Pilatus: Schreibe nicht: Der Juden König, sondern daß er gesagt habe: Ich bin der Juden König.

22 Pilatus antwortete: Was ich geschrieben habe, das habe ich geschrieben.

23 Die Kriegsknechte aber, da sie Jesus gekreuzigt hatten, nahmen sie seine Kleider und machten vier Teile, einem jeglichen Kriegsknecht einen Teil, dazu auch den Rock. Der Rock aber war ungenäht, von obenan gewebt durch und durch.

24 Da sprachen sie untereinander: Lasset uns den nicht zerteilen, sondern darum lösen, wes er sein soll, - auf daß erfüllt würde die Schrift (Psalm 22,19): «Sie haben meine Kleider unter sich geteilt und haben über meinen Rock das Los geworfen.» Solches taten die Kriegsknechte.

25 Es stand aber bei dem Kreuze Jesu seine Mutter und seiner Mutter Schwester, Maria, des Kleopas Frau, und Maria Magdalena.

26 Da nun Jesus seine Mutter sah und den Jünger dabeistehen, den er lieb hatte, spricht er zu seiner Mutter: Weib, siehe, das ist dein Sohn!

27 Danach spricht er zu dem Jünger: Siehe, das ist deine Mutter! Und von der Stunde an nahm sie der Jünger zu sich.

28 Danach, da Jesus wußte, daß schon alles vollbracht war, auf daß die Schrift erfüllt würde, spricht er: Mich dürstet!

29 Da stand ein Gefäß voll Essig. Sie aber füllten einen Schwamm mit Essig und steckten ihn auf einen Ysop und hielten es ihm dar zum Munde.

30 Da nun Jesus den Essig genommen hatte, sprach er: Es ist vollbracht! und neigte das Haupt und verschied.

31 Die Juden aber, weil es Rüsttag war, damit nicht die Leichname am Kreuze blieben den Sabbat über, denn es war ein großer Sabbat, baten sie den Pilatus, daß ihnen die Beine gebrochen und sie abgenommen würden.

32 Da kamen die Kriegsknechte und brachen dem ersten die Beine und dem andern, der mit ihm gekreuzigt war.

33 Als sie aber zu Jesus kamen und sahen, daß er schon gestorben war, brachen sie ihm die Beine nicht;

34 sondern der Kriegsknechte einer öffnete seine Seite mit einem Speer, und alsbald ging Blut und Wasser heraus.

35 Und der das gesehen hat, der hat es bezeugt, und sein Zeugnis ist wahr, und er weiß, daß er die Wahrheit sagt, damit auch ihr glaubet.

36 Denn solches ist geschehen, daß die Schrift erfüllt würde: «Ihr sollt ihm kein Bein zerbrechen.»

37 Und abermals spricht die Schrift: «Sie werden sehen auf den, in welchen sie gestochen haben.»

38 Danach bat den Pilatus Joseph von Arimathia, der ein Jünger Jesu war, doch heimlich aus Furcht vor den Juden, daß er den Leichnam Jesu dürfte abnehmen. Und Pilatus erlaubte es. Da kam er und nahm den Leichnam Jesu herab.

39 Es kam aber auch Nikodemus, der vormals bei der Nacht zu Jesus gekommen war, und brachte Myrrhe und Aloe untereinander gemengt, bei hundert Pfunden.

40 Da nahmen sie den Leichnam Jesu und banden ihn in leinene Tücher mit den Spezereien, wie die Juden pflegen zu begraben.

41 Es war aber an der Stätte, da er gekreuzigt ward, ein Garten und im Garten ein neues Grab, in welches niemand je gelegt war.

42 Dahin legten sie Jesus um des Rüsttages willen der Juden, weil das Grab nahe war.

20

1 An dem ersten Tage der Woche kommt Maria Magdalena frühe, da es noch finster war, zum Grabe und sieht, daß der Stein vom Grabe hinweg war.

2 Da läuft sie und kommt zu Simon Petrus und zu dem andern Jünger, welchen Jesus lieb hatte, und spricht zu ihnen: Sie haben den Herrn weggenommen aus dem Grabe, und wir wissen nicht, wo sie ihn hingelegt haben.

3 Da ging Petrus und der andere Jünger hinaus und kamen zum Grabe.

4 Es liefen aber die zwei miteinander, und der andere Jünger lief voraus, schneller als Petrus, und kam zuerst

zum Grabe,
5 schaut hinein und sieht die leinenen Binden gelegt; er ging aber nicht hinein.
6 Da kam Simon Petrus ihm nach und ging hinein in das Grab und sieht die Binden gelegt
7 und das Schweißstuch, das Jesus um das Haupt gebunden war, nicht zu den Binden gelegt, sondern beiseits, zusammengewickelt, an einen besonderen Ort.
8 Da ging auch der andere Jünger hinein, der zuerst zum Grabe gekommen war, und sah und glaubte.
9 Denn sie verstanden die Schrift noch nicht, daß er von den Toten auferstehen müßte.
10 Da gingen die Jünger wieder heim.
11 Maria aber stand vor dem Grabe und weinte draußen. Als sie nun weinte, schaute sie in das Grab
12 und sieht zwei Engel in weißen Kleidern sitzen, einen zu den Häupten und den andern zu den Füßen, da sie den Leichnam Jesu hingelegt hatten.
13 Und dieselben sprachen zu ihr: Weib, was weinst du? Sie spricht zu ihnen: Sie haben meinen Herrn weggenommen, und ich weiß nicht, wo sie ihn hingelegt haben.
14 Und als sie das sagte, wandte sie sich zurück und sieht Jesus stehen und weiß nicht, daß es Jesus ist.
15 Spricht Jesus zu ihr: Weib, was weinst du? Wen suchest du? Sie meint, es sei der Gärtner, und spricht zu ihm: Herr, hast du ihn weggetragen, so sage mir, wo hast du ihn hingelegt, so will ich ihn holen.
16 Spricht Jesus zu ihr: Maria! Da wandte sie sich um und spricht zu ihm auf hebräisch: Rabbuni! das heißt: Meister!
17 Spricht Jesus zu ihr: Rühre mich nicht an! denn ich bin noch nicht aufgefahren zum Vater. Gehe aber hin zu meinen Brüdern und sage ihnen: Ich fahre auf zu meinem Vater und zu eurem Vater, zu meinem Gott und zu eurem Gott.
18 Maria Magdalena kommt und verkündigt den Jüngern: Ich habe den Herrn gesehen, und solches hat er zu mir gesagt.
19 Am Abend aber desselben ersten Tages der Woche, da die Jünger versammelt und die Türen verschlossen waren aus Furcht vor den Juden, kam Jesus und trat mitten ein und spricht zu ihnen: Friede sei mit euch!
20 Und als er das gesagt hatte, zeigte er ihnen die Hände und seine Seite. Da wurden die Jünger froh, daß sie den Herrn sahen.
21 Da sprach Jesus abermals zu ihnen: Friede sei mit euch! Gleichwie mich der Vater gesandt hat, so sende ich euch.
22 Und da er das gesagt hatte, blies er sie an und spricht zu ihnen: Nehmet hin den heiligen Geist!
23 Welchen ihr die Sünden erlasset, denen sind sie erlassen; und welchen ihr sie behaltet, denen sind sie behalten.
24 Thomas aber, der Zwölfe einer, der da heißt Zwillig, war nicht bei ihnen, als Jesus kam.
25 Da sagten die andern Jünger zu ihm: Wir haben den Herrn gesehen. Er aber sprach zu ihnen: Wenn ich nicht in seinen Händen sehe die Nägelmale und lege meinen Finger in die Nägelmale und lege meine Hand in seine Seite, kann ich's nicht glauben.
26 Und über acht Tage waren abermals seine Jünger drinnen und Thomas mit ihnen. Kommt Jesus, da die Türen verschlossen waren, und tritt mitten ein und spricht: Friede sei mit euch!
27 Danach spricht er zu Thomas: Reiche deinen Finger her und siehe meine Hände und reiche deine Hand her und lege sie in meine Seite und sei nicht ungläubig, sondern gläubig!
28 Thomas antwortete und sprach zu ihm: Mein Herr und mein Gott!
29 Spricht Jesus zu ihm: Weil du mich gesehen hast, Thomas, so glaubst du. Selig sind, die nicht sehen und doch glauben!
30 Noch viele andere Zeichen tat Jesus vor den Jüngern, die nicht geschrieben sind in diesem Buch.
31 Diese aber sind geschrieben, daß ihr glaubet, Jesus sei der Christus, der Sohn Gottes, und daß ihr durch den Glauben das Leben habet in seinem Namen.

21

1 Danach offenbarte sich Jesus abermals den Jüngern am See Tiberias. Er offenbarte sich aber so:
2 Es waren beieinander Simon Petrus und Thomas, der da heißt Zwillig, und Nathanael von Kana in Galiläa und die Söhne des Zebedäus und andere zwei seiner Jünger.
3 Spricht Simon Petrus zu ihnen: Ich will fischen gehen. Sie sprechen zu ihm: So wollen wir mit dir gehen. Sie gingen hinaus und traten in das Schiff, und in derselben Nacht fingen sie nichts.
4 Als es aber schon Morgen wurde, stand Jesus am Ufer, aber die Jünger wußten nicht, daß es Jesus war.
5 Spricht Jesus zu ihnen: Kinder, habt ihr nichts zu essen? Sie antworteten ihm: Nein.
6 Er aber sprach zu ihnen: Werfet das Netz zur Rechten des Schiffs, so werdet ihr finden. Da warfen sie und konnten's nicht mehr ziehen vor der Menge der Fische.
7 Da spricht der Jünger, welchen Jesus lieb hatte, zu Petrus: Es ist der Herr! Da Simon Petrus hörte, daß es der Herr war, gürtete er den Rock um, denn er war nackt, und warf sich ins Meer.

8 Die andern Jünger aber kamen mit dem Schiff, denn sie waren nicht ferne vom Lande, sondern bei zweihundert Ellen, und zogen das Netz mit den Fischen.

9 Als sie nun ausstiegen auf das Land, sahen sie Kohlen gelegt und Fische darauf und Brot.

10 Spricht Jesus zu ihnen: Bringet her von den Fischen, die ihr jetzt gefangen habt!

11 Simon Petrus stieg hinein und zog das Netz auf das Land voll großer Fische, hundertdreiundfünfzig. Und wiewohl ihrer so viel waren, zerriß doch das Netz nicht.

12 Spricht Jesus zu ihnen: Kommt und haltet das Mahl! Niemand aber unter den Jüngern wagte, ihn zu fragen: Wer bist du? Denn sie wußten, daß es der Herr war.

13 Da kommt Jesus und nimmt das Brot und gibt's ihnen, desgleichen auch die Fische.

14 Das ist nun das dritte Mal, daß Jesus offenbart ward den Jüngern, nachdem er von den Toten auferstanden war.

15 Als sie nun das Mahl gehalten hatten, spricht Jesus zu Simon Petrus: Simon, des Johannes Sohn, hast du mich lieber, als mich diese haben? Er spricht zu ihm: Ja, Herr, du weißt, daß ich dich lieb habe. Spricht Jesus zu ihm: Weide meine Lämmer!

16 Spricht er zum zweiten Mal zu ihm: Simon, des Johannes Sohn, hast du mich lieb? Er spricht zu ihm: Ja, Herr, du weißt, daß ich dich lieb habe. Spricht Jesus zu ihm: Weide meine Schafe!

17 Spricht er zum dritten Mal zu ihm: Simon, des Johannes Sohn, hast du mich lieb? Petrus ward traurig, daß er zum dritten Mal zu ihm sagte: Hast du mich lieb? und sprach zu ihm: Herr, du weißt alle Dinge, du weißt, daß ich dich lieb habe. Spricht Jesus zu ihm: Weide meine Schafe!

18 Wahrlich, wahrlich, ich sage dir: Als du jünger warst, gürtetest du dich selbst und wandeltest, wo du hin wolltest; wenn du aber alt wirst, wirst du deine Hände ausstrecken, und ein anderer wird dich gürtend und führen, wo du nicht hin willst.

19 Das sagte er aber, zu zeigen, mit welchem Tode er Gott preisen würde. Und als er das gesagt, spricht er zu ihm: Folge mir nach!

20 Petrus aber wandte sich um und sah den Jünger folgen, welchen Jesus lieb hatte, der auch an seiner Brust beim Abendessen gelegen hatte und gesagt: Herr, wer ist's, der dich verrät?

21 Da Petrus diesen sah, spricht er zu Jesus: Herr, was wird aber mit diesem?

22 Jesus spricht zu ihm: Wenn ich will, daß er bleibe, bis ich komme, was geht es dich an? Folge du mir nach!

23 Da ging die Rede aus unter den Brüdern: Dieser Jünger stirbt nicht. Aber Jesus sprach nicht zu ihm: Er stirbt nicht, sondern: Wenn ich will, daß er bleibe, bis ich komme, was geht es dich an?

24 Dies ist der Jünger, der von diesen Dingen zeugt und dies geschrieben hat, und wir wissen, daß sein Zeugnis wahrhaftig ist.

25 Es sind auch viele andere Dinge, die Jesus getan hat. Wenn sie aber sollten eins nach dem andern geschrieben werden, achte ich, die Welt würde die Bücher nicht fassen, die zu schreiben wären.